조선어강독

1

유학생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88(1999)

차 례

머 리 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실 우리 나라 말은 높고낮음이 똑똑하고 말소리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나라 발음법을 배우면 아무 나라 말도 다 잘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0권, 347페지)

이 책은 외국류학생(예비반)용 교과서로 집필되였다.

이 교과서는 《조선어기초》를 이미 배운 학생들이 조선말에 대한 기초지식을 응용할수 있게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과서는 총 63개의 과로 설정되였는데 매 과에 본문, 문법, 련습을 주었다.

본문은 조선의 정치, 문화, 력사, 옛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였다.

문법에서는 주로 단어읽는 법을 상세히 서술하였으며 련습에서는 배운 내용을 공고히 할수 있게 물음에 대한 대답, 단어읽기, 단어결합, 내용말하기, 문장짓기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주었다.

교과서뒤에는 본문에서 나오는 새 단어와 생활에서 특별히 많이 쓰이는 단어를 주었다.

이 교과서는 이미 외국류학생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 얻은 경험과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집필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1.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후렴)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2.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후렴)

3. 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이십개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후렴)

김정일장군의 노래

1. 백두산 줄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2. 대지의 천만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3.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제 1 과. 《조국의 품》

모란봉에 붉게 타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에 곱게 비낀 무지갠가요
노을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품은
내가 자란 정든 집 고향입니다

진달래꽃 방긋 웃는 새봄인가요
종달새가 지저귀는 하늘인가요
봄날처럼 따사로운 조국의 품은
나를 안아 키워준 어머님입니다

바다우에 둥실 솟는 아침핸가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인가요
해빛처럼 밝고 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 품이랍니다

문법

—[형용사+게]+동사

붉게 타다

곱게 비끼다

—형용사+토 《ㄴ/은》(규정형, 현재시간)

밝고밝(다)+은—밝고밝은 조국의 품

기쁘(다)+ㄴ—기쁜 마음

—동사+토 《는》(규정형, 현재시간)

솟(다)+는—솟는 아침해

반짝이(다)+는—반짝이는 별빛

—동사+토 《ㄴ/은》(규정형, 과거시간)

정들(다)+ㄴ—정든 집

있(다)+은—있은 사람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이 노래는 어느분께서 지으신것입니까?
   2) 노래에서 조국의 품을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 본문에서 동사를 모두 찾아내고 그것과 명사와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3. 다음의 단어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붉게, 곱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4. 다음의 두 단어를 넣어서 한개의 문장을 지으시오.
   붉은, 밝은
5. 명작 《조국의 품》을 암송하고 노래를 불러보시오.

제 2 과. 조 선

조선은 아시아의 동쪽에 위치하고있다. 조선은 1,145키로메터의 길이와 약 650키로메터의 너비, 22만여평방키로메터의 면적을 가진 크지 않은 나라이다.

조선의 북쪽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로씨야와 국경을 하고있으며 동쪽, 서쪽, 남쪽 세면은 바다로 둘러싸여있다.

조선은 예로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리워왔다.

조선에는 이름난 산과 강, 진귀한 동물과 식물, 귀중한 자원이 많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지리산은 경치가 아름다와 조선의 6대명산으로 불리우고있다.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락동강은 조선의 5대장강이다.

조선의 북쪽에서는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자라고있고 남쪽에서는 귤, 감, 참대와 같은 남방식물들이 자라고있다.

산에는 범, 사슴, 노루, 꿩과 같은 동물들이 있으며 바다에는 명태, 고등어, 청어와 같은 물고기들이 있다.

땅속에는 200여종이나 되는 광물이 있다.

조선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나라이다.

조선인민이 처음으로 세운 나라는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지금으로부터 반만년전에 세워졌다. 고조선의 시조왕은 단군이였다.

조선민족의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선을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워주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완성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

문 법

존경을 나타내는 단어

있다—계시다
먹다—잡수시다
자다—주무시다
주다—드리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조선은 어디에 위치하고있습니까?
   2) 조선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3) 조선의 미래는 왜 창창합니까?
2. 다음의 단어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드리다
3. 조선에서 본 꽃들과 새들의 이름을 말하시오.

제3과. 두 장군 이야기

옛날 어느 바다가마을에 힘이 센 무쇠장군과 꾀가 많은 새별장군이 있었다.

두 장군은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았다. 그래서 누가 더 나은지 알수가 없었다.

어느날 두 장군은 마을사람들앞에서 누가 더 나은가를 보여주는 내기를 하였다.

먼저 말뚝에로 날아가는 화살을 동강내는 내기를 하였다.

그러나 두 장군이 다 날쌔게 말을 몰아 화살을 동강냈기때문에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장군은 가벼운 닭털을 담장너머로 날려보내는 내기를 하였다.

무쇠장군은 자기 힘만 믿고 닭털을 힘껏 던졌다.

그러나 닭털은 넘어가지 않고 나무잎처럼 가볍게 도로 내려앉았다. 이 내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무쇠장군은 다시 담장너머로 있는 힘껏 던졌지만 헛수고였다. 집채같은 바위도 번쩍 들군하던 무쇠장군이 어찌된 영문인지 꼼짝 못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새별장군이 나섰다.

새별장군은 닭털을 가만히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생각하다가 바람새를 가늠하였다. 바람이 부는 쪽을 가늠해본 새별장군은 바람부는 방향으로 닭털을 훅 불었다. 순간 입김에 의해 날아오른 닭털이 바람타고 하느작거리며 담장을 거침없이 넘는것이였다.

《야!—》

마을사람들속에서 환성이 터져올랐다.

결국 꾀많은 장군이 힘센 장군을 이겼다.

문 법

과거시간토 《았/었/였》의 어울림

—《았》이 어울리는 경우

끝소리마디의 모음이 《ㅏ, ㅑ, ㅗ》인 경우에 어울린다.

막다—막았다
얇다—얇았다
보다—보았다

—《었》이 어울리는 경우

끝소리마디의 모음이 《ㅓ, ㅕ, ㅜ, —》인 경우에 어울린다.

먹다—먹었다
주다—주었다

—《였》이 어울리는 경우

끝소리마디가 받침없이 《ㅐ, ㅔ, ㅚ, ㅟ, ㅣ》로 끝나거나 또는 《하》 다음에 어울린다.

던지다—던지였다
되다—되였다
전강하다—전강하였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두 장군은 어떤 내기를 하였습니까?
   2) 무쇠장군은 닭털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3) 새별장군은 닭털을 어떻게 담장너머로 넘겼습니까?

2. 묶음표안의 단어를 필요한 형태로 고치시오.

1) 무쇠장군은 힘이 (세다)(장군이다)

2) 새별장군은 무쇠장군보다 지혜가 (많다) (쉽다) 담장너머로 닭털을 (넘기다)

3) 결국 지혜가 많은 장군이 (힘세다) 장군을 (이기다)

3. 닭이 들어간 단어를 4개이상 말하시오.

4. 다음의 단어들에 알맞는 과거시간토를 붙이시오.

공부하다, 운전하다, 웃다, 먹다, 가다, 놀다, 많다, 넘기다, 달리다, 놓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4과. 의좋은 형제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있었다.

형과 동생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였다.

어느해 가을이였다.

벼가마니가 가득찬 고간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형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동생네를 좀 도와줘야지.)

그날밤 형은 지게다리가 휘도록 벼가마니를 져다가 동생네 고간에 넣어주고 돌아왔다.

그런데 동생은 동생대로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형님네는 식구가 많으니 우리것을 좀 가져다주어야지.)

동생은 벼가마니를 한짐 져다가 형님네 고간에 갖다놓고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고간을 돌아보던 형은 깜짝 놀랐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제밤에 벼가마니 한짐을 져다주었는데 고간에는 그전그대로 가득 쌓여있었다.

(참 이상한 일도 있군!)

동생도 고간을 돌아보고 머리를 기웃거렸다.

그날밤이였다.

또다시 벼가마니를 한짐씩 진 형은 동생네 집으로, 동생은 형네 집으로 떠났다.

형과 동생은 길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형님!》

《동생!》

형제는 서로 부르고나서 한동안 말을 못하였다.

그제야 형과 동생은 어제밤에 날라간 벼가마니가 제자리로 되돌아온 까닭을 알게 되였다.

형은 동생에게 《우리것을 가져가거라.》, 동생은 형에게 《아니예요, 우리것을 가져가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렇게 형제는 서로 정다운 다툼질을 하다가 끝내 자기들의 벼가마니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문법

받침 《ㅂ》가 《우(오)》로 바뀌여지는 현상

용언의 줄기가 받침 《ㅂ》로 끝나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가 오면 그 《ㅂ》는 《우(오)》로 바뀌여진다.

돕(다)+아—도와
돕(다)+으면—도우면
돕(다)+은—도운
돕(다)+을—도울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벼가마니가 가득찬 고간을 바라보던 형은 문득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2) 그날밤 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 이튿날 아침 동생은 창고를 돌아보고 왜 머리를 기웃거렸습니까?

2. 묶음표안의 단어를 필요한 형태로 고치시오.

례]: (아름답다) 조국—아름다운 조국

(춥다) 겨울, (가볍다) 짐, (덥다) 않다, (즐겁다) 하루

3. 다음의 단어를 그대로 쓰면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의좋다, 의좋은, 의좋게

4.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 5 과. 호박대가리

조선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이 벌어지던 때의 일이다.

주체26(1937)년 여름 간삼봉에서 큰 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놈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골짜기마다에는 일제놈들의 더러운 시체가 널려있었다.

일제놈들은 그것을 실어가려고 숱한 달구지들을 마을에서 끌어내였다. 그러나 시체가 너무 많아 다 실을수 없었다.

일제놈들은 시체에서 대가리만 잘라 마대에 넣었다. 조선사람들이 눈치챌가봐 제놈들끼리 몰래 하였다. 그렇지만 달구지를 끌고 온 농민들을 속일수는 없었다.

《이 마대안에 있는게 무엇인가요 ?》

한 농민이 물었다.

《너희는 몰라도 된다. 어서 나르기나 해라.》

일제놈은 꽥 소리를 질렀다.

《나리님, 이 물건이 깨질것이라면 달구지를 조심히 몰아야 할게 아닙니까 ?》

농민은 능청스럽게 다시 물었다.

《음… 이것은 호박대가리다.》

《호박에 무슨 대가리가 있나요 ?》

《아니다. 호박대가리가 아니라 호박이다.》

《예, 그참 늘 호박풍년이 들어야겠는데요. 하하하…》

농민은 큰 소리로 웃었다. 둘러섰던 달구지군들도 통쾌하게 웃었다.

일제놈들은 울상이 되여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이때부터 간삼봉의 호박대가리란 말이 세상에 퍼지게 되였다.

문법

[ㅌ, ㅅ, ㅆ, ㅈ, ㅊ]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ㄷ]로 읽는다.

밑—믿(ㅌ—ㄷ)
낫—낟(ㅅ—ㄷ)
있다—읻따(ㅆ—ㄷ)
낮다—낟따(ㅈ—ㄷ)
꽃—꼳(ㅊ—ㄷ)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이 이야기는 언제 어디에서 있은 이야기입니까 ?
   2) 일제놈들은 왜 시체에서 대가리만 잘라 마대에 넣었습니까?
   3) 일제놈들은 왜 울상이 되여 어쩔줄을 몰라했습니까 ?
2. 다음의 문장에서 틀린데를 고치시오.
   1) 비가 멎는후에 나는 상점에 갔다.
   2) 나는 숙제를 끝낼 다음에 창광원에 가겠다.
   3) 조선의 어린이들은 정말 행복한다.
   4) 김동무는 화요일마다 상점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3. 《죽다》를 여러가지로 달리 나타내시오.
   례 : 천당에 가다
4.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해보시오.
   듣다, 갈다, 솟다, 낫, 찾다, 빛
5. 본문을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 6 과. 곰동산과 토끼동산

먼 옛날 어느곳에 곰동산과 토끼동산이 있었다.

따뜻한 봄이 왔다.

귀여운 토끼들은 동산을 아름답게 꾸리려고 모두 부지런히 일하였다.

집둘레에는 꽃씨를 뿌리고 동산에는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미욱한 곰들은 아름다운 동산을 마구 못쓰게 만들었다.

살이 뒤둥뒤둥 진 곰들은 푸르러가는 나무들을 마구 꺾어버렸다. 어떤 곰은 힘자랑을 한다고 우쭐렁거리며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렸다./

무더운 여름이 왔다.

토끼네 집들은 꽃속에 묻히고 동산에는 푸른 숲이 우거졌다. 산열매가 향기를 풍기고 뭇새들이 찾아와 노래를 불렀다. 토끼들은 그늘아래서 더위를 모르고 즐겁게 살았다.

그런데 곰동산은 이와 반대로 되였다.

해가 따겁게 내리쪼여도 해빛을 가리울 선선한 그늘 하나 없었다.

장마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나무숲이 무성한 토끼동산은 무더기비에도 끄떡없었다.
그러나 나무 한대 없는 곰동산에는 큰물이 나고 바위가 무너져내렸다.
그리하여 곰들은 모두 큰물에 빠져죽고말았다.
나무를 사랑하지 않고 모조리 뽑아버렸기때문이였다.

문 법

동사만들기

· 상징부사+뒤붙이[거리]+다
 —동사
  우쭐렁우쭐렁→우쭐렁+거리+다—우쭐렁거리다
  흔들흔들→흔들+거리+다—흔들거리다
  기웃기웃→기웃+거리+다—기웃거리다
· 동사+아(어)+동사—동사
  뽑(다)+아+버리다—뽑아버리다
  녹(다)+아+버리다—녹아버리다
  꺾(다)+어+버리다—꺾어버리다
  쓸(다)+어+버리다—쓸어버리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토끼들은 동산을 잘 꾸리려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2) 곰들은 동산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3) 장마비에 곰동산은 어떻게 되였습니까?
2. 뒤붙이 《거리》가 들어간 단어를 10개이상 찾으시오.
3. 비와 관련된 단어를 5개이상 찾으시오.
4. 다음의 단어들에 보조동사 《버리다》를 결합하시오.
 죽이다, 먹다, 깨다, 마스다
5.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 7 과. 《우리 교실》

아름다운 교실
언제나 재미나는 교실
앞에는 원수님초상화
환하게 모셔져있지요

오늘 아침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실에 들어서니
언제든지 반가운듯이
우리 보고 공부 잘하라고…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바람에 실버들 푸르렀네
우렁찬 건설의 노래와 함께
원수님을 우리는 받드네

노래하자! 원수님을…
우리는 승리하였네
행복한 민주의 터전은 건설되네
노래하자! 우리의 원수님을…

우리의 교실은 알뜰한 교실
언제든지 책상에 앉으면
너그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네
새나라 착한 아이들 되라고…

우리는 언제나 받드네 원수님을…
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나라 일군이 되자!
항상 준비하자!

문 법

단어만들기
 —명사+하다—동사

노래하다 준비하다
승리하다 건설하다
말씀하다 공부하다

—명사+하다—형용사
행복하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우리 교실은 어떤 교실입니까?
   2) 대원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 대원수님의 가르치심따라 무엇이 되여야 합니까?
2. 《명사+하다》로 된 동사를 10개이상 찾으시오.
3. 묶음표안의 단어를 필요한 형태로 고치시오.
   1) 우리의 교실은 (알뜰하다) 교실이다.
   2) 우리들은 (기쁘다)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다.
   3) (행복하다) 민주의 터전은 (건설되다)
4. 다음의 단어들을 넣어서 한개의 문장을 지으시오.
   반갑다, 환하다, 아침, 항상
5. 동시 《우리 교실》을 외우고 읊어보시오.

제 8 과. 두 친구

그리 오래지 않은 옛날이였다.

두 친구가 깊은 산길을 걸어가고있었다.

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자고 굳게 약속하였다.

나무숲이 우거진곳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커다란 곰 한마리가 나타났다.

곰을 먼저 본 사람은 친구에게 알릴 생각도 못하고 얼른 나무우에 올라가 숨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은 땅우에 넙적 누웠다.

곰은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도 하고 뺨을 핥아보기도 하였다.

누운 사람은 숨도 안쉬고 죽은듯하였다.

한참동안 그 사람의 주위를 돌던 곰은 그냥 가고말았다. 곰은 죽은것을 먹지 않기때문이였다.

곰이 가버리자 나무우에 숨어있던 사람이 내려왔다.

그 사람은 아직도 누워있는 친구를 흔들며 《여보게 친구, 곰이 갔네. 그런데 곰이 자네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던가?》하고 물었다.

누워있던 사람은 일어나 앉으며 《위험한 때 제 혼자만 달아나는 사람과는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하더군》하고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문 법

동사, 형용사 줄기의 끝받침 《ㄴ, ㄵ, ㄻ, ㅁ》의 다음에 오는 토나 단어결합의 순한소리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안다—안따, 심다—심따, 논두렁—논뚜렁, 손가락—손까락, 산길—산낄, 눈동자—눈똥자, 손바닥—손빠닥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두 친구는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2) 곰을 먼저 본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 곰은 왜 누워있는 사람의 주위를 돌다가 그냥 갔습니까?
2. (—것은 … …때문이다)형의 문장을 3개이상 만드시오.
3. 웃음을 나타내는 단어를 5개이상 찾으시오.
   례: 쓴웃음
4.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해보시오.
   손길, 눈길, 손등, 산속, 산불
5.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 9 과. 조선의 사계절

조선의 한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로 나누인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봄이다.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산과 들에서는 눈이 녹으며 강에서는 얼음이 풀린다.

봄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 꽃속에 묻히는 계절이다.

봄이 오면 진달래와 개나리꽃이 먼저 피고 련이어 살구꽃, 복숭아꽃, 사과꽃을 비롯한 여러가지 꽃들이 핀다.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 피여나는 봄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조선의 봄은 농사가 시작되는 철이다.

농민들은 밭에 씨앗을 묻고 논에 모를 낸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온다.

6월부터 8월까지가 여름이다.

여름에는 뜨거운 해볕이 내리쪼이고 날씨는 무더워진다.

농민들은 논밭에 비료를 주며 기계와 농약으로 김을 맨다.

7, 8월이 되면 모든 학교들에서 방학이 시작된다.

방학기간에 학생들은 즐겁게 휴식도 하고 몸도 단련한다.

여름에는 비가 자주 내린다.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시작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날씨는 서늘해지고 공기와 시내물은 더욱 맑아진다. 그리고 하늘은 더 높고 푸르러진다.

밭에서는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바람에 설레이고 과수원들에서는 과일들이 무르익어 향기를 풍긴다.

풍년의 노래 넘치는 들에서는 가을걷이로 흥성거린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겨울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계속된다.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다. 거리와 마을, 산과 들에는 흰눈이 덮이고 강물은 언다.

겨울에는 메마르고 찬 북~북서풍이 불어와서 날씨가 차다.

얼음이 두터워지면 학생들은 스케트장에서 스케트를 탄다.

조선은 이렇듯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다.

문법

거센소리되기

받침 [ㄷ], [ㅂ], [ㄱ], [ㅈ]는 자음 [ㅎ]와 결합되면서 [ㅌ], [ㅍ], [ㅋ], [ㅊ]로 된다.

ㄷ+ㅎ, ㅎ+ㄷ → ㅌ	맏형[마텽] 묻히다[무티다], [무치다] 좋다 [조타]
ㄱ+ㅎ, ㅎ+ㄱ → ㅋ	역할[여칼] 넣고[너코]
ㅂ+ㅎ > ㅍ	입학[이팍]
ㅈ+ㅎ, ㅎ+ㅈ → ㅊ	꽂히다 [꼬치다] 낳지요 [나치요]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조선에서 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 봄이 오면 어떤 꽃들이 피여납니까?
   3) 여름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4) 조선의 겨울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겨울의 평균기온은 얼마입니까?
2. 다음의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형태로 고치시오.
   1)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하다) 산과 들에는 눈이 (녹다) 강에서는 얼음이 (풀리다)
   2) 벌에서는 (누렇다) (익다) 곡식들이 바람에 (설레이다) 과수원들에서는 과일들이 (무르익다) 향기를 (풍기다).
3. 《꽃》으로 새 단어를 5개 만드시오.
4.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해보시오.
   좋다, 낳다, 돋히다, 맞히다, 꽂히다, 입학
5. 다음의 단어들에 토 《니》, 《ㅂ니다》를 붙이시오.
   얼다, 울다, 물다, 살다
6. 네계절에서 제일 좋은 계절을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시오.

제10과. 보물통과 빈통

옛날옛적 어느 깊은 산골마을에 한 나무군총각이 살고있었다.

어느날 나무군총각은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다.

땀을 흘리며 도끼질을 하던 나무군총각은 잠시 땀을 들이려고 나무그늘밑에 가서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라도 치듯 《짜르릉 꽝꽝》하는 소리가 온 산을 들었다놓는것이였다.

깜짝 놀란 나무군총각은 얼른 일어나 산꼭대기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난데없이 산꼭대기에서 두개의 큰 나무통이 데굴데굴 굴러 내려오는것이였다.

한 통은 조용히 굴러내려왔고 다른 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내려왔다.

나무군총각의 눈길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나무통에 가서 멎었다. 소리만 들어봐도 그안에는 틀림없이 큰 보물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다.

나무군총각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 통을 열었다.

그런데 통안은 텅텅 비여있었다.

실망한 총각이 이번에는 소리없이 굴러온 통을 열었다. 그런데 그 통안에는 진귀한 보물이 가득 들어차있었다.

그제서야 나무군총각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럴테지, 속에 든것이 많으니까 소리가 안날수밖에!》

문법

단어만들기

—명사+길

눈+길→눈길

손+길→손길

발+길→발길

—명사+질

톱+질→톱질

도끼+질→도끼질

마당+질→마당질

손+질→손질

눈+질→눈질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나무군총각은 왜 나무그늘밑에 갔습니까?
   2) 나무군총각은 왜 깜짝 놀랐습니까?
   3) 소리없이 굴러온 통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2. 다음의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 나무군총각은 깜짝 놀랐다.
     그는 얼른 일어나 산꼭대기를 쳐다보았다.
   -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온 통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없이 굴러온 통에는 진귀한 보물이 가득하였다.
3. 다음의 단어로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 만드시오.
   요란하다, 실망하다, 놀라다
4. 뒤붙이 《질》이 들어간 단어를 4개이상 찾으시오.
5.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11과. 접수실에서 있은 이야기

어느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제2인민학교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 현관안에 들어서시여 복도쪽으로 걸음을 옮기실 때였다. 뜻밖에도 뒤에서 《접수하고 들어가십시오.》하는 학생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접수하고 들어가란 말인가고 하시며 되돌아서시여 학생쪽으로 가시더니 녀학생이 펼쳐드리는 접수책과 연필을 받아쥐시였다.

《여기에는 오늘 날자를 쓰십시오.》

녀학생은 접수책의 첫 란을 손으로 짚으면서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이 7월 4일인가고 녀학생에게 다정히 물으신후 날자를 써넣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허리를 펴시고 다음란에는 무엇을 쓰면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녀학생은 누구를 만나러 오셨다는것을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장선생님**》이라고 쓰시고는 용무란에는 《**국가졸업시험정형을 보려고 함**》이라고 써넣으시였다.

녀학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시는것을 한자한자 눈으로 읽다가 다음란에는 선생님의 직장과 직위를 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학생이 말씀올린대로 써넣으시였다.

그이께서 연필을 놓으시고 허리를 펴시자 녀학생은 깜짝 놀라며 자기 눈을 의심하듯 다시한번 접수책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씌여져있었던것이다.

녀학생은 그처럼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게 된 커다란 기쁨과 함께 그이를 알아뵙지 못하고 버릇없이 군 부끄러움으로 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히려 녀학생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면서 참 똑똑하다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였다.

정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없이 소박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문법

반침 [ㄱ]뒤에 오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는 해당한 된소리로 발음된다.

국가[국까], 목소리[목쏘리], 복도[복또], 맥주[맥쭈], 벽보[벽뽀]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왜 평양제2인민학교에 나오셨습니까?
   2) 녀학생은 왜 깜짝 놀랐습니까?
   3) 녀학생은 왜 얼굴을 들지 못하였습니까?
2.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해보시오.
   먹다, 죽다, 국수, 국기, 악기
3. 다음의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를 《~기때문에》 형태로 고치시오.
   1) 비가 (오다) 나는 상점에 가지 않았다.
   2) 날이 (춥다) 영철이는 솜옷을 입었다.
   3) 그는 (아프다) 병원에 갔다.
4.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12과. 해와 달

아직은 이 세상에 해와 달도 없었던 먼 옛날에 있은 이야기이다.

어느 깊은 산속에 홀어머니가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다.

어느날 어머니는 밭으로 일하러 가면서 오누이에게 말하였다.

《무서운 짐승들이 나돌아다니니 문을 걸고있거라.》

어머니의 말을 문밖에서 범이 엿들었다. 범은 기다리고있다가 밭에서 돌아오는 어머니를 잡아먹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옷까지 입고 오누이를 찾아왔다.

오누이는 정말 어머니가 온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다. 순간 오누이는 깜짝 놀랐다.

오누이는 뒤문으로 빠져나와 큰 느티나무우로 올라갔다. 오누이를 찾아 돌아치던 범은 나무우에 올라간 그들을 발견하고 집어삼킬듯 으르렁거렸다.

그러나 범은 나무에 오를수 없었다.

그 꼴을 지켜보던 남동생이 그만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였다.

《이 바보야, 우리는 말이야, 앞집 도끼, 뒤집 도끼를 얻어다 따딱 찍으면서 올라왔단다.》

범은 도끼를 가져다 나무를 찍으며 한치한치 기여오르기 시작하였다.

오누이는 하늘에 대고 빌었다.

《우리를 살리려거든 성한 바줄을 내려보내고 죽이려거든 썩은 바줄을 내려보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는 성한 바줄이 내려왔다. 오누이는 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나 범은 오누이가 하던 말을 그만 잘못외웠다.

《나를 살리려거든 썩은 바줄을 내려보내주시오.》바줄을 타고 오르던 범은 바줄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말았다.

지금도 수수대가 붉은것은 그때 범이 흘린 피자국이라고 한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였다. 해가 된 누나는 범에게 속히운 자기를 비웃는것 같아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해빛으로 눈을 꼭꼭 찔러준다. 달이 된 남동생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 어두운 밤에만 나타난다고 한다.

문법

동사조성의 뒤붙이 [~뜨리]

트(다)+어+뜨리+다>터뜨리다

넘(다)+어+뜨리+다>넘어뜨리다

쓸(다)+어+뜨리+다>쓸어뜨리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어느날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2) 바줄을 타고 오르던 범은 왜 떨어져 죽었습니까?
   3) 해가 된 누나는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2. 다음의 단어들로 물음문을 각각 만드시오.
   엿듣다, 놀라다, 내려보내주다
3. 뒤붙이 《뜨리》가 들어간 단어를 6개이상 찾으시오.
4.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속다, 속히다, 속이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13과. 길가에서의 례의도덕

흔히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일정한곳을 물어보거나 묻는 사람에게 길을 가리켜줄수 있다.

이때 묻는 사람과 가리켜주는 사람은 다같이 말과 행동을 례절바르게 해야 한다.

길이나 장소를 물을 때 바삐 뛰여가는 사람, 무거운 짐을 다루고있는 사람, 몸이 불편해하는 사람에게는 될수록 묻지 말아야 한다.

또한 큰소리로 묻거나 너무 작은 소리로 묻지 말아야 한다.

길이나 장소를 물을 때 간단하게 말해야 한다.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라고 한 다음 물어야 한다.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있거나 일을 하고있는 사람에게 물으려고 할 때에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말을 먼저 하는것이 좋다.

다음 알려고 하는것을 다 물은 다음에는 아무런 인사도 없이 가버리지 말고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말을 해야 한다.

누가 물어볼 때는 말을 잘 듣고 대상에 맞게 언어례절을 지키며 친절하게 대답해야 한다.

물음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몰라요》하면서 제 갈 길을 가거나 《저기》, 《왼쪽》하고 가리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길이나 장소를 가리켜줄 때에는 될수록 묻는 사람이 알수 있는곳을 기준으로 하여 차근차근 설명해주어야 한다.

실례로 인민대학습당을 물었다고 하면 먼저 《1백화점을 아십니까?》하고 물어본 다음 안다고 하면 《1백화점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자면 지하전동차를 타고 승리역에서 내리면 됩니다.》하고 친절하게 대주어야 한다.

만약 물음에 대답을 줄수 없으면 《실례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무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

길거리에서 오고가는 한두마디의 말이지만 길을 물을 때나 가리켜줄 때 례절을 잘 지켜야 한다.

문법

받침 [ㄷ]가 [ㄹ]로 바뀌여지는 현상

일부 용언의 줄기가 받침 [ㄷ]로 끝나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가 오면 그 [ㄷ]는 [ㄹ]로 바뀌여진다.

묻다	걷다	듣다
물어서	걸어서	들어서
물으니	걸으니	들으니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길이나 장소를 물을 때 먼저 어떤 말을 하는것이 좋습니까?
   2) 길이나 장소를 가리켜줄 때에는 될수록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3) 길이나 장소를 안후에는 어떻게 인사를 하여야 합니까?
2. 다음의 문장들을 두개의 문장으로 나누시오.
   1) 물음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몰라요.》하면서 제 갈 길을 가거나 《저기》, 《왼쪽》하고 가리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일정한곳을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례절있게 행동해야 한다.
3. 다음의 문장을 시킴문, 추김문, 물음문으로 고치시오.
   사업과 생활에서 례의도덕을 잘 지키였다.
4.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서 례의도덕을 지키지 못했던 현상을 두가지이상 말하시오.
5. 다음의 단어들에 이음토 《으니》, 《아/어/여》를 붙여보시오.
   깨닫다, 싣다, 다닫다

제14과. 금도끼와 쇠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소년이 있었다.

어느날 소년은 산기슭 늪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다. 소년은 너무도 안타까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고요하던 늪이 부글부글 끓더니 백발로인 한분이 솟아올라오는것이였다.

《애야, 너 왜 울고있느냐?》

로인의 물음에 소년은 도끼를 빠뜨린 사연을 말하였다. 로인은

물속에 들어가더니 번쩍거리는 금도끼를 들고나왔다.

《이것이 네 도끼냐?》

《아니예요. 내 도끼는 그렇게 좋은 도끼가 아니예요.》

로인은 다시 물속에 들어가 쇠도끼를 들고나왔다.

《예.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소년은 기뻐하며 도끼를 받았다.

로인은 정직한 소년을 크게 칭찬하며 금도끼와 쇠도끼를 다 주었다.

마을 지주아들놈이 이 사실을 알고 늪가에 가 나무를 하는척 하다가 도끼를 우정 물속에 빠뜨렸다. 그리고는 엉엉 우는 시늉을 하였다.

이때 물이 끓더니 백발로인이 또 나타났다. 지주아들놈은 도끼를 빠뜨린 사연을 말하였다.

로인은 물에 들어가더니 쇠도끼를 들고나왔다.

《아니예요. 내 도끼가 아니예요.》

로인은 다시 늪에 들어가 금도끼를 들고나왔다.

《자, 이것이 자네 도낀가?》하고 로인이 물었다.

욕심많은 지주아들놈은 이때라고 생각하고 얼른 자기 도끼라고 하였다.

《음, 자네것이라구?》

이상한 할아버지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자네는 거짓말을 썩 잘하는군! 자네한테는 쇠도끼 한자루도 아깝네.》하고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욕심많은 지주아들놈은 제도끼만 잃어버리고말았다.

문 법

받침 《ㄺ, ㄾ, ㅀ》은 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 [ㄹ]로 읽는다.

곬빠지기—골빠지기
핥다—할따
돐—돌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소년은 왜 울었습니까?
   2) 로인이 금도끼를 들고나왔을 때 소년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3) 로인은 지주아들놈에게 왜 쇠도끼도 아깝다고 하였습니까?
2. 다음의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1) 소년은 산기슭 늪가에서 나무를 하였다. 그는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다.
   2) 소년은 정직하고 착하였다.
      로인은 그에게 금도끼도 주었다.
   3) 지주아들놈은 쇠도끼를 늪에 던지였다. 그놈은 우는 시늉을 하였다.
3. 본문에서 규정형으로 쓰인 단어들을 모두 찾고 그것이 무슨 품사인가를 밝히시오.
4.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옳지, 옳다, 끓다, 끓어, 좋다, 좋어
5.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안타깝다, 솟아오르다, 칭찬하다, 기뻐하다
6.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해보시오.

제15과. 끝내 보시지 못한 구룡연

주체36(1947)년 9월말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금강산을 찾으시였다. 백두산위인들께서는 수원들과 함께 구룡연을 향해 길을 떠나시였다.

하늘은 맑게 개이였다.

그날따라 금강산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더욱 뽐내는듯싶었다.

금강산의 4대절경의 하나로 불리우고있는 옥류동골짜기에 이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지난날 산에서 싸울 때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와보니 듣던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감탄하시였다.

아름다운 구룡연을 지척에 두고 걸으실 때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고는 시계를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먼저 내려가 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졌다.

예로부터 구룡연을 못보고서는 금강산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소문난 구룡연을 지척에 두고 되돌아서다니…

항일의 그날에도 소문난 금강산을 그렇게도 보고싶어하시던 김정숙동지이시였다.

한 녀성일군이 어제도 만물상구경을 하지 못하셨는데 오늘도 또 되돌아서시면 어떻게 하시는가고 말씀드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소를 담으신채 꼭 내려가보아야 할 일이 있다고 조용히 말씀하시고는 걸음을 옮기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현지지도준비를 위해 그처럼 보고싶어하시던 구룡연을 곁에 두시고도 되돌아서신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충성심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날을 잊지 못해하시며 김정숙동무는 구룡연을 끝내 구경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가슴아프게 말씀하시였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며 길이 전해지고있다.

문법

풀어옮김법

알림문 […합니다 / …해요 / …하오 / …해] …한다고

추김문 […합시다 / …하자요 / …하자] …하자고

물음문 […합니까 / …해요? / …하오? / …해?] …하는가고

시킴문 […하십시오 / …하세요 / …하오 / …해라 / …해] …하라고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언제인가 금강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까?
   2) 김정숙동지께서는 왜 구룡연을 지척에 두고 내려가시였습니까?
   3) 일군들은 왜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였습니까?
2. 본문에서 《가슴》이 들어간 표현을 찾고 각각 문장을 지으시오.
3. 다음의 밑줄그은 부분에 알맞는 단어를 4개이상 써넣으시오.
   ________을 금치 못하였다.
4. 대사문을 2개이상 만들고 그것을 풀어옮김법으로 고치시오.
5. 본문에서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16과. 돌배 딴 이야기

산밑에 큰 돌배나무가 한그루 서있었다.

나무에는 누렇게 익은 돌배가 주렁주렁 열렸다.

먹을것을 찾아 헤매던 산돼지, 사슴, 노루, 토끼들이 돌배나무를 보고 모여들었다.

《야, 이건 내거다!》

제일 먼저 달려온 산돼지가 씩씩거리며 웨쳤다.

그리고는 돌배를 따려고 펄쩍 뛰여올랐다.

《나도 좀 따먹자!》

눈을 데룩거리던 노루도 껑충 뛰여올랐다.

《나도 좀 따먹어야지!》

사슴도 팔짝 뛰여올랐다.

《나도…》

토끼도 깡충 뛰여올랐다.

산돼지는 펄쩍, 노루는 껑충, 사슴은 팔짝, 토끼는 깡충 뛰여올랐으나 돌배를 한알도 딸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돌배를 딸수 있을가?)

모두 생각에 잠겼다.

산돼지는 입만 쩝쩝거리고 노루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사슴은 턱을 고이고 토끼는 두 귀를 쫑긋거리며 생각하였다.

이때 토끼가 한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좋은 수가 있다. 힘을 모아 따는것이 어때?》

노루와 사슴은 《그게 좋겠다.》고 하였다.

《싫다. 혼자 따서 나만 먹을테다.》

욕심꾸러기 산돼지만은 또다시 펄쩍 뛰여올랐다.

그러나 쿵쿵 궁둥방아만 찧었다.

노루와 사슴, 토끼는 힘을 합쳐 따기로 하였다.

맨밑에는 노루가 서고 그우에는 사슴이 올라서고 사슴우에는 토끼가 깡충 뛰여올랐다.

토끼는 노래를 부르며 돌배를 땄다.

노루, 사슴, 토끼는 잠간사이에 돌배를 수북이 따놓고 사이좋게 나누어먹었다.

산돼지는 한알도 따지 못하고 군침만 삼켰다.

그제야 산돼지는 제 잘못을 뉘우쳤다.

문법

본뜬말에서 첫머리에 있는 소리마디에 밝은모음이 있으면 그뒤에 오는 모음도 밝은모음이고 첫머리에 있는 소리마디에 어두운 모음이 있으면 그뒤에 오는 모음도 어두운모음이다.

깡충—껑충

팔짝—펄쩍

콩콩—쿵쿵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제일 먼저 달려온 산돼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 노루와 사슴, 토끼는 어떻게 돌배를 땄습니까?
   3) 산돼지는 왜 돌배를 따지 못하였습니까?
2. 《~ㄹ/을테다》의 형태가 들어간 문장을 2개이상 지으시오.
3. 뒤붙이 《꾸러기》가 들어간 단어를 4개이상 드시오.
4.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해보시오.
   까맣다, 노랗다, 하얗다, 넣다
5.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17과. 거북선

거북선은 조선에서 만든 세계최초의 철갑선이다.

몸체는 거부기모양으로 생겼고 갑판은 거부기등처럼 되였다. 갑판에는 칼날과 송곳을 촘촘히 꽂아 적들이 발을 붙일수 없게 하였다.

거북선의 대가리안에서는 류황과 염초를 태워서 앞을 분간할수 없게 하였으며 연기에는 독이 있어서 적들이 접근하는것을 방해하였고 대포로 무장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순신장군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지 못한 거북선을 만들었을뿐아니라 조선에 기여드는 왜적을 바다에서 물리친 애국명장이라고 하시였다.

리순신은 임진조국전쟁때 거북선을 만들어 왜적을 처물리친 조선의 이름난 애국적장군이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기전에 리순신은 전라도 수군의 지휘관으로 되였다.

그때 수군의 배들은 변변치 못했고 무기들도 보잘것없었다.

그렇지만 리순신은 락심하지 않고 인민들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동원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다.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나자 리순신은 거북선들을 거느리고 남해바다로 나가서 왜적들을 족치였다.

왜적의 수군은 어찌나 혼이 났던지 거북선만 나타나면 도망치군하였다.

리순신장군의 함대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왜적을 바다물속에 처넣었으며 인민들은 여기서 힘을 얻고 왜적들과 용감히 싸웠다.

리순신은 후에 조선수군사령관이 되였다.

7년동안이나 계속되던 전쟁이 끝날무렵 쫓겨가는 왜적의 마지막부대를 쳐부시는 싸움이 로량앞바다에서 벌어졌다.

리순신은 배우에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싸움이 승리로 끝날무렵 적탄이 그의 가슴을 뚫었다.

그는 쓰러져 숨지면서도 자기가 죽었다는것을 군사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가봐 념려하였던것이다.

로량앞바다에서의 전투는 승리로 끝났으며 그것으로 하여 임진조국전쟁은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결속되였다.

애국명장 리순신장군과 그가 만든 거북선은 이처럼 나라를 지

키는데서 큰 공을 세웠으며 그것으로 하여 후세에 그 이름을 남겼다.

문법

부사만들기

형용사+뒤붙이[~히]→부사

촘촘하(다)→촘촘+히→촘촘히

부지런하(다)→부지런+히→부지런히

용감하(다)→용감+히→용감히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거북선의 형태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리순신장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였습니까?
   3) 리순신은 왜 자기가 죽었다는것을 군사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2. 다음의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 몸체는 거부기모양으로 생겼다. 갑판에는 칼날과 송곳을 촘촘히 꽂았다.
   - 수군의 배들은 변변치 못하였다. 그러나 리순신은 락심하지 않고 인민들의 지혜와 힘을 동원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다.
   - 애국명장 리순신장군은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것으로 하여 후세에 그 이름을 남겼다.
3. 뒤붙이 《히》가 들어간 부사를 5개이상 찾으시오.
4. 본문에서 동사들을 찾고 그와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18과. 주체사상탑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는 주체사상탑이 높이 솟아있다.

주체사상탑은 주체71(1982)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면서 제막되였다.

주체사상탑은 높이 170메터의 탑과 동으로 된 3인군상, 6편의 화강석 부주제군상, 두개의 정각과 두개의 대형분수 등으로 되여있다.

탑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상징하여 모두 70개의 단으로 이루어져있다.

탑신우에는 주체의 빛발을 상징하는 20메터높이의 봉화가 붉게 타오르고있다.

주체사상탑은 세계 석탑들중에서 제일 높다.

영국의 백탑은 중세기의 포악한 왕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건설되였고 프랑스의 에펠탑은 프랑스부르죠아혁명 100돐을 기념하여 세워졌다. 이러한 탑들은 오늘 관광대상으로만 되고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탑들이 있어도 주체사상탑처럼 위대한 사상을 상징하여 건립된 기념비는 없다.

주체사상탑은 세계 그 어느곳에서나 다 보이는 탑이다.

문법

받침 [ㅂ]뒤에 이어지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입구→입꾸 (ㅂ+ㄱ>ㅂ+ㄲ)

맵다→맵따 (ㅂ+ㄷ>ㅂ+ㄸ)

탑신→탑씬 (ㅂ+ㅅ>ㅂ+ㅆ)

업적→업쩍 (ㅂ+ㅈ>ㅂ+ㅉ)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주체사상탑은 어디에 위치하고있습니까?
   2) 탑신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3) 탑신의 70개의 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4) 주체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2. 다음의 두 단어를 같이 넣어 하나의 문장을 지으시오.
   —따뜻하다, 보살피다
   —상징, 보급하다
   —주인, 건설하다
3. 다음의 단어들로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 만드시오.
   행복하다, 따뜻하다, 보살피다
4.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해보시오.
   덥다, 잡다, 습격, 접시, 압박
5. 조선에서 본것들중에서 가장 인상적인것을 말하시오.

제19과. 고기냄새값

옛날에 욕심많은 지주놈이 거리에 주막을 차려놓고 고기와 술로 오가는 행인들의 돈을 긁어내고있었다.

어느날 한 나무군총각이 장에 가서 나무를 팔고 돌아오다가 주막앞을 지나게 되였다. 코를 찌르는 고기냄새에 걸음을 멈춘 총각은 저도모르게 중얼거렸다.

《정말 맛있는 냄새로군.》

그런데 고기와 술이 잘 팔리지 않아 화가 났던 지주놈이 그 소리를 듣고 총각의 뒤덜미를 잡으며 호통을 쳤다.

《이놈아, 냄새를 맡았으니 고기값을 내라.》

하도 어이가 없어 나무군총각이 지주놈에게 따지고들었다.

《여보시오. 내가 그 고기를 먹기나 했소? 왜 값을 내라는거요?》

그러나 지주놈은 고기냄새를 맡았으니 값을 내라고 억지를 썼다. 한참 생각하던 총각은 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자 지주놈은 돈을 내려는가 하여 입을 헤 벌리고 제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놈에게 바싹 다가간 총각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절랑절랑 흔들어보이고는 태연하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고기냄새를 맡아 돈을 낸다 하고 당신은 돈소리를 들었으니 돈을 내야 할게 아니요.》

이렇게 말한 총각은 태연하게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

지주놈은 입만 쩝쩝 다시며 멀어져가는 나무군총각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문법

일부 단어에서 앞에 있는 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형태부가 순한소리 아니면 울림소리자음으로 시작될 때 그 사이에 막힘소리가 끼여든다.

고기냄새+값—고기냄샛깝

나무+군—나뭇꾼

고기+값—고깃깝

코+노래—콧노래—콘노래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나무군총각은 주막앞에서 왜 걸음을 멈추었습니까?
   2) 지주놈은 왜 화가 났습니까?
   3) 나무군총각은 지주놈을 어떻게 골려주었습니까?
2. 다음의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1) 한참 생각하던 총각은 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자 지주놈은 돈을 내는가 하여 입을 헤 벌리였다.
   2) 지주놈은 입만 쩝쩝 다시였다. 그놈은 멀어져가는 나무군총각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3. 《~아/어/여놓다》의 형태로 된 단어를 3개이상 들고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4. 다음의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말하시오.

   중얼거리다. 재잘거리다.

   수군거리다. 쿵쿵거리다.

   소곤거리다. 양양거리다.
5.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해보시오.

   나무단, 모단, 차길, 코대, 이발, 코날
6. 본문에서 나무군총각이 지주놈을 골탕먹이는 본문을 찾고 자기 말로 이야기하시오.

제20과. 평양의 을밀대

모란봉의 가장 아름답고 풍치좋은곳에 을밀대가 솟아있다.

을밀대는 가파로운 벼랑턱에 돌을 가쯘히 쌓아올리고 그우에 세워놓은 명승고적이다.

을밀대는 고구려때 세워졌는데 수도 평양성의 북쪽을 지키는 장수들의 지휘처였다.

을밀대에는 여러가지 전설도 깃들어있다.

고구려때 을밀장군이 여기서 외적을 물리치고 평양성을 지켜냈다는 전설과 이곳의 경치가 하도 좋아 을밀선녀가 늘 와서 놀았다는 전설도 있다.

을밀대는 평양의 명승으로 이름이 높다.

옛사람들은 평양에서도 경치가 뛰여나게 좋은곳을 여덟군데 꼽아 평양8경이라고 불러왔다. 그가운데서도 유명한곳이 바로 《을밀상춘》이다. 이 말은 을밀대에서 바라보는 봄의 경치라는 말이다.

을밀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참으로 황홀하고도 장쾌하다.

발밑으로는 깎아지른듯한 청류벽을 스치며 유유히 흐르는 맑고

푸른 대동강이 내려다보인다. 수양버들 흐느적거리는 릉라도의 모습도 그림같이 아름답다.

화창한 봄이 오면 을밀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다. 나무숲은 봄바람에 고요히 설레인다. 떨기떨기 피여난 꽃송이들에서는 향기가 풍겨 나비와 벌들이 찾아온다. 온갖 새들의 고운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준다.

을밀대에 오른 사람들은 록음속에 잠긴 웅장하고 화려한 거리를 굽어보며 평양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감탄한다.

문법

단어의 마지막소리마디의 받침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붙이가 올 때에는 그 받침을 받침소리로 발음하지 않고 토나 뒤붙이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꽃에—고세
력에—려게
장군이—장구니
참으로—차므로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을밀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2) 을밀대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3) 을밀대에는 어떤 전설이 깃들어있습니까?
2. 다음의 문장에서 틀린데를 고치시오.
   1) 을밀대는 고구려때 세워지는데 수도 평양성의 북쪽을 지키는 장수들의 지휘처였다.
   2) 상점에 간 때 나는 물건을 사는 리동무를 보았다.
   3) 비가 왔어 나는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
3. 본문에서 부사들을 찾고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 드시오.
4. 다음의 단어들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기본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보조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밝히시오.
   솟아있다, 세워지다, 깃들어있다, 지켜내다, 불러오다, 찾아오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시오.

제 2 1 과. 놀고먹던 꿀꿀이

옛날도 아주 오랜 옛날이였다.

어느 산기슭에 아담한 초가집 한채가 있었다.

이 집에는 황소와 말, 멍멍이와 야웅이 그리고 수닭과 꿀꿀이가 살고있었다.

어느날 집주인은 혼자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내 생일날에는 놀고먹는 짐승을 하나 잡아야지. …》

이 말을 엿들은 야웅이가 얼른 뛰여나와 짐승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무래도 다 모여서 의논해봐야 하겠다. …》

황소는 집짐승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집짐승들은 누가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지 의논하였다.

먼저 말이 껑충 일어서서 말하였다.

《난 주인을 등에 태우고 다니며 또 무거운 짐도 싣고 다니지. 그러니 놀고먹지 않아. 그렇지? 푸르르—》

말은 고개를 번쩍 쳐들고 짐승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다음엔 황소가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밭도 갈고 달구지도 끌면서 이 집의 힘든 일은 도맡아하거든, 그러니까 죽을 넘려가 없다고 생각하오. 음메—》

황소는 점잖게 앉았다.

다음은 야웅이가 냉큼 나섰다.

야웅이는 앞발로 수염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도 놀고먹지 않아요. 깊은 밤에도 자지 않고 주인집 쌀독을 지키며 쥐를 잡거든요. 그렇지요? 야웅》

짐승들은 모두 야웅이의 말이 옳다고 머리를 끄덕끄덕하였다.

눈만 껌벅거리며 말없이 앉아있던 멍멍이도 성큼 일어났다.

《나는 나쁜놈들이 얼씬못하게 밤낮 주인집을 지켜주고있으니까 죽을 념려가 없어. 멍멍—》

뒤따라 수닭이 긴 목을 빼들고 말하였다.

《나도 새벽마다 집주인을 깨워주니까 놀고먹지 않는단다. 꼬끼오—》

이제는 꿀꿀이 차례가 되였다.

그러나 꿀꿀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말이 없었다. 밤낮 놀고먹으면서 쿨쿨 잠만 잤으니까요.

《얘, 꿀꿀아, 넌 왜 말이 없니?》

짐승들은 모두 게으름뱅이를 쏘아보았다.

꿀꿀이는 주먹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말하였다.

《난 암만 생각해봐도 한 일이 없어. 매일 놀면서 먹기만 했어. 그러니까 죽을놈은 나밖에 없구나! 아이쿠, 으흐흑…》

그리하여 집주인의 생일잔치상에는 놀고먹던 꿀꿀이가 오르게 되였다.

문법

일부 상징부사에 뒤붙이 《-이》가 붙으면 그 대상을 나타낸다.

꿀꿀+이-꿀꿀이 (돼지)
멍멍+이-멍멍이 (개)
야옹+이-야옹이 (고양이)
꾀꼴+이-꾀꼬리 (꾀꼴새)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집주인은 혼자소리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2) 말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3) 꿀꿀이는 왜 집주인의 생일잔치상에 오르게 되였습니까?
2. 다음의 단어들로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아담하다, 들려주다, 천천히, 일어나다
3. 본문에서 두개이상의 동사가 합쳐서 된 단어들을 모두 찾고 그 뜻을 밝히시오.
4. 상징부사에 뒤붙이 《-이》가 붙어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5개이상 드시오.
5. 본문에서 나오는 짐승들의 생김새를 이야기하시오.
6.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8개 문장으로 이야기해보시오.

제22과. 리발차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에서 항상 검박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그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여기에 이런 일화가 있다.

주체58(1969)년 10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당중앙위원회에 사업보고를 하러 갔던 한 일군은 일을 끝마치

고 나오다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그 일군이 인사를 올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며 동무도 리발할 때가 된것 같다고 하시며 리발소에 가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리발도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 일군은 그이를 따라 리발소로 가게 되였다.

한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뒤따르던 그 일군은 어느 한 건물앞에 이르러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이런 리발소를 리용하신단 말인가?!) 그 리발소로 말하면 구내 리발소로서 기관일군들은 물론 출장손님들까지 리용하는 대중리발소였다. 일군은 그자리에 멈춰선채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벌써 리발소에 들어서시였다.

리발소에는 손님들이 많았다.

리발을 하려고 대기하고있던 일군들은 뜻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들어서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앉으라고 하시면서 리발소에 와서야 기다렸다가 리발을 해야 재미가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이 그이께서 오신것을 리발사에게 알리려고 하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데 우리도 제차례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중도덕을 지키는데서는 누구도 례외가 없다고 하시며 그를 만류하시였다.

일군들은 먼저 리발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올렸지만 그이께서는 끝내 사양하시였다.

이때였다.

대기실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들은 리발사가 달려와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먼저 리발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말 이러지 말라고 하시며 어디에 가서나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는것은 사회공중도덕일뿐아니라 우리 인민들스스로가 세운 하나의 질서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리발사는 더 말씀드리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차례가 되여서야 리발하시였다.

문법

주체존칭과 객체존칭

-주체존칭토 ~시
  그이께서는 매우 반가와하시였다.
-객체존칭토 ~ㅂ/옵

…한 일군은 리발소에서 뜻밖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이 이야기는 언제 있은 이야기입니까?
   2) 일군은 왜 그자리에 멈춰선채 어찌할바를 몰랐습니까?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왜 먼저 리발하시는것을 사양하시였습니까?
2. 다음의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1) 그 일군은 그이를 따라 리발소로 가게 되였다.
      그 일군은 어느 한 건물앞에 가서 문뜩 걸음을 멈추었다.
   2) 일군은 그자리에 멈춰선채 어찌할바를 몰랐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벌써 리발소에 들어서시였다.
   3) 일군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먼저 리발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올렸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끝내 사양하시였다.
3. 다음의 두 단어를 같이 넣어 하나의 문장을 지으시오.
   —만나뵙다, 검박하다
   —즐겁다, 문뜩
   —뜻밖에, 기다리다
4.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말하시오.

제23과. 조선의 민속명절

조선에는 민속으로 전해내려오는 명절이 아주 많다.

원래 조선인민은 보름을 주기로 하여 해마다 스물네번의 명절을 즐기였는데 계절마다 더 크게 쇠는 명절이 있다.

그중 지금까지 조선인민이 크게 쇠고있는 민속명절은 설맞이, 5월단오, 추석 등이다.

설맞이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명절이다.

조선인민에게는 예로부터 설맞이를 위하여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특별히 설음식과 새 옷을 마련하는 풍습이 있다.

설날에는 먼저 웃사람에게 설인사를 드리고 여러가지 놀이를 하였는데 특히 윷놀이와 널뛰기가 흥취를 돋군다.

5월단오는 설, 추석과 함께 조선에서 년중 가장 크게 일러오는 명절중의 하나이다. 단오는 봄씨뿌리기를 끝내고 밭김매기나 모내기를 앞둔 때에 씨붙임에서 생긴 피로를 풀며 만풍년을 념원한다는 뜻에서 맞는 명절이다.

단오날에는 새로 돋은 산나물이나 쑥을 뜯어 떡을 해먹으며 씨름과 그네뛰기를 하면서 흥겹게 보낸다.

추석은 가을걷이를 앞두고 풍년을 즐기는 명절인데 인민들은 이날에 햇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조상의 묘를 찾는다.

추석날에는 그네뛰기, 씨름, 달맞이, 길쌈놀이 같은것을 하였다.

길쌈놀이란 실을 낳아 천을 짜는것을 경쟁한다는것이다.

조선의 민속명절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더욱 활짝 꽃피고있다.

문법

토 [—ㄴ다]는 동사에만 붙는다.

동사+ㄴ다
- 돋구(다)+ㄴ다>돋군다
- 념원하(다)+ㄴ다>념원한다
- 돌아보(다)+ㄴ다>돌아본다
- 경쟁하(다)+ㄴ다>경쟁한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설맞이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까?
   2) 5월단오는 어떤 명절입니까?
   3) 조선에서 제일 크게 쇠는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2. 다음의 표현으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흥취를 돋구다, 피로를 풀다
3. 다음의 단어들을 그대로 쓰면서 문장을 지으시오.
   흥겹다, 흥겨운, 흥겹게
4. 본문에서 합침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을 찾고 그 구조를 분석하시오.
5. 본문에서 형용사들을 모두 찾고 그것이 규정어로 될 때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6. 명사, 수사, 동사를 술어로 하는 문장을 각각 2개이상 만드시오.

제24과. 다시 돌아간 승용차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인민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하시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시였다.

늘 잡곡밥을 드시는 어머님을 걱정하는 일군들에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나라는 해방되였지만 인민들은 아직 어렵게 살고있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조밥을 먹는데 어떻게 이밥을 먹겠는가고, 이제 인민들의 살림살이도 펴이고 나라도 통일된 다음에 잘살아보자고 말씀하시며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기 위하여 자주 공장과 농촌, 어촌을 찾으시는 어머님은 늘 바쁘시고 분주하시였다.

일군들은 하루에도 수십리의 길을 걸어다니시는 어머님을 뵈올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일군들은 어머님께 자색승용차 한대를 마련해드리였다.

차에서 내린 운전사는 김정숙어머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이 승용차가 어머님께서 타실 차라고 말씀올리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와 반가이 인사를 나누시고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차를 살펴보시고나서 자신을 생각해주는 동무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자신께서 무엇때문에 사사로운 용무로 승용차를 타고 다니겠는가고 하시면서 차는 늘 바삐 일하는 일군들에게 가져다주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걸어다니는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차를 돌려보내도록 하시였다.

운전사는 이 승용차는 꼭 타고다니셔야 한다고 다시 절절히 말씀올리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운전사와 일군들의 얼굴을 둘러보시며 자신께서는 산에서 싸울 때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해방된 조국땅을 마음껏 걸어다니는것이 제일 소원이였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 정 차가 필요할 때면 다른 차편을 리용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보다도 걸어다니면 마음도 편하고 인민의 목소리도 들을수 있으니 더 좋지 않은가고 하시였다.

이리하여 그 자색승용차는 다시 돌아가고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여전히 걸어다니시였다.

이처럼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언제나 생활을 검박하게 꾸려나가시였다.

문법

받침 [ㄹ]뒤에 이어지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받침 [ㄹ]+
- ㄱ → ㄲ [할것(할껏)]
- ㄷ → ㄸ [할데(할떼)]
- ㅂ → ㅃ [할바(할빠)]
- ㅅ → ㅆ [할수(할쑤)]
- ㅈ → ㅉ [할지(할찌)]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언제나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2) 일군들은 어머님께 무엇을 마련해드리였습니까?
   3) 어머님께서는 왜 차를 다시 돌려보내시였습니까?
2. 다음의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1)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와 반가이 인사를 나누시였다. 그러시고 차를 가져오기에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였다.
   2) 일군들은 어머님께 승용차를 마련해드리였다. 그렇지만 어머님께서는 내가 무엇때문에 사사로운 용무로 승용차를 타고 다니겠는가고 하시면서 차를 돌려보내시였다.
   3)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늘 잡곡밥을 드시였다. 그래서 일군들은 걱정하였다.
3. 다음의 단어들로 시킴문으로 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걱정하다, 어렵다, 필요하다
4. 원인과 결과로 된 문장을 3개이상 만드시오.
5.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6.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해보시오.
   불길, 불속, 물병, 할줄, 할적, 갈수록, 갈지

제25과.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놀부라는 형과 흥부라는 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하였지만 놀부는 욕심이 많고 심술이 사나왔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놀부는 흥부네 가족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자 남쪽으로 갔던 제비들이 날아왔다. 방금 쓰러질듯한 흥부네 집 처마밑에도 제비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었다.

어느날 뱀 한마리가 지붕우로 기여올라 둥지안에 있는 제비새끼를 잡아먹으려 하였다.

흥부는 작대기를 쥐고 달려가 뱀을 답새겼다.

그바람에 뱀은 죽고 제비새끼 한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를 상하였다.

흥부는 제비다리에 약을 발라주고 명주실로 곱게 싸매주었다.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남쪽으로 날아갔다.

이듬해 봄이 되였다.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 한알을 물어다주었다.

흥부네 식구들은 그 박씨를 심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다.

가을이 되자 크고 둥근 박들이 지붕우에 주렁주렁 열렸다.

흥부는 추석이 되여도 밥 한술 못먹이는 자식들에게 박속이라도 먹이려고 박을 탔다. 그런데 박에서는 큰 기와집과 비단천, 돈과 쌀을 비롯한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나왔다.

흥부네는 많은 쌀과 보물을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모두다 화목하게 잘살게 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흥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여보고싶었다.

심보가 사나운 놀부는 우정 제비새끼를 땅에 떨어뜨려 다리를 꺾어놓았다. 그리고는 약도 발라주고 상처도 싸매주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주었다.

놀부는 좋아하며 박씨를 심었다.

드디여 박을 타는 날이 왔다.

그런데 박에서는 보물이 아니라 괴상하게 생긴 중들이 쏟아나와 쌀을 털어가고 천을 빼앗아갔다. 나중에는 놀부네 기와집마저 무너뜨리고말았다.

이리하여 욕심많은 놀부는 망하고말았다.

문법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들이 규정형으로 쓰일 때에는 《~ㄴ》을 붙인다.

…을 비롯한
…을 위한
…에 대한
…으로 말미암은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놀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 흥부는 다리가 상한 제비를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3) 흥부가 박을 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 놀부가 박을 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 다음의 두 문장을 《-지만》, 《자》의 형태로 이으시오.
   1) 흥부는 마음이 착하다. 놀부는 심술이 사나왔다.
   2)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 남쪽으로 갔던 제비들이 날아왔다.
   3) 가을이 되였다. 큰 박들이 지붕에 주렁주렁 달렸다.
3. 다음의 표현으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욕심이 많다, 심술이 사납다, 마음이 착하다
4.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시오.
5. 다음의 보조적으로 쓰이는 동사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위하다, 비롯하다, 관하다, 대하다

제26과. 조선의 민족체육경기

조선의 민족체육은 오랜 발전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조선인민은 다양하고 흥미있는 민족체육을 매우 즐긴다.

조선의 민족체육에는 남자들의 몸단련에 좋은 씨름을 비롯하여 모든 녀성들이 다할수 있는 그네뛰기, 널뛰기, 젊은이들은 물론 늙은이도 할수 있는 활쏘기, 집단적으로 할수 있는 바줄당기기, 소년들이 즐겨하는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띄우기 등 많은 종목들이

있다.

민족체육경기는 대체로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쉽게 할수 있으며 강한 의지와 힘을 키우고 민족적감정을 풍부히 한다.

널뛰기는 설날이나 오월단오날과 같은 명절을 계기로 진행하여왔는데 경기는 제정된 시간에 누가 더 높이 보기좋게 뛰는가 하는데 따라 승부를 가른다. 경기를 할 때에는 조선옷을 입고 허리띠를 맨다. 이 경기는 뛰는 힘을 키워주고 공간에서 몸을 잘 조절할줄 아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네뛰기는 그네대앞에 세운 방울대에 매달려있는 방울을 누가 빠른 시간안에 차는가 하는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 경기는 동과 배를 비롯한 온몸을 단련시켜주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길러준다.

씨름은 조선인민이 오랜 옛날부터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 등 로동의 휠참에 발머리나 강기슭의 모래판 혹은 잔디밭에서도 벌리군했으며 명절날에는 큰 상을 걸고 진행하군하였다. 씨름은 힘을 키워주고 몸동작을 날래게 하게 한다.

바줄당기기는 집단적으로 할수 있는 민족체육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람들에게 집단주의정신을 키워준다.

오늘 조선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조선인민이 즐기는 민족체육종목들이 현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하고있다. 특히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활쏘기는 현대적인 민족체육경기종목으로 발전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 널리 알려지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태양절과 2월 16일 그리고 민속명절을 맞으며 전국적범위의 민족경기대회와 함께 크고 작은 규모의 민족경기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있다.

문법

조격토의 결합

—조격토 《~로》, 《~로서》, 《~로써》는 열린음절과 [ㄹ]로 끝나는 단어에 쓰인다.

· 학교로

기계로

—조격토 《~으로》, 《~으로서》, 《으로써》는 [ㄹ]을 제외한 모든 닫긴음절에 쓰인다.

· 집단적으로

· 민족체육경기종목으로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조선의 민족체육에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2) 널뛰기는 어떤 경기종목입니까?
   3) 그네뛰기는 어떤 경기종목입니까?
2. 자기가 좋아하는 체육종목을 두가지이상 들고 그것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3. 본문에서 부사들을 찾고 그와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4.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5. 다음의 토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로, 으로, 로서, 으로서

제27과. 선비의 조밭김매기

주체47(1958)년 겨울 어느날이였다.

그때 학교에서는 겨울방학을 리용하여 학생들속에서 공장, 기업소에 대한 견학을 널리 조직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날씨도 찬데 방학기간에는 될수록 편히 쉬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아시게 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금 일부 동무들이 왜 공장견학을 하려고 하는지 똑똑히 모르고있는것 같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며칠전에 우리 학교의 교육실태와 방학기간 학생들의 학습조직에 대해 료해하시고 학생들에게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배워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가 살고있었다. 그는 문을 닫아매고 집안에 들어앉아 온종일 책만 읽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그가 제일 유식한 사람일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안에만 박혀있던 선비가 하루는 조밭에 김을 매러 나갔다. 밖에 나와보니 벌이 새끼칠 정도로 풀이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조와 가라지가 섞여있는것이였다.

조는 남기고 가라지는 모조리 뽑아버려야 하겠는데 그는 어느

것이 조고 어느것이 가라지인지 갈라낼수가 없었다.

한참 모대기던 끝에 그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떠오르는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짐작으로 김을 맬수도 없었고 망신스럽게 농군들한테 물어볼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밭머리에 앉아서 계속 책에서 읽은것만 생각해내려고 《조는…》, 《가라지는…》하고 입속으로 중얼거리기만 했다. 그러다나니 하루해가 다 저물게 되였다.

어리석은 선비의 행동이 어처구니없어 웃고있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장군님께서는 이 이야기는 결코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은 아무 쓸모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학생들은 자기들의 짧은 생각을 뉘우치면서 실천에 쓸모있는 지식을 배워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문 법

보조동사들은 《~어(아, 여)》접속형으로 쓰인다.

~에 대하여 (배워줄데 대하여)

(책에 대하여)

~에 관하여 (책에 관하여)

~에 의하여 (책에 의하여)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학교에서는 겨울방학을 리용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2) 선비는 김을 매러 나가서 왜 한참 모대기였습니까?
   3) 학생들은 어떤 결심을 다지였습니까?
2. 다음의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형태로 고치시오.
   1) 선비는 바깥출입도 별반 (하지 않다) 문을 (닫아매다) 집안에 (들어앉다) 온종일 책만 (읽다)
   2) 사람들은 선비가 제일 (유식하다) (사람일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는 조밭에서 조와 가라지도 (가려내지 못하다).
   3) 아무리 (생각해보다) 떠오르는것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짐작으로 김을 (매다) 없었다.
3. 다음의 단어들로 단어결합을 각각 4개씩 만드시오.
   날씨, 온종일, 생각해보다, 뽑다
4. 본문에서 두 동사가 《-아/-어/-여》형태로 결합되여

쓰인 단어들을 찾고 그 뜻을 설명하시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시오.
6. 다음의 형태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지으시오.
   ~에 대하여, 에 관하여, 에 의하여

제2 8과. 눈보라치는 길가에서

주체63(1974)년 2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안주군 상서리 앞길을 달리고있었다.

그날은 날씨가 사나왔다. 눈보라가 바람에 하늘높이 오르기도 하고 땅우에 쓸리기도 하고 웅뎅이에 처박히기도 하였다.

차창으로 밖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그 사나운 눈보라속으로 손에 보따리를 든 어린 소녀가 혼자 걸어오고있었다.

승용차들을 피하여 길옆으로 건넌 소녀는 차들이 와 멎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 순간 소녀의 가슴은 감격으로 설레였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차에서 내리시는것이였다.

소녀는 위대한 수령님께 소년단경례를 정중히 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소녀를 가까이 부르시였다. 그러시고는 한손으로는 소녀의 손을 꼭 감싸쥐시고 한손으로는 머리수건이며 솜저고리, 보따리에 쌓인 눈을 말끔히 털어주시였다.

그리고 춥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소녀가 춥지 않다고 대답을 드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솜저고리의 두께까지 가늠해보시였다. 솜저고리단추를 꽁꽁 채워주시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위에 얼어 빨개진 소녀의 볼을 다독이시며 이 추운 날에 어데를 가는가고 물으시였다.

소녀는 《리병원에 입원한 동생을 보러 갑니다》라고 대답을 올렸다.

그 말에 안색이 흐려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원은 어디 있느냐고 다시 물으시였다.

소녀는 병원은 리소재지에 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곳까지 가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나오신 길로 한참이나 가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서 리병원이 먼데 이 학생을 승용차에 태워다주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곧 자기들의 차를 돌려세우려 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차에 태우지 말고 저 차에 태우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차를 가리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인자하신 웃음을 담으시고 소녀를 바래우시며 길가에 서계시였다.

눈은 계속 내렸고 눈보라는 더욱 휘몰아쳤다.

눈보라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자며 외투우에는 흰눈이 수북이 내려쌓였다.

정말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농촌의 이름없는 소녀를 위해서도 따뜻한 사랑을 돌려주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문법

단어의 마지막소리마디의 받침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다른 말뿌리가 올 때에는 그 받침에서 받침소리를 끊어서 발음하였다가 다시 그 받침소리를 뒤에 오는 말뿌리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걸옷—건옷—거돋
옷안—온안—오단
이름없는—이름업는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왜 차를 멈추게 하시였습니까?
 2)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녀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였습니까?
 3) 소녀는 위대한 수령님께 어디에 간다고 대답올리였습니까?
 4)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까?
2. 본문에 있는 동사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것들과 명사의 결합형태를 3개이상씩 만드시오.
3. 단어 《눈》으로 3개이상의 합침법을 만드시오.
 례: 흰눈
4. 다음의 표현들로 각각 문장을 지으시오.
 날씨가 사납다, 감격으로 설레이다, 안색이 흐려지다
5.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6.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해보시오.
 부엌안, 닭우리, 맛있다, 값있게, 밤낮없이

제29과. 놀림받은 순사놈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가 있은후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왜놈순사를 비웃는 새로운 말이 생겼는데 그것은 《돼지순사》, 《베개통순사》란 말들이다.

이런 말이 생겨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

주체26(1937)년 6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부대는 보천보의 적들을 호되게 때려부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지휘하신 보천보전투는 우리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주고 적들에게는 죽음과 공포를 주었다.

이날 한 왜놈순사놈은 어찌나 혼이 났던지 살겠다고 밖으로 뛰쳐나가 숨을 곳을 찾다가 돼지우리속으로 기여들어갔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이놈은 《꿀꿀》하며 돼지소리까지 냈다.

그러나 놈은 인민들의 눈을 피할수 없었다.

인민들의 안내를 받아 달려온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돼지우리속에 있는 그놈을 처단해버렸다.

이 일이 있은 다음 인민들은 왜놈순사들을 가리켜 《돼지순사》라고 하며 비웃군하였다.

보천보에서 녹아난 일제놈들은 《토벌대》를 모아가지고 압록강을 건너 조선인민혁명군을 뒤쫓아갔다.

그러나 놈들은 또 구시산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불벼락을 맞고 녹아났다.

그때 구시산중턱까지 기여올랐다가 겨우 살아나 도망쳐온 한 왜놈순사놈이 있었는데 이놈은 주재소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서장놈을 보고 얼결에 《유격대가 온다!》고 정신없이 소리쳤다.

그바람에 경찰서장놈과 다른 경찰놈들은 기겁하여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동은 순사놈들의 집에서도 있었다.

한 순사놈은 정신없이 집에서 뛰여나오다가 무슨 생각이 났던지 다시 집으로 달려가 무엇인가를 안고 급히 뒤산으로 뛰였다.

이놈에게는 갓난애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갓난애만은 버리고 달아날수 없었던지 다시 집으로 들어가 포대기에 싼것을 안고나온것이다.

그런데 이놈은 한동안 뛰다가 자기가 안고온것을 보더니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덤벼치다가 아이를 안고나온다는것이 베개통을 안고 나왔던것이다.

이때부터 왜놈순사놈들에게 《베개통순사》라는 별명이 붙게 되

였다.

이처럼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휘하신 보천보전투에서 혼이 난 왜놈순사들을 비웃으며 여러가지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하군하였다.

문법

동사만들기

—동사+(아/어/여)+동사

때리(다)+여+부시다>때려부시다

기(다)+여+오르다>기여오르다

녹(다)+아+나다>녹아나다

쫓(다)+아+가다>쫓아가다

—동사+(아/어/여)동사+동사

기(다)+여+들(다)+어+가다>기여들어가다

뛰(다)+여+나(다)+오(다)뛰여나오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인민들은 왜놈순사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 보천보전투는 언제 있었습니까?
   3) 돼지우리에 들어간 왜놈순사놈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 구시산전투에서 겨우 살아난 놈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 빈 자리에 필요한 단어(토)를 넣으시오.
   1) 한 ○○순사놈○ 어찌나 혼○ 났○○ 살겠○○ 밖○○ ○여나가 숨을○을 찾○○ 돼지○○속으로 들어갔다.
   2) 조선인민혁명군○○들은 ○○우리○에 ○는 그○을 ○○해 버렸다.
   3) 한 순사○은 ○○○ 뒤○○ 자기○ 안고온 ○을 보○○ 풀썩 주저○고말았다.
3. 본문에서 형용사들을 모두 찾고 그와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4. 다음의 불완전명사들로 각각 문장을 지으시오.

   데, 만, 것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시오.

제 3 0 과. 숭고한 동지애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천품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혁명동지를 굳게 믿고 끝없이 사랑하시며 한번 뜻을 나눈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언제인가 한 일군이 생명의 마지막순간을 보내고있던 때였다.

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진행중에 있던 중요한 회의를 미루시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가 눈인들 제대로 감을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그에게로 달려가시였다.

그의 곁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시며 그를 자신의 품에 안으시였다.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마지막 힘을 모아 이렇게 떠나간다고 떠듬떠듬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러한 일군의 손을 꼭 잡으시고 왜 그런 말을 하는가고, 동무는 일어나야 한다고, 꼭 일어날수 있다고 하시며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슬픈 마음을 누르시며 품에 안은 전사의 얼굴빛을 살피시고 친히 맥박도 가늠해보시였다.

그 위대한 품에 안겨 일군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오래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만을 받아오던 한 일군이 중병을 만난데다가 면회할수 없는 병까지 겹치게 되였다.

병원일군들로부터 그의 병세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눈보라를 헤치시고 병원에 찾아오시였다.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이 치료를 받고있던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옵자 신도 신지 못한채 급히 달려나왔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자기의 병을 생각하고 화석처럼 굳어졌다. 그러고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어서 돌아가주실것을 간청하였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환자에게 다가가시여 두손을 꼭 잡아주시며 자신을 동지의 아픔보다 제 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 작정인가고 하시며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자기를 위해서 바치는것보다 남을 위해서 바치는것이 더 많아야 하는것이 혁명동지들 호상간의 관계인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넓은 가슴에 뜨겁게 품어안으시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녀본적이 없는 특이한 동지애를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은 끝없이 존경하고있다.

문법

자음 《ㄷ, ㅌ》가 줄기의 끝에 오는 받침이고 거기에 토나 뒤붙이 《ㅡ이, 히》가 이어질 때에는 입천장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굳이—구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닫히다—다치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왜 중요한 회의를 미루시였습니까?
   2) 경애하는 장군님께로 달려가던 환자는 왜 화석처럼 굳어졌습니까?
   3)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환자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까?
2. 본문에 있는 동사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것들과 명사의 결합형태를 5개이상 만드시오.
3. 불완전명사 《적》이 들어간 문장을 3개 지으시오.
4. 다음의 표현, 단어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각별하다, 특이하다, 가늠하다, 생사고락을 같이하다, 눈을 감다
5. 본문을 읽고 느낀점을 말하시오.

제31과. 솔거와 소나무

예로부터 조선인민들속에서는 지혜롭고 재능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그가운데는 솔거라는 사람도 있었다.

솔거는 세나라시기의 사람으로서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는 신라의 훌륭한 화가였다.

가난한 시골농민의 아들인 그에게는 량반집아이들처럼 품을 놓고 그림을 그릴 시간도 없었고 종이나 붓도 없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림재주를 배워줄만한 선생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할 때는 풀뿌리를 뽑아 바위돌에

그림을 그렸고 김을 맬 때에는 호미끝으로 땅에 그림을 그렸다.

일에 몰리워 몹시 피곤했으나 그는 하루도 그림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리하여 솔거는 마침내 신라에서 가장 뛰여난 화가가 되였다.

솔거는 왕의 명령으로 황룡사라는 절간에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였다.

그는 거기에 많은 그림을 그리였는데 그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황룡사 대웅전 바깥벽에 그린 큰 소나무였다.

어찌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산에 뿌리를 박고 서있는 산 소나무와 꼭같았다.

푸르싱싱한 가지가 사방으로 쭉쭉 퍼지고 나무줄기가 굵은 소나무는 바람만 불어도 쏴, 쏴—하고 설레일것만 같았다.

처음 보는 사람은 물론 여러번 본 사람도 그곳을 지날 때면 진짜 소나무로 알았다.

날아가던 새들도 산 소나무로 알고 내려앉으려다가 벽에 대가리를 쫓고 떨어지군했다.

세월은 흘러 솔거는 세상을 떠나고 그가 그린 소나무는 색이 낡고 먼지가 끼여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중들은 화가들을 데려다 솔거가 그렸던 그대로 색칠을 다시 하였다. 그래서 소나무는 다시 이전모양대로 되였다.

그러나 다시는 그림에 새들이 날아들지 않았으며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진짜 소나무로 잘못 보는 일이 없었다.

문법

—받침 《ㅎ》은 그뒤에 오는 토나 뒤붙이가 모음이면 발음되지 않는다.

많아—마나
많이—마니
좋은—조은

—단어에서 나란히 놓인 《ㄴ》과 《ㄹ》의 경우에는 뒤에 있는 《ㄹ》가 앞에 있는 《ㄴ》에 영향을 주어 [ㄹ]로 만든다.

신라—실라
본래—볼래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솔거는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는 련습을 어떻게 하였습

니까?
2) 솔거가 그린 소나무는 어떠하였습니까?
3) 후에 화가들로 솔거가 그린 소나무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2. 《―를/을것만 같다》의 형태로 문장을 지으시오.
3.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근로자, 관리원, 난류, 단련, 분리, 신뢰
4.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10개의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시오.

제 3 2 과. 조국을 위하여

《나는 해방된 조선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 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이것은 조선의 공화국영웅 리수복이 남긴 글이다.

리수복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영웅전사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열여덟살이였다.

머슴군의 아들로 태여난 수복은 집살림이 몹시 가난하여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을 도와 농사를 지었다.

어린 수복이는 공부를 하고싶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학교에 보내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가난에 쪼들린 생활은 그의 어깨에 책가방을 메워주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의 자그마한 소원도 풀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다.

나라없는 설음과 고통 속에서 수복이의 어린시절은 눈물겹게 흘러갔다.

나라가 해방되자 천대받던 인민이 땅과 공장의 주인이 되고 모든 자유와 행복이 그들에게 차례졌다.

수복이는 그토록 배우고싶던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

이 모든것은 조국이 가져다준 행복이였다. 그는 조국이 귀중함을 사무치게 느꼈다.

그러한 그였기에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쳤다.

영웅전사는 비록 갔어도 그가 남긴 위훈은 조국과 함께 영원히 빛나고있다.

문 법

두개의 형태부가 어울릴 때 앞에 있는 형태부가 받침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형태부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붙이이면 말소리를 이어낸다.

품을―푸믈
세월은―세워른
조국이―조구기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리수복영웅은 어떤 영웅입니까?
 2) 해방전에 리수복이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3) 리수복영웅은 왜 조국을 위하여 청춘을 바치였습니까?
2. 다음의 형태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고싶다, ～을 위하여, ～에 대하여
3. 다음의 표현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찬란한, 래일의, 목숨이지만, 청춘을, 공화국영웅
4. 《비록 ……아도(어도, 여도)……》형의 문장을 3개이상 지으시오.
5. 리수복영웅의 시를 암송하고 읊어보시오.

제 3 3 과. 평양의 이름난 음식

예로부터 평양에는 평양랭면, 대동강숭어국, 평양어죽, 노치, 녹두지짐과 같은 이름난 음식들이 많다.

평양랭면은 밀국수나 농마국수처럼 국수오리가 질기지도 않고 먹기에 알맞춤하며 맛이 좋은 메밀국수이다.

평양랭면은 국수물맛이 독특하다.

국수는 고기국물에 마는데 이 국은 소 뼈와 내장을 푹 삶은 다음 기름과 거품, 고기찌꺼기들을 다 건져내고 소금과 간장을 치고 다시 끓여 서늘한곳에서 식힌것으로서 맑고 깨끗하면서도 영양

가가 높다.

평양랭면은 놋대접그릇에 김치와 고기, 양념장, 닭알, 배, 오이 등의 순서로 꾸미를 놓으므로 보기도 좋다.

평양국수에는 랭면과 쟁반국수가 있다.

쟁반국수는 직경이 30센치메터의 둥근 쟁반에 높이 7~8센치메터의 발이 달린 놋그릇에 담는다. 일반랭면보다 량이 많다.

평양의 이름난 음식가운데는 대동강숭어국이 있다.

이 숭어국은 대동강에서 잡은 생신한 숭어를 토막내고 볶은 소고기, 닭알, 고추장 등을 함께 넣어 끓인것이다.

옛날부터 평양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맞이하면 평양의 특산물로 자랑하는 숭어국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평양을 찾아온 사람들도 숭어국을 먹어야 손님으로서 대접을 잘 받은것으로 여기였다.

이밖에 평양의 이름난 음식으로는 어죽과 녹두지짐, 신선로 등이 있다.

평양어죽은 자그마한 가막조개에다 닭고기와 흰쌀을 넣고 쑨 죽이다.

어죽은 가막조개대신 다른 물고기를 넣어 쑤기도 한다.

녹두지짐은 다른 지방에도 있지만 평양녹두지짐은 지짐감에 남새, 돼지비계를 많이 넣는것이 특징이다.

신선로에는 닭알, 고기, 버섯, 도라지 등 갖가지 부식물을 넣어 끓이는데 그 맛이 독특하다.

평양의 이름난 음식에는 이밖에도 노치, 만두, 동치미와 같은것도 있다.

평양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해 옥류관, 청류관, 청춘관 등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이 수많이 세워져 인민들에게 평양의 이름난 음식을 비롯한 갖가지 음식들을 봉사해주고있다.

문 법

받침 [ㄹ]은 자음 [ㄴ, ㅂ, ㅅ], 모음 [ㅗ]가 뒤에 이어질 때 발음하지 않는다.

말다→마+는데>마는데
마+ㅂ니다>맙니다
마+십시오>마십시오
마+오>마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평양의 이름난 음식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2) 평양랭면은 어떤 국수입니까?
   3) 대동강숭어국은 어떤 국입니까?
2. 본문안에서 동사와 명사, 형용사와 명사의 결합형태를 찾고 그 결합을 다른 형태로 바꾸시오.
   례: 《이름난 음식》→《음식이 이름나다》
3. 본문에서 부사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와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4.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5. 다음의 단어들에 토 《니》, 《는데》, 《ㅂ니다》를 붙여보시오.
   불다, 울다, 말다, 놀다, 들다, 갈다

제34과. 약속은 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이 언제나 약속을 법으로 알고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주체59(1970)년 1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일군을 부르시여 어느 기관에 나가 몇가지 과업을 수행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곧 해당기관에 나가 일을 보았다. 그런데 그만 일이 제기되여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나 늦어 그이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을 얼핏 보시더니 아무런 말씀이 없이 읽으시던 문건을 마저 보시였다.

순간 일군은 시간을 지키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그는 자기가 지체하게 된 사연을 그대로 말씀올리였다.

문건을 다 보고나신 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앞창에 마주 놓은 의자에 앉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은 약속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갔다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장소를 무조건 버리였다고 하시며 그때의 1분1초는 죽느냐, 사느냐,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여있었다고 하시면서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만약 지금이 그때라면 동무의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약속을 지킨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약속은 실천을 전제로 한다는것, 실천이 없는 약속은 사람들사이에 불신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된다는것, 또한 약속이라는 개념이 매우 넓다는것, 부모처자간에, 이웃간에, 친지들간에, 혁명동지들간에, 나아가서는 혁명조직앞에, 조국과 인민 앞에, 당과 수령 앞에 다지는 맹세 역시 그 기초에는 약속이라는것이 깔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많은 혁명가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싸운것도 부대의 돌격로를 헤치기 위해 꽃나이청춘을 서슴없이 바쳐 적화구를 막아낸것도 다 자기의 조직, 자기의 조국 앞에 다진 맹세를 어기지 않으려는 숭고한 사명감에서 흘러나온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어찌나 절절하게, 생동하게 말씀하시는지 일군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그이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조용히 방안을 거니실 때 일군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이앞에 진심으로 반성하였다. 그이께서는 반성은 새 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따뜻이 고무해주시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약속을 지키는것을 어길수 없는 법으로,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와 의리로 여기고있다.

우리 일군들이 지닌 이러한 기풍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꽃피워주신것이다.

문법

동사만들기

동사+여+동사

정하(다)+여+두다—정하여두다—정해두다

고무하(다)+여+주다—고무하여주다—고무해주다

준비하(다)+여+가다>준비하여가다>준비해가다

꽃피(다)+여+주다>꽃피여주다>꽃펴주다

지키(다)+여+나가다>지키여나가다>지켜나가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어떤 과업을 주시였습니까?

2)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은 약속을 어떻게 지켰다고 하시였습니까?

3) 오늘 우리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약속을 지키는것을 무엇으로 여기고있습니까?

2. 본문에서 부사들을 모두 찾고 그와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 이상씩 만드시오.

3. 다음의 형태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게 하다, ~도록 하다, 를/을 금할수 없다.

4. 다음의 빈자리에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적당히 넣으시오.

(놓다, 두다, 주다, 가다)

만들어—, 말해—, 발전해—, 그려—, 알아—, 건설해—

5. 자기 생활을 돌이켜보고 《약속을 어긴 일》을 이야기해보시오.

6.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 3 5 과. 조선민족의 깨끗한 식사례절풍습

예로부터 조선인민은 훌륭한 민족음식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을뿐아니라 식사례절에서도 고상한 풍습을 전해왔다.

동방례의지국인 조선민족의 식생활풍습은 례절이 매우 바른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식생활을 깨끗하게 하여왔다.

손으로 음식을 집는것을 천하게 여겨왔으며 숟가락과 저가락이 없이는 식사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음식상은 주로 녀성들이 차리군하였는데 차릴 때는 물론이고 음식을 만들 때부터 몸단장을 깨끗이 하군하였다.

조선민족은 식사를 드는데서도 례절을 잘 지켜왔다.

식사할 때에는 밥이나 반찬을 뒤적거리거나 헤쳐가며 먹는 일이 없으며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였다.

또한 큰 상에서 식사할 때 멀리에 구미에 맞는 음식이나 양념이 있다 하여도 반드시 옆의 사람이 가져다주기를 청하였으며 제가 일어나 당기는것을 무례한 일로 여기였다. 그리고 자기가 손댔던 밥이나 국수, 국 같은것을 남에게 덜어주는것은 실례로 여기였다.

먼저 식사를 끝냈다해도 기다렸다가 모든 사람이 식사를 다했을 때 상에서 물러났다.

식사할 때 옆사람들이 다 듣도록 쩝쩝거리거나 떠드는것을 제일 천하게 여기였다.

조선민족은 식사할 때에 언제나 웃사람들을 존경하고 잘 대접하기 위해 마음을 썼다.

밥을 푸거나 국을 뜨고 반찬을 담을 때 먼저 웃어른들의것부터 담았으며 상을 차릴 때에도 될수록 같은 음식이라도 좋은것으로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로인들에게는 음식을 편히 들도록 독상을 차려 대접하였으며 특별한 음식이 생기면 먼저 대접하였다.

손님이 오면 반가와하고 처음 보는 손님이라도 정성껏 대접해왔다.

이처럼 아름답고 고상한 조선민족의 식생활풍습은 오늘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의 고상한 도덕적풍모와 결합되여 더욱 훌륭히 꽃펴나고있다.

문법

받침 《ㅅ》다음에 이어지는 《ㅎ》의 경우에는 《ㅌ》로 발음된다.

깨끗하게—깨끄타게
따뜻하게—따뜨타게
비슷하게—비스타게
호젓한—호저탄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조선민족은 식사를 드는데서 어떤 례절을 지켜왔습니까?
   2) 로인들에게는 어떻게 음식을 대접하였습니까?
   3) 먼저 식사를 끝냈을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 다음의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형태로 고치시오.
   1) 먼저 식사를 (끝내다) 기다렸다가 모든 사람이 식사를 (다하다) 때 상에서 (물러나다)
   2) 조선민족은 (식사하다) 때에 언제나 웃사람들을 (존경하다) 잘 (대접하다) 위해 마음을 (쓰다)
   3) 밥을 (푸다) 국을 (뜨다) 반찬을 (담다) 때 먼저 웃어

른들의것부터 (담다) 상을 (차리다) 때에도 될수록 (같다) 음식이라도 (좋다) 것으로 (드리다) 위해 노력하였다.
3. 다음의 단어들의 문법적구조를 분석하고 매 단어들의 뜻을 말하시오.
   발전시키다.
   발전시키고있다
   발전시켜오다
   발전시켜가다
4. 다음의 문장이 주어가 되게 문장을 지으시오.
   • 손으로 음식을 집다
   • 로인들에게 독상을 차려 대접하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시오.

제36과. 령리한 아이

먼 옛날에 있은 일이다.

욕심쟁이 지주놈은 하늘소에 타고 돌쇠는 하늘소를 끌고 서울길을 떠났다.

무더운 여름철이여서 해빛이 쨍쨍 내리쪼이였다.

지주놈은 하늘소등에서 헐떡거렸다.

때마침 큰 느티나무그늘을 만났다.

《여기서 좀 쉬여가자. 그동안 넌 얼른 가서 국수나 한그릇 사오너라.》

지주놈은 자기는 그늘아래서 쉬고 돌쇠는 심부름을 보냈다.

한참 지나서 국수그릇을 든 돌쇠가 나타났다.

그런데 돌쇠는 국수그릇에 손을 넣어 자꾸 휘저었다.

《이놈아, 그 더러운 손가락을 왜 넣고 젓느냐?》

《그놈의 벌레가 국수에 빠졌기에 지금 건지느라고 그래요.》

지주놈은 성이 나서

《더러운놈,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게냐, 네놈이나 처먹어라. 난 가서 한그릇 먹고 올테니 그동안 하늘소나 잘 지키고있어.》하고 벌떡 일어섰다.

얼마쯤 걸어가던 지주놈은 헐레벌떡 달려와서 《돌쇠, 너 정신 바싹 차리고있어라. 여긴 사람의 생눈알도 뽑아가는곳이야. 그러니 하늘소고삐를 단단히 틀어잡고있어.》하며 소리치더니 다시 국수집

으로 찾아가는것이였다.

《벌레는 무슨 벌레야, 네놈이 암만 그래도 내 피에 감쪽같이 넘어갔지. 》

돌쇠는 시원한 국수를 맛있게 먹었다.

길옆 논밭에서는 할아버지 한분이 땀을 흘리며 김을 매고있었다.

《할아버지, 이 하늘소를 가지세요. 하늘소등에 곡식이랑 명주필이랑 있으니 쓰세요. 》

돌쇠는 낫으로 하늘소고삐를 잘라서 할아버지에게 쥐여주었다.

얼마쯤 지나서 지주놈이 큰 배를 뚱기적거리며 돌아왔다.

돌쇠는 두눈을 꼭 감고 쥐꼬리만한 하늘소고삐만을 쥐고 가만히 서있었다.

《이놈아, 하늘소는 어째구 이러구있는게냐?》

돌쇠는 그냥 두손으로 눈을 싸쥐고서 《아이구, 여보세요. 제 눈을 뽑았댔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눈이예요!》하고 우는 소리를 했다.

지주놈은 기가 막혀서 《이놈아, 누가 네놈의 눈을 뽑겠다니?》하고 소리쳤다.

그때에야 돌쇠는 깜짝 놀라는체하고 눈을 번쩍 떴다.

《아, 이거 큰일났군요. 주인님이 생눈알 뽑아간다기에 눈을 감고 하늘소고삐만 꼭 잡고있었더니 이것만 남기고 하늘소는 훔쳐갔군요. 》

돌쇠는 손에 쥐고있던 하늘소고삐를 지주놈의 눈앞에 바싹 내밀었다. 지주놈은 생각할수록 분했다.

《너같은놈을 데리고 다니다간 망하겠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

지주놈은 돌쇠를 돌려보내고 하늘소도 못타고 털썩털썩 걸어서 서울로 향했다.

문법

—받침읽기

[ㄱ, ㅋ, ㄲ]의 받침소리는 발음이 끝나거나 무성자음앞에서 [ㄱ]로 발음한다.

국>국

부엌>부억

닦다>닥따

—된소리발음

앞에 놓인 형태부의 받침소리가 [ㅁ]인 때 그 뒤에 오는 형태부의 첫소리 자음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로 발음된다.

머슴+군>머슴군(머슴꾼)

좀+도적>좀도적(좀또적)

봄+바람>봄바람(봄빠람)

주름+살>주름살(주름쌀)

몸+집>몸집(몸찝)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돌쇠는 어떻게 하면서 국수그릇을 가져왔습니까?
   2) 돌쇠는 길옆 논밭에서 일하고있는 할아버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3) 지주놈은 왜 기가 막혔습니까?
2. 다음 줄어든 말을 풀어쓰시오.
   이러구있는게냐→이러구있는것이냐
   분했다, 내려조이다, 향했다
3.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깎다, 봄비, 잠자리
4. 본문에서 돌쇠가 꾀를 쓰는 부분들을 찾고 이야기해보시오.
5. 다음의 표현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기가 막히다, 정신을 차리다, 생눈알 뽑아가다
6.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 3 7 과. 조선의 명승 금강산

금강산은 조선의 명승이며 세계의 명승이다.

금강산은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위치하고있다.

원산에서 남쪽으로 승용차를 타고 한시간 남짓이 달리면 아름답고 기묘하게 생긴 산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금강산이다.

금강산은 지역에 따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누인다.

금강산은 계절이 바뀌는데 따라 그 모습 또한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봄의 금강산은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여나 마치 아름다운 금

강석과 같다 하여 금강산이라고 부른다.

여름의 금강산은 숲이 무성하여 그늘이 좋고 흰구름이 충암절벽을 감돈다 하여 봉래산이라 부른다.

가을의 금강산은 온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 하여 풍악산, 겨울의 금강산은 흰눈에 묻힌 기암절벽들이 뼈와 같이 드러난다 하여 개골산이라고 부른다.

금강산에서 유명한곳으로는 만물상, 구룡폭포, 삼선암, 삼일포를 들수 있다.

만물상은 만가지의 형상이 한눈에 안겨온다는 절벽바위이다.

아홉마리의 룡이 신비로운 조화를 부렸다는 전설이 깃든 구룡폭포는 외금강 옥류동계곡에 있다. 높이가 70메터나 되는 구룡폭포는 금강산의 4대폭포의 하나이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세 신선이 그대로 바위로 굳어졌다는 삼선암은 기묘한 모습으로 삼형제처럼 서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하루만 와서 놀기로 하였는데 그 경치가 하도 좋아 사흘을 묵어가서 삼일포라고 한다는 호수는 물이 수정처럼 맑다.

이 삼일포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백발백중의 사격솜씨를 보여주신 이야기도 깃들어있다.

금강산의 만이천봉우리와 수많은 바위, 폭포와 정각마다 기묘하고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어있지 않은곳이 없다.

오늘 금강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졌다.

백두산 3대장군의 은정깊은 사랑과 업적이 깃들어있어 오늘의 금강산은 조선의 명승, 세계의 명승으로 더욱 이름을 떨치고있다.

문법

받침읽기

[ㄷ, ㅌ, ㅅ, ㅆ, ㅈ, ㅊ, ㅎ]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났을 때 [ㄷ]로 발음한다.

밑>믿　　꽃>꼳
낫>낟　　좋다>졷타
있다>읻따
낮다>낟따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금강산은 어디에 위치하고있습니까?
   2)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 어떻게 불리워지고있습니까?
   3) 삼일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깃들어있습니까?
2. 본문안에서 동사와 명사, 형용사와 명사의 결합형태를 찾고 그 결합을 다음 형태로 바꾸시오.
   례: 《아름다운 금강산》 → 《금강산이 아름답다》
3. 다음의 부사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마치, 더욱, 훌륭히
4.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닫기다, 믿다, 찾다, 밭, 같다, 갔다, 맡다, 듣다, 멋, 멎다, 하얗다, 누렇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38과. 평양에서 울고간 시인

김황원은 고려때의 이름난 시인이였다.

그는 조선의 명승지들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자연풍경에 대한 시를 많이 남기였다.

어느해 여름 평양의 아름다운 산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모란봉 부벽루에 오른 그는 청류벽과 맑고 푸른 대동강물, 연한 안개속에 있는 산과 들을 바라보다가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한동안 서있기만 하였다.

《아,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경치도 있는가?》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름난 시인이 평양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김황원을 만나자고 부벽루로 달려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시인에게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한 명문장을 남겨달라고 청하였다.

김황원은 부벽루의 천정과 기둥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글들을 보다가 얼굴을 찡그리였다.

그것들은 어느 하나도 평양의 경치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김황원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평양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남길터이니 저런 어지러운 글들을 모두 떼버리라고 말하였다.

한동안 사색에 잠겨있던 그는 마침내 붓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드디여 그는 여러 사람들이 빽빽이 둘러서 내려다보는 가운데 붓을 쥐고 썼다.

긴 성 한면에 강물이 늠실늠실
큰 들 동쪽엔 산들이 우뚝우뚝

이렇게 단숨에 쓰고난 시인은 더 붓을 놀리지 못하였다. 그는 붓을 쥔채로 부벽루아래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다시 쓰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보면 볼수록 새로와지는 경치를 몇편의 시구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었던것이다.

김황원이 두구의 시를 써놓고 더 쓰지 못하고 땀만 흘리자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깃드는 부벽루에 홀로 앉아있게 된 서인은 그만 붓을 꺾어버리고 마루바닥을 치며 통곡하였다.

《아, 평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려내기에는 내 재능이 모자라누나!》

시인은 이렇게 한탄하며 밤늦게까지 울다가 그곳을 떠나갔다.

그후 평양사람들은 그가 쓰다 만 두구의 시를 부벽루의 기둥에 걸어 전해오다가 련광정의 기둥에다 옮겨놓았다.

그것은 쓰다만 시가 잘되여서만 아니라 이름난 시인도 시여가 모자라 다 노래하지 못한 평양의 아름다움을 길이길이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문법

－상토 [－기]는 동사줄기의 끝소리가 자음 [ㅁ, ㄷ, ㅌ, ㅈ, ㅊ, ㅅ]로 끝났을 때 첨가된다.

－상토 [－구]는 동사줄기의 끝소리가 자음 [ㄷ, ㅅ]로 끝났을 때 부분적으로 첨가된다.

남다>남－기－다>남기다
뜯다>뜯－기－다>뜯기다
말다>말－기－다>말기다
찢다>찢－기－다>찢기다
쫓다>쫓－기－다>쫓기다
벗다>벗－기－다>벗기다
돋다>돋－구－다>돋구다
솟다>솟－구－다>솟구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김황원은 왜 얼굴을 찡그렸습니까?
   2) 김황원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3) 시를 쓰던 시인은 왜 붓을 더 놀리지 못하였습니까?
   4) 시인은 왜 붓을 꺾어버리고 통곡하였습니까?
2. 다음의 문장들을 각각 3개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1) 김황원이 두구의 시를 써놓고 더 쓰지 못하고 땀만 흘리고있자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2)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깃드는 부벽루에 홀로 앉아있게 된 시인은 그만 붓을 꺾어버리고 마루바닥을 치며 통곡하였다.
3. 다음의 표현들로 각각 문장을 만드시오.
   사색에 잠기다, 붓을 놀리다, 얼굴을 찡그리다.
4. 평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1편 지으시오.
5. 상토 《기》, 《구》를 붙일수 있는 동사들을 5개이상씩 찾아보시오.
6.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시오.

제39과. 혁명의 성산 백두산

백두산은 량강도 삼지연군에 위치하고있다.

백두산은 높이가 2750메터로서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백두산마루에는 자연호수 천지가 있다.

천지는 화산분구멍자리에 물이 고여 이루어졌는데 넓이가 916평방키로메터나 된다.

백두산은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는 자랑스러운 산이다.

백두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31(1942)년 2월 16일 백두밀영고향집에서 탄생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경사이고 더없는 행복이였으며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는 일대 사

변이였다.

그러나 온 겨레의 축복속에 떠받들려야 할 그이의 유년시절은 실로 고난에 찬 나날이였다.

천고의 밀림이 그이의 요람이였고 휘떠며 탄창이 그이의 손에 쥐여진 놀이감이였으며 눈보라의 울부짖음과 끊임없이 울리는 멸적의 총소리가 그이의 귀에 익혀진 첫 음향이였다.

그때 가장 곤난한것은 식량사정이였다.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강냉이죽으로 자라셨는데 김정숙녀사께서는 끼니때가 오면 우리는 이 강냉이죽도 달게 먹자, 그러면 너도 크게 자라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라도 찾게 된다, 나라를 찾으면 오늘을 옛말삼아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면 어리신 그이께서는 그 거친 음식도 맛있게 드셨고 잠을 자고 나셔서는 어머님께 키가 커졌다고 하시며 밝게 웃어보이군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 험난한 혁명의 길우에서 아드님을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하신 분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나가시였다.

백두밀영고향집뒤에는 정일봉이 높이 솟아있다.

백두밀영고향집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지으신 송시 《광명성찬가》를 새겨넣은 비문이 있다.

송시 《광명성찬가》는 다음과 같다.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솟아있고
소백수 푸른 물은 굽이쳐흐르누나
광명성 탄생하여 어느덧 쉰돐인가
문무충효 겸비하니 모두다 우러르네
만민이 칭송하는 그 마음 한결같아
우렁찬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든다

백두산은 3대장군의 빛나는 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조선을 알려면 백두산에 가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백두산의 기상을 한몸에 체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계시여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

문 법

동사만들기

—동사+아(어/여)+지다

이루(다)+어+지다>이루어지다

쥐(다)+여+지다>쥐여지다

크(다)+어+지다>커지다

좁(다)+아+지다>좁아지다

—형용사+아(어/여)+지다

늦(다)+어+지다>늦어지다

붉(다)+어+지다>붉어지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백두산은 어디에 위치하고있으며 그 높이는 얼마입니까?
   2) 위대한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탄생하시였습니까?
2. 다음의 단어, 토들을 리용하여 1개의 문장을 지으시오.
   곤난, 끊임없이, 면, 처럼
3. 본문에서 《~아/어/여지다》형의 단어들을 찾고 그것들과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4. 《백두산은 내가 가고싶은곳》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으시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으신 송시 《광명성찬가》를 암송하고 읊어보시오.

제40과. 인민의 어버이

옛말에 옷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오랜 친구가 좋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새옷을 좋아한다.

그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늘 입으시던 수수한 옷을 입고다니시는 한없이 겸허하시고 소박하신분이시다.

여기에 이런 일화도 있다.

주체49(1960)년 8월에 있은 일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며칠후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함경남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게 되여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느 일군은 그이께 새옷을 한벌 지어드리리라 마음다지였다.

더우기 고급중학교과정안을 마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가오는 9월부터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시게 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그 일군은 이번 기회에 새옷을 꼭 한벌 지어 그이께 드리고싶었다.

어느날 그 일군은 마음에 드는 천을 한감 마련해가지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찾아갔다.

서가앞에서 책을 읽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일군이 찾아온 사연을 들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이 한손으로 천을 쓸어보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일군에게 우리 인민들의 옷차림이 정전직후에 비하여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볼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것만큼 자신께서는 지금처럼 수수하게 입는것이 마음도 편하고 좋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천을 도로 내놓으시였다.

일군이 간절히 간청하였으나 그이께서는 끝내 거절하시였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검박하고 소박한 그 옷차림새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시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였다.

하지만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검박하고 소박한 차림새로 서계시는 그이를 인민들은 그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군으로만 알았던것이다.

며칠후에 일군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수령님처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기로 결심한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인민들이 입는대로 입으며 인민들과 꼭같이 생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한없이 겸허하시고 소박하신 그이시기에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첫자욱을 새기시던 그날에도 수수한 옷차림새로 등교길에 오르시였다.

그리하여 대학안의 교직원, 학생들도 그이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다.

한 학생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옆자리에 모시고도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는 일화도 바로 이로부터 생겨난것이다.

정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한없이 겸허하시고 소박한 인민적풍모를 지니고계시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문 법

된소리되기

소리토막안에서 앞의 형태부가 자음 [ㄹ]로 끝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는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로 발음한다.

일+군>일군(일꾼)
갈+대>갈대(갈때)
물+방울>물방울(물빵울)
물+새>물새(물쌔)
일+자리>일자리(일짜리)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이 일화는 언제 있은 일입니까?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을 가지고온 일군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였습니까?
   3) 인민들은 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2. 다음의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종합대학의 첫 등교길에 오르실 때에도 수수한 옷을 입으시였다. 그리하여 대학안의 교직원, 학생들은 그이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였다.
   2) 어느날 한 일군은 마음에 드는 천을 한감 마련해가지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찾아갔다. 서가앞에서 책을 읽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일군이 찾아온 사연을 들으시고 한동안 말씀이 없이 한 손으로 천을 쓸어보시였다.
3. 본문에서 형용사들을 모두 찾고 그와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씩 만드시오.
4. 《미처 …지 못하였다》의 형태로 문장을 지으시오.
5.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알길, 갈길, 일솜씨, 물그릇, 발길, 발자욱, 발바닥, 물고기

6. 본문을 읽고 느낀점을 이야기하시오.

제41과. 혁명의 수도 평양

평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평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하고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이 있다.

평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가 있다.

평양은 영웅의 도시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침략자들은 평양에 42만 8천 7백여발의 폭탄을 떨구어 수도의 모든것을 불태워 재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평양시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영웅적으로 싸워이겼으며 전쟁이 끝난 그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복구건설에 모두가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미국놈들이 100년이 걸려도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였던 평양은 불과 몇년사이에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로 되였다.

오늘 평양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경기장,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3대혁명전시관, 개선문, 전승기념탑, 인민대학습당, 만경대학생소년궁전, 5월 1일경기장, 인민문화궁전, 4.25문화회관, 만수대예술극장, 청춘거리의 경기관들, 창광원, 빙상관, 청류관, 고려호텔, 대성산유원지, 평양지하철도 등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수많이 건설되여 영웅도시 평양의 모습을 더욱 새롭게 하고있다.

평양은 과학문화의 도시이다.

해방전에는 하나의 대학, 하나의 과학연구기관도 없었던 평양에 오늘은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학들과 과학연구기관들이 있으며 화려한 만수대예술극장을 비롯한 많은 극장, 영화관, 문화기관들이 있다.

또한 평양에는 만경대유원지, 청년공원, 대성산유원지, 릉라도유원지, 보통강유원지를 비롯하여 가는곳마다에 근로자들이 마음껏 휴식할수 있는 공원과 유원지들이 훌륭히 꾸려져있다.

그러기에 평양을 방문한 한 외국인은 평양을 보고 《도시안에 공원이 있는것이 아니라 공원속에 도시가 있다.》고 말하였다.

평양에는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공장들도 많이 있다. 수도근로자들은 여기에서 자기의 기술, 자기 나라의 원료로 여러가지 기계들과 천, 생활필수품들을 자기 손으로 생산하고있다.

평양에는 크고작은 상점들과 식당, 양복점, 리발소, 수리소 그리고 병원과 진료소, 약국 등 근로자들의 생활편의시설과 보건시설들이 충분히 꾸려져있다.

평양에는 인류발생의 첫 단계인 구석기시대전기 《원인》들이 남긴 100만년전의 검은모루유적으로부터 구석기시대 중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유적들이 다 있다.

평양은 도시력사로 보아도 가장 오래다.

평양은 지금으로부터 반만년전 우리 민족의 원시조 단군이 처음으로 고조선을 세우면서 수도로 정한곳이며 동방의 대강국이였던 고구려가 수도로 옮긴곳이다.

오늘 평양시민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은 오늘 남조선인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평양을 우러러보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은 국제적도시로 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 지도자들과 혁명적인 벗들, 여러 분야의 대표단들이 끊임없이 평양에 찾아오고있다.

오늘 평양에서는 국제적인 회의, 토론회들, 체육경기들이 자주 진행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은 주체조국의 수도, 혁명의 수도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있다.

문법

받침읽기

[ㄻ]의 받침소리는 발음이 끝났을 때와 자음앞에서 [ㅁ]로 발음된다.

옮기다>옴기다

젊다>점따, 점꼬

삶느냐>삼느냐, 삼꼬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평양은 어떤곳입니까?
   2) 평양에 있는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말해보시오.
   3) 한 외국인은 평양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4) 평양의 력사를 간단히 이야기해보시오.
2. 본문에서 형용사를 모두 찾아내고 그것의 문법적형태를 밝힌 다음 그에 해당한 물음을 주시오.
3.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봄비, 숨결, 잠자리, 마음속, 옮겨심다, 옮겨놓다, 삶고있다
4. 《평양의 ○○를 가보고》라는 제목으로 글쓰기를 하시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된소리로 발음되는곳을 찾으시오.

제 4 2과. 조선에서의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

조선에는 가장 훌륭한 전반적의무교육제도가 세워져있다.

조선의 의무교육은 학교전교육 1년, 초등교육 4년, 중등교육 6년으로서 11년간의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실시된다.

조선에서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된 어린이들은 100프로 유치원에 가서 1년간의 교육을 받고 인민학교에 입학하여 4년간의 교육을 받은 다음 고등중학교에 입학하여 6년간의 교육을 받고 졸업하게 된다.

이 11년간의 의무교육을 받으면서 학생들은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역군으로 준비해나간다.

학교의무교육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5(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시였으며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주체56(1967)년부터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주체61(1972)년부터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조선의 의무교육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무료교육이다.

조선에서는 사회의 모든 교육을 국가가 부담한다.

조선에서 한명의 어린이가 탁아소로부터 유치원을 거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에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2만 2000여원에 달한다.

11년제의무교육을 받아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학생들은 희망과 능력에 따라 사회에 진출할수도 있고 고등전문학교나 대학에서 공부할수 있다.

고등전문학교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공부하고있다.

사회에 진출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공장(농장)대학이나 통신 및 야간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일하면서 공부한다.

오늘 조선에서 11년제무료의무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더욱 강화되고있다.

문법

허열소리

용언의 줄기의 끝소리가 《ㄹ》인 때 《~아/어(았/었)》가 붙으면 [ㄹ]는 [ㄹ, ㄹ]로 발음된다.

부르(다)+았−다>불렀다.
부르(다)+어+주다>불러주다
모르(다)+았+다>몰랐다
빠르(다)+았 다>빨랐다
푸르(다)+었 다>푸르렀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조선에서 의무교육은 어떻게 되여 11년입니까?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1년제의무교육제를 언제부터 실시하도록 하시였습니까?
   3) 조선에서 한명의 어린이가 탁아소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에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얼마입니까?
2. 다음의 형태들을 그대로 쓰면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실시하다, 실시되다, 실시하게 되다, 실시되도록 하다
3. 다음의 단어들에 토 《아/어/여》와 《았/었/였》을 붙이시오.
   이르다, 푸르다, 기르다, 머무르다
4. 다음의 말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공부할수 있다, 실시, 발전하다, 갈수 있다.
5. 본문에 있는 피동형동사들을 능동형동사로 고치시오.
   세워지다⇒서다

실시되다⇒실시하다

6. 《조선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이라는 제목으로 10개 문장으로 된 글을 쓰시오.

제43과. 농부와 얼룩이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부지런한 한 농부가 살고있었다.

어느날 농부가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자그마한 웅뎅이에서 병든 강아지 한마리가 깽깽거리며 울고있었다.

《어이구, 불쌍도 하지.》

농부는 강아지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농부는 강아지를 잘 돌봐주었다.

이름도 얼룩이라고 지어불렀다.

얼마 안가서 얼룩이는 병을 깨끗이 털고 령리한 강아지가 되였다.

농부가 마루에 나서면 신을 물어다 신기 좋게 가지런히 놓아주기도 하였고 마당에 나서면 닭모이그릇을 물어다 앞에 놓아주기도 하였다.

어느해 봄이였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옆집사람이 찾아왔다.

《친척네 집에 갔다가 자네 생각이 나서 될 좀 얻어가지고 왔네.》

농부와 옆집사람은 나무그늘밑에다 술과 안주를 차려놓고 함께 마시였다.

음식을 다 들고나서 옆집사람은 담배를 피워물고 마을로 내려갔다.

농부는 잠간 자고 일어나서 하던 일을 마저 하리라고 생각하고 잔디밭에 드러누웠다.

얼룩이도 농부의 곁에 누워 잠들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잔디밭에 불이 일기 시작하였다.

옆집사람이 담배불을 붙이고 내버린 성냥가치에서 불이 일었다.

불길은 어느새 농부가 누워있는데까지 번져왔다.

얼룩이가 먼저 껑충 뛰여일어났다.

얼룩이는 농부의 옷을 물어당겨서 일으켜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농부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안타까와 돌아치던 얼룩이는 개울가로 뛰여갔다.

얼룩이는 개울물에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와서 농부가 자고있는 주변의 잔디밭우에 막 딩굴었다.

이렇게 열번, 스무번, 서른번…

얼룩이는 그만 지쳐버렸다.

마지막으로 온몸에 물을 푹 적신 얼룩이는 농부에게로 기여가 자기의 몸으로 주인을 덮고 쓰러졌다.

얼마후에야 정신을 차린 농부가 일어나보니 얼룩이가 자기 몸우에 쓰러져있는것이였다.

깜짝 놀란 농부는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사방은 온통 불바다로 변했는데 자기만은 그대로 있는것이였다.

그때에야 농부는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얼룩아. 네가 나를 구원했구나.》

농부는 불에 타고 그슬은 얼룩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구원하고 숨진 얼룩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문법

된소리되기

받침 [ㅁ]뒤에 이어지는 토 [~다, ~고, ~지, ~기]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남다>남따, 남지>남찌

남고>남꼬, 남기>남끼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왜 잔디밭에 불이 붙었습니까?
   2) 얼룩이는 불을 끄기 위해 어떻게 하였습니까?
   3) 잠에서 깨여난 농부는 무엇을 알게 되였습니까?
2. 《~기도 하고…~기도 하다》형태의 문장을 2개 지으시오.
3. 본문에서 쓰인 동사들을 모두 찾고 그것과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4.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감다, 감고있다, 감기다, 감지, 감기
   넘다, 넘고, 넘기다, 넘지, 넘기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시오.

제 4 4 과. 인민의 유원지 대성산

대성산은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중심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6키로메터 떨어진곳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산이다.

대성산은 높이가 서로 다른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있다.

주작봉의 서남쪽 산허리에는 혁명렬사릉이 자리잡고있다.

혁명렬사릉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건설되였다.

오늘 이 렬사릉에는 100여명의 혁명렬사들이 고이 잠들고있다.

조선인민들은 누구나 이 렬사릉에 찾아와서 당과 수령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따라배운다.

대성산은 조선인민들에게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주는곳이다.

대성산기슭의 오른쪽에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중앙동물원이 자리잡고있다. 이 동물원에는 범, 사슴, 꿩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사는 수백종의 짐승들과 새류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는 희귀한 동물들도 많다.

또한 대성산기슭 왼쪽에는 훌륭히 꾸려진 중앙식물원이 있다. 여기에는 조선에 있는 여러가지 나무들과 약초, 꽃들을 비롯하여 수천종의 식물들이 있다.

오늘 동물원과 식물원은 근로자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되고있을뿐아니라 그들에게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보여주는곳으로 되고있다.

대성산은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을 위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진 하나의 큰 유원지이다.

2천여정보의 넓이를 가진 대성산유원지에는 산허리를 감돌며 뻗은 40여리의 도로와 수백갈래의 작은 길들이 훌륭히 닦아졌다. 그리고 소문봉, 장수봉, 주작봉 등 봉우리들과 장수곳, 임H곳 등 편못들에는 조선의 아름다운 민족건축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각들이 건설되여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한다.

대성산유원지의 두 골짜기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가득차있는 동천호와 미천호가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들은 배놀이를 하면서 휴식을 한다.

대성산유원지에는 또한 현대적인 유희장이 훌륭히 건설되여있다. 유희장에는 관성렬차, 회전비행기, 물배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희

시설들이 있다.

대성산은 조선인민의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산이다.

대성산에는 지난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제일 강대국이였던 고구려가 외래침략으로부터 평양지방을 지키기 위하여 산봉우리들을 련결하여 쌓은 돌성이 있다. 둘레가 약 7.2키로메터나 되는 이 산성은 3세기중엽부터 쌓기 시작하여 완공된후 고구려의 중요한 군사시설로 리용되였다. 성벽에는 20여개의 성문터를 비롯하여 당시의 많은 력사유적들이 있으며 성안에는 170여개의 못자리가 있다.

대성산은 또한 외적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워이긴 고구려인민들의 투쟁력사와 아름다운 전설들을 가지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대성산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을 키워주고 민족적긍지를 높여주는 좋은 교양장소로 되고있다.

문 법

동사만들기

명사+동사

자리+잡다>자리잡다

도착+하다>도착하다

리익+되다>리익되다

소리+치다>소리치다

토막+치다>토막치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대성산은 몇개의 봉우리로 되여있습니까?
   2) 혁명렬사릉은 어떻게 건설되였습니까?
   3) 대성산에는 어떤 유희시설들이 있습니까?
2. 다음의 문장들에서 밑줄을 그은 단어들을 묶음표안의 형태로 바꾸고 그에 맞게 고치시오.
   1) 주작봉의 서남쪽 산허리에는 혁명렬사릉이 자리잡고있다. (혁명렬사릉이다)
   2) 대성산기슭 왼쪽에는 훌륭히 꾸려진 중앙식물원이 있다. (꾸려져있다)
   3) 대성산유원지에는 현대적인 대유희장이 훌륭히 건설되여있다. (훌륭하다)
3. 다음의 단어들과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풍부하다, 희귀하다, 훌륭히, 즐겁다

4. 본문내용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45과. 도라지

옛날 금강산 옥류동골짜기에는 땅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는 도씨로인네 집이 있었다.

도씨로인한테는 라지라고 부르는 귀여운 외동딸이 있었다.

로인은 딸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새벽에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오군하였다.

라지는 부지런히 베도 짜고 아버지의 일손을 도와드렸다.

그러나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게다가 라지의 어머니가 3년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고개너머 지주집에서 꾸어쓴 돈이 리자가 붙어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지주놈은 매일같이 빚을 내라고 하였다.

이런 도씨부녀의 형편에 대하여 마을사람들모두가 걱정해주었는데 그가운데서도 나무군총각의 마음은 각별하였다. 그는 라지를 위하여 나무를 해 판 돈을 한푼두푼 모았다.

이런 기미를 알아차린 지주놈은 어여쁜 라지를 끌어가려고 하였다. 지주놈은 3년상이 되는 날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라지를 첩으로 끌어가겠다는 계약서에 억지로 손도장까지 찍게 하였다.

라지의 아버지는 그날부터 앓아눕게 되였다.

갑자기 앓아누운 아버지가 이상하여 라지는 아버지에게 사연을 물었으나 말이 없었다.

그러나 소문은 온 동네에 퍼지여 라지도 나무군총각도 사연을 알게 되였다.

《아버님, 근심마십시오. 이 딸의 평생소원은 아버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입니다. 저때문에 아버님께서 앓아누우셨으니 저의 불효죄는 용서받을수 없는것으로 압니다. 저는 지주집에 들어가는것으로 이 죄를 씻고저 하니 이 딸을 리해하여주십시오.》

그 길로 라지는 지주놈한테 가서 계약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약서를 되찾았다.

다음날 도씨네 집 뜨락에는 한채의 큰 가마가 왔다.

라지는 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며 눈물로 작별인사를 하였다.

《아버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아버지는 기여나와 못간다고 가마에 매여달렸으나 가마는 떠나갔다.

가마가 어머니의 산소에 이르렀을 때 라지는 가마를 멈추게 하고 흰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아버지가 계시는 령너머를 향해 또다시 큰 절을 하고나서 어머니산소에도 큰 절을 올렸다.

이때 라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윽고 산소에서 일어난 라지는 하늘을 보며 《어머니!》하고 목청껏 부르고나서 낭떠러지에 몸을 던졌다. 라지의 목소리는 메아리를 남기며 멀리 흩어졌다.

얼마후 라지의 어머니묘옆에 또하나의 묘가 생겼다.

이 소식을 알고 나무군총각이 달려왔을 때 라지의 무덤가에 하얀 꽃 한송이가 곱게곱게 피여났다.

라지가 사랑하는 총각에게 방긋 미소를 보내는것 같았다.

마을사람들은 이 꽃을 라지의 성과 이름을 붙여 《도라지》라고 하고 꽃씨를 온 금강산에 뿌렸다.

오늘 조선의 산 어데서나 볼수 있는 도라지꽃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한다.

문법

상토 [리]는 동사줄기의 끝소리가 [ㄹ], [르]로 끝났을 때 붙인다.

오르다—올리다, 열다—열리다, 알다—알리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로인은 딸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2) 라지의 아버지는 왜 앓아눕게 되였습니까?
   3) 가마가 어머니의 산소에 이르렀을 때 라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다음 문장들의 알맞는 자리에 넣으시오.
   (부지런히, 엄청나게, 목청껏, 곱게곱게)
   1) 로인은 딸을 위하여 새벽에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오군하였다.
   2) 라지의 무덤가에는 하얀 꽃 한송이가 피여났다.
   3) 라지는 어머니를 부르고나서 낭떠러지에 몸을 던졌다.
   4) 지주집에서 꾸어쓴 돈이 리자가 붙어 불어났다.

3. 다음의 형태들이 들어가게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고나서, ~게 되다, ㄹ수 없다
4. 본문에서 형용사를 모두 찾아내고 그것의 문법적형태를 밝히시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46과. 논판의 바위돌

옛날 어느 마을에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그는 언제나 꾀를 써서 나쁜놈들을 골려주군하였다.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해 봄날 김선달은 황해도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였다.

선달이 논뚝길로 들어서는데 한 농부가 논판 한가운데 있는 바위우에 올라앉아 점심밥을 먹고있었다.

그런데 농부가 먹는 밥을 들여다보니 보리밥덩이였다.

《아니, 이런 힘든 모내기를 하면서 바위우에 앉아 맨밥을 드시오?》

《점심을 강보리밥덩이나마 먹는게 나에겐 다행이요.》

《집엔 물을 떠다줄 녀인도 없소?》

《여보시오. 념려해주어 고맙소. 나는 품팔이온 사람이요.》

《품팔이를 왔으면 주인이 있을텐데 점심 한끼도 대접하지 않소?》

《허, 이 량반이 깜깜이군. 이 논 주인은 린색하기로 소문난 강지주라오.》

그러면서 농부는 강지주놈의 린색한 소행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농부의 말을 듣고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김선달은 농부에게 푸짐한 점심상을 마련해줄터이니 밥을 그만 먹고 지주놈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이런 때 마침 강지주놈이 뚱기적거리며 나타났다.

《안녕하시오. 이 논이 댁의것이라지요?》

《그렇다, 왜 그러느냐?》

《저렇게 기름진 논판에 저런 큰 바위를 그냥 뒀으니 그러오. 그 바위가 차지한 자리에서 나오는 벼를 계산하면 얼마나 많겠소.》

《그럼. 자네가 그 바위를 치울수 있나?》

《저런 바위 하나 져내지 못하겠소.》

《그럼 좀 치워주게, 품값은 톡톡히 주지.》

《품값은 무슨 품값을 받겠소. 내 후날 피로를 풀고 원기가 돈 다음 와서 져내지요.》

《그게 며칠이면 되겠나?》

《며칠이라니요. 그저 개 한마리쯤 잡아먹고 푹 자고나면 그만이지요.》

이렇게 되여 선달은 강지주와 논판의 바위돌을 져내기로 약속하고 농부를 데리고 지주집으로 갔다.

선달은 농부와 함께 단고기국에 술까지 실컷 먹고 늘어지게 잠을 잤다.

다음날 논판의 바위돌을 져내는 일이 벌어졌다.

강지주놈은 많은 사람들을 논판으로 끌어내였다. 바위를 져내는 일을 구경시키려는것이였다.

선달은 두 팔다리를 굽혔다폈다하고 《야!—》소리를 치며 바위를 당장 들어낼듯 바위옆으로 갔다.

그리고 등을 바위쪽으로 돌려대며 《자, 이젠 지우시오.》하고 소리쳤다.

지주놈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하자 선달은 눈을 크게 뜨며 《자, 지워야 들어내지 않소.》라고 재촉하였다.

《여기엔 이 바위를 지워줄 사람이 없소?》

주위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지워줄 사람이 없으면 할수 없군요.》

《아니, 개 한마리에 술 한단지를 다 먹고 이제 와서 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

지주놈은 눈알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그러자 김선달은 태연하게 웃으며 《내 언제 들어내겠다 했소. 져내겠다 했지. 빨리 지우시오.》하고 말하였다.

강지주놈은 기가 막혀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구경나온 사람들이 지주놈을 통쾌하게 골려준 김선달을 쳐다보며 허리를 그러안고 웃을 때 선달은 제 갈길을 갔다.

문법

상토 [우]는 동사의 줄기가 열린 음절일 때 붙는다.

지다—지우다

메다—메우다
쓰다—씌우다
서다—세우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생각에 잠겨있던 김선달은 농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2) 김선달은 지주놈과 어떤 약속을 하였습니까?
   3) 강지주놈은 왜 기가 막혀 어쩔줄을 몰라했습니까?
2. 다음의 문장들에서 바로옮김법을 풀어옮김법으로 고치시오.
   1) 김선달은 강지주놈에게 《이런 바위 하나 져내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 지주놈은 《그럼 좀 치워주게, 품값은 푼푼히 주지》 하고 말하였다.
   3) 김선달은 《며칠이라니요. 그저 개 한마리쯤 잡아먹고 푹 자고나면 그만이지요.》 하고 말하였다.
3. 다음의 두 단어를 함께 넣어 하나의 문장을 지으시오.
   —한창, 련색하다
   —념려하다, 품값
   —푼푼히, 약속
4. 본문에서 김선달이 꾀를 쓰는 부분을 찾고 이야기하시오.
5. 상토 《우》를 붙일수 있는 동사를 5개이상 찾으시오.
6. 본문을 여러번 읽고 자기 말로 이야기하시오.

제47과. 혁명의 요람 만경대

만경대는 주체조선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을 흐르는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있다.

옛날부터 만경대는 경치가 좋아서 모란봉과 함께 평양의 자랑으로 되여왔다.

만경대라는 말은 일만경치가 다 보이는곳이라는데로부터 생겨났다.

만경대가 오늘 조선인민들뿐아니라 세계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것은 경치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이곳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의 빛나는 력사가 깃들어있기때문이다.

만경대에 찾아가면 아름다운 만경봉기슭에 자그마한 초가집 한채가 자리잡고있는것을 보게 된다.

그 집이 바로 만경대고향집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이 집에서 탄생하시였다.

이 집은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대에 얻으신 산당집이였다.

증조할아버님께서는 지주의 묘지를 보아주기로 하시고 이 산당집을 얻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일가는 이 집에서 대대로 소작살이를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오시였다.

지금도 이 집에는 그때의 생활형편을 그대로 말해주는 유물들이 남아있다.

약간의 식기류와 색낡은 농짝, 보습, 지게, 작두, 물레, 호미, 찌그러진 독 이런것이 집안의 재산 전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경대고향집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시면서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과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였다.

만경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과 관련된 수많은 혁명사적물들이 있다.

만경대고향집앞에 서있는 둘메나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무지개를 잡으려고 오르셨던 나무이다.

고향집뒤 나지막한 언덕기슭에는 넙적한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마을어린이들과 씰매놀이를 하시던 《씰매바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시절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시였다.

《씰매바위》가 있는곳에서 큰 길을 건너가면 또하나의 큼직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언제나 대장이 되시여 일제놈들을 때려부시는 군사놀이를 자주 벌리시던 《군함바위》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런 군사놀이를 하실 때에는 일본경찰놈들에게 잡혀가신 아버님을 생각하시였고 아버님의 원수를 꼭 갚으리라 굳게 다짐하시였다.

고향집 앞길을 따라 서쪽으로 조금 가면 순화강기슭에 닿게 되는데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낚시질을 하시면서 사색하시던 《낚시터》가 있다.

《낚시터》에서 산등성이로 뻗은 길을 따라 만경봉으로 한참

올라가면 길 오른쪽에 자그마한 잔디밭이 있다. 여기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자주 책을 읽으시던 《학습터》이다.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아드님께 언제나 제 나라 말과 글, 제 나라 력사와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아버님의 간곡한 말씀을 가슴속깊이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덕학교시절 이곳에 오시여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책을 읽으시였다.

만경봉우에 오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마을아이들과 씨름을 자주 하시면서 장수힘을 키우시던 《씨름터》가 있다.

그리고 만경봉꼭대기에서 대동강쪽으로 내려가면 《샘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침마다 랭수마찰을 하시면서 몸을 단련하시였다.

만경봉에서 고향집쪽으로 내려오느라면 《그네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강반석녀사께서는 아드님을 그네에 태우시면서 일제를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키워주시였다.

열네살 되시던 해에 아버님께서 일제경찰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는 비통한 소식을 들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다지시고 만경대를 떠나 압록강을 건느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해방하시였다.

만경대는 한그루의 나무와 한줌의 흙, 하나의 바위돌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요람이며 조선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오늘 만경대를 찾는 사람들은 날을 따라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문 법

상토 [히]는 동사줄기의 끝소리가 [ㅂ, ㄷ, ㅈ, ㄱ]인 때 붙인다.

잡다>잡히다
걷다>걷히다
앉다>앉히다
읽다>읽히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만경대는 어디에 자리잡고있습니까?

   2) 만경대에는 어떤 사적물들이 있습니까?
   3) 들메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4) 만경대에는 어떤 혁명사적지들이 있습니까?
2. 다음의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형태로 고치시오.
   1) 만경대에 (찾아가다) 아름다운 만경봉기슭에 (자그마하다) 초가집 한채가 (자리잡고있다)것을 보게 된다.
   2) 만경봉에 (오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마을아이들과 씨름을 (자주 하다) 장수힘을 (키우다)《씨름터》가 있다.
   3) 만경봉에서 고향집쪽으로 (내려오다) 《그네터》가 (있다) 이곳에서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일제를 (미워하다) 나라를 (사랑하다) 정신을 키워주시였다.
3. 본문에서 보조동사와 결합된 단어들을 찾고 그것들과 명사들과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드시오.
4. 다음의 문장을 물음문, 추김문으로 고치시오.
   —혁명의 고향 만경대에 갔다
   —만경대에 가서 많은것을 배웠다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8개의 문장으로 말하시오.

제48과. 미제는 피를 즐기는 승냥이

1900년대초에 재령읍에는 《서양촌》이라고 불리우는 한 부락이 생겨났다. 이 부락은 윌리암, 헌트, 아이담스를 비롯한 미국선교사놈들이 사는 마을이였다.

놈들은 이 마을에 《가난하고 병이 많은 조선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2층짜리 《병원》을 지어놓았다.

어느해 여름 해질무렵이였다.

여덟살난 진석이와 열한살난 영진이라는 두 소년이 방금 날기 시작한 까치새끼 한마리를 잡아가지고 《서양촌》울타리밑을 지나가고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울타리밑에서 그만 까치새끼를 놓치고말았다.

진석의 손에서 빠진 까치새끼는 《서양촌》울타리곁에 서있는 뽀뿌라나무가지에 날아가 앉았다.

두 소년은 한참 그 나무를 쳐다보며 서있었다.

영진이는 진석이더러 그냥 가자고 했다. 그러나 진석이는 다시 잡아가지고 가자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인가 잠시 생각하던 영진이는 마을로 달려가 사닥다리를 가져왔다.

영진이는 사닥다리를 뽀뿌라나무에 기대여놓고 살금살금 기여올라갔다.

그런데 이때 정원에서 저녁산보를 하던 헌트란 놈이 영진이를 보았다. 그놈은 이 소년들이 울타리를 넘어들어와 사과를 훔치려 한다고 하면서 진석이와 영진이를 잡아다가 《병원》비밀지하실에 가두었다.

그날 저녁 두 소년의 아버지, 어머니와 온 마을사람들이 아이들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찾아다녔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놈들의 《병원》비밀지하실에 갇혀있는것을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당시 《서양촌》의 미제승냥이놈들은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다가 피를 뽑아냈다. 놈들은 그 피를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에 팔아서 돈벌이를 하였다.

진석이와 영진이도 바로 이날 이 승냥이놈들에게 붙잡혀 피를 뽑히웠다.

이놈들은 마지막 한방울까지 다 뽑고서 그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나 놈들은 결코 자기들의 죄를 감출수 없었다.

《서양촌》승냥이놈들이 조선아이들에게서 피를 뽑아내고 죽였다는 소문은 한입두입 건너 온 재령지방에 알려지게 되였다.

이것을 알게 된 이 고장 사람들은 진석이와 영진이를 죽인 미제승냥이놈들을 때려죽이자고 웨치면서 《서양촌》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놈들의 집을 마스고 헌트, 아이담스 등 승냥이놈들을 마구 짓밟고 때렸다.

더는 이곳에서 살수 없게 된 놈들은 서울로 도망쳤다.

그때로부터 몇십년 세월이 흘렀다.

해방된 조선의 남쪽 절반땅에 미제침략자들이 또다시 기여들었다.

이자들속에는 아이담스놈도 있었다. 그놈은 미국군대의 장교로 있는 자기 아들놈까지 데리고 들어왔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놈들은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서둘렀다. 5년동안 북조선을 침략할 전쟁준비를 해온 미국놈들은 1950년 6월에 끝내 전쟁을 일으켰다.

늦가을 비가 내리는 10월 어느날 재령땅의 옛교회당앞에는 미국놈짚차 한대가 와서 멎었다.

차에서는 늙다리미국놈과 미제침략군의 젊은 장교 한놈이 내렸다. 아이담스놈과 그의 아들놈이였다.

재령땅에 기여든 놈들은 첫날부터 죄없는 인민들을 마구 잡아들여 죽였다. 놈들은 재령군안에서만도 1천 4백여명의 인민들을 죽였다.

그러나 미제승냥이놈들의 이와 같은 만행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미제승냥이놈들을 쳐부시고 조국땅을 훌륭히 지켜냈다.

미제침략자들은 100여년동안 조선을 침략해온 조선인민의 첫째가는 원쑤이다.

놈들은 오늘도 남조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고 죽이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저들의 손안에 넣으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조선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자기 조국땅에서 내쫓고 반드시 나라를 통일할것이다.

문 법

돌받침읽기

ㄺ(흙)→ㄱ(흑)

ㄻ(젊다)→ㅁ(점따)

ㄼ(밟다)→ㅂ(밥따)

ㄿ(읊다)→ㅂ(읍따)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재령읍 한복판에 생겨난 《서양촌》은 무슨 마을이며 거기에 지은 2층집은 무슨 집이였습니까?

2) 미국선교사놈은 무슨 《리유》로 두 소년을 붙잡았으며 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3) 미제승냥이놈들의 야수적만행을 알게 된 마을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 본문에서 두개이상의 동사가 합쳐서 된 단어들을 모두 찾아쓰고 그 구조를 밝히시오.

3. 다음의 문장들에서 동사를 능동, 피동 또는 사역형태로 바꾸고 그에 맞게 문장을 고치시오.

1) 그 마을은 《서양촌》이라고 불리웠다. (능동으로)

2) 헌트놈이 영진이를 보았다. (피동으로)

3) 까치새끼는 나무우에 앉았다. (사역으로)
4) 마을사람들은 미제승냥이놈들을 마구 짓밟았다. (피동으로)

4. 다음의 문장을 두개의 문장으로 나누시오.

1) 1900년대초에 재령읍의 한복판에는 《서양촌》이라고 불리우는 한 부락이 생겨났다.
2) 여덟살난 진석이와 열한살난 영진이라는 두 소년은 방금 날기 시작한 까치새끼를 붙잡았다.
3) 놈들은 두 소년이 사과를 훔치려 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비밀지하실에 가두었다.

5.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맑다, 삶, 밝다, 밝아오다, 삶, 밟고가다, 밟아지다, 읊고있다, 읊어지다

6. 이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49과. 3원짜리대가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게서 얻어맞고 녹아나는 일제놈들의 몰골은 인민들의 비웃음을 자아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놈들을 조소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들가운데는 일제경찰을 보고 《3원짜리》라고 비웃는 말도 있었는데 이 말이 생긴 까닭은 이러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장백현 12도구를 들이쳐 적들을 쓸어눕힌 주체27(1938)년 4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12도구의 어느 한곳에서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든 시체 하나를 놓고 두 경찰놈이 싸움질을 하고있었다.

이놈들은 전투가 벌어지자 도망을 쳤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이 떠났을 때 마을에 다시 기여든놈들이였다.

이놈들은 도망쳤던 《죄》를 면하기 위하여 현신짝이라도 하나 얻으면 그것을 《공산군의 신발》이라고 거짓을 꾸며 《공》을 세웠다는 헛소리를 하려고 쓰레기통을 찾아헤매다가 시체 하나를 찾아냈던것이다.

두놈은 시체 하나를 놓고 서로 제가 쏜것이라고 싸우다가 총과 칼을 빼들기까지 했다.

놈들이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데 어느덧 날이 밝기 시작했다.

두놈은 더이상 시간을 끌수 없어서 생각끝에 둘이 같이 쏜것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놈들은 저들의 《공로》를 내세우기 위한 연극을 벌리기 시작했다.

놈들은 시체에서 대가리를 베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매달았다. 그리고는 광고까지 써붙이였다.

바로 이무렵 12도구경찰서앞으로 장백현 선와자촌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

이제 선와자촌경찰분서장 고경장이란놈이 12도구로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것이였다.

전화를 받고 거리에 나타난 경찰서장놈이 대가리 하나가 매달려있는곳에 이른것은 아침녘이였다.

경찰서장놈은 공중에 매달려있는것을 올려다보다가 기겁을 하여 입을 딱 벌린채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다.

바로 그것이 고경장놈의 대가리였기때문이였다.

얼마후에 제정신을 차린 경찰서장놈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고 소리쳤다.

두 경찰놈은 경찰서장놈에게 저들의 《공로》를 자랑하듯 둘이 함께 쏘았다고 대답하였다.

그 말에 경찰서장놈의 입에서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 미친놈들아, 네놈들이 고경장을 쏘았단말인가?》

경찰서장놈의 입에서 고경장이란 말이 나오자 이번에는 두 경찰놈들이 돌처럼 굳어졌다.

《고경장이라니요?》

《이놈들아, 당장 네놈들의 모가지를 내놓아라!》

경찰서장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놈은 얼마나 성이 났던지 당장 두 경찰놈의 모가지를 벨것만 같았다.

두 경찰놈은 울상이 되여 이번에는 저들이 쏜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비를 가리고있을사이가 없었다. 고경장놈의 가족이 온다는 소식이 왔던것이다.

급해맞은 경찰서장놈은 경찰놈들에게 고경장의 대가리를 몸통이에 붙이라고 했다.

경찰놈들은 급히 달려가 구두쟁이를 데리고와서는 돈 3원을 주고 대가리를 다시 붙여놓게 하였다.

이때부터 이곳 인민들속에서는 일제놈들을 보면 《3원짜리대가리》라고 하며 비웃었다.

문 법

상토 [이]는 동사줄기의 끝소리가 [ㄹ], [ㄱ], [ㄲ], [ㅍ], [ㅌ], [ㅎ]인 때 첨가된다.

줄다>줄—이—다>줄이다 [ㄹ]
먹다>먹—이—다>먹이다 [ㄱ]
덮다>덮—이—다>덮이다 [ㅍ]
붙다>붙—이—다>붙이다 [ㅌ]
놓다>놓—이—다>놓이다 [ㅎ]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두 경찰놈은 왜 싸움질을 하였습니까?
   2) 경찰서장놈은 왜 기겁을 하였습니까?
   3) 《3원짜리대가리》란 말은 어떻게 되여 생겨났습니까?
2. 다음의 표현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비웃음을 자아내다, 입을 딱 벌리다, 제정신을 차리다
3. 다음의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형태로 고치시오.
   1) 분서장을 (찾다) 거리를 (헤매다) 12도구경찰서장놈은 길옆나무에 (매달다) 그놈의 대가리를 (발견하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한동안 (움직이다) 못하였다.
   2) 두 경찰놈은 어느 한 골목에서 (발견하다) 주검에서 대가리를 (베여내다) 길가의 나무에 (달아매다) 그것이 자기들이 (잡다) 공산군의 머리라고 광고까지 (쓰다) 붙였다.
   3) 두 경찰놈은 자기들이 (베다) 나무에 (달아매다) 대가리가 고가놈의 대가리라는것을 (알다) (되다) 그것을 구두쟁이에게 (시키다) 다시 제몸뚱아리에 (꿰매다) 하였다.
4. 본문에서 앞붙이, 뒤붙이가 붙은 단어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 앞붙이, 뒤붙이의 뜻을 말하시오.
5. 다음의 동사들의 사역형을 말하시오.
   먹다, 붙다, 죽다, 굴다, 울다, 같다
6.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 5 0 과.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전쟁은 끝났으나 사람들은 모든것이 마사지고 불타버린 조국땅우에 무엇부터 어떻게 건설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철의 로동계급들부터 찾아주시였다.

주체42(1953)년 7월 29일.

이날은 전쟁이 끝난지 사흘째 되던 날이였다.

다 마사진 제철소구내의 여기저기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여오르고있었다.

로동자들은 마사진 용광로자리를 파헤치고있었다.

낮 11시쯤 되였을 때였다.

누군가가 로동자들에게로 달려오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신다고 알려주었다.

너무도 뜻밖의 소식을 들은 로동자들은 삽, 곡괭이들을 던지고 제철소정문쪽으로 달려갔다.

로동자들의 가슴은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차가 로동자들이 모여서있는데로 와 멎었다.

우렁찬 만세소리는 하늘땅을 뒤흔드는듯하였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장 로동자들에게로 걸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마중나온 로동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동무들이 그리워 왔다고, 다친데는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로동자들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공장구내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모든것이 마사지고 온 구내가 파헤쳐져서 한걸음도 마음놓고 옮겨디딜수 없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막대기로 재무지도 헤쳐보시고 허리부러진 쇠기둥도 두드려보시면서 천천히 걸으시였다. 제철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이 험한곳에 수령님을 모시게 된 괴로움을 안고 그이의 뒤를 따랐다.

재더미로 된 제철소구내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나지막한 언덕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풀이 무성한 평로자리를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을 복구하자고 해도 철이 있어야 하고 집을 짓자고 해도, 천을 짜자고 해도 강철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평로를 복구해서 강철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힘을 믿으시고 평로를 본래것보다 두배 더 크게 세우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때 한 용해공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로동자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믿음에 차신 어조로 꼭 그렇게 하자고, 나는 동무들이 반드시 그렇게 할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집들이 있던 월봉산기슭이 바라보이는곳에 이르시자 다시 걸음을 멈추시였다.

전쟁전에 있던 집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지고 불에 타다 남은 벽체들과 굴뚝만이 보일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몹시 괴로우신 마음으로 로동자들에게는 지금 집이 없다고 한마디 하시고는 더 말씀을 잇지 못하셨다.

이때 한 로동자가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 자기들이 더 훌륭한 살림집을 꾸리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믿음에 찬 눈길로 그 로동자를 돌아보시면서 그래야 한다고, 미국놈들이 파괴한 작은 평로자리에는 더 큰 평로를 세우고 초가집자리에는 벽돌집을 지어서 복구건설에서도 미국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로동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헤여지기 서운해하는 로동자들에게 동무들의 곁을 떠나고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흔들어주시고 차에 오르시였다.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보는 로동자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문법

돌받침 읽기

ㄱㅅ(돇)>ㄱ(목)

ㄴㅈ(앉다)>ㄴ(안따)

ㄹㅅ(돐)>ㄹ(돌)

ㅂㅅ(없다)>ㅂ(업따)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후 처음으로 황철을 찾아주신것은 언제입니까?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철소를 찾아주셨을 때 공장형편은 어떠하였으며 로동자들은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왜 강철을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미국놈들에게 어떻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하셨습니까?
2. 다음 동사들의 구조를 밝히고 그와 같은 구조의 동사들을 3개이상씩 드시오.

   알려주다, 불타버리다, 피여오르다, 찾아가다, 늘여놓다, 긁어모으다
3. 동사의 상형태를 바꾸고 다음의 단어결합들을 그에 맞게 고치시오.

   휴식이 끝나다, 유리가 마사지다, 열이 오르다, 땅을 파다, 마음을 놓다
4. 다음의 단어들과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아는데까지 찾아쓰고 그것으로 문장을 각각 2개이상씩 지으시오.

   마사지다, 건설하다, 달려오다, 던지다, 그립다, 상하다
5. 다음의 문장들에서 밑줄을 그은 단어를 묶음표안에 밝힌대로 바꾸고 그에 맞게 문장을 고치시오.
   1)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u>조선인민의</u> (주어로) 빛나는 승리로 끝났다.
   2) 다 마사진 <u>제철소구내의</u> (술어로) 여기저기에서 아직도 연기가 피여오르고있었다.
   3)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로동자들의 힘을 굳게 <u>믿으시고</u> (규정어로) 평로를 본래의것보다 두배 더 크게 세우자고 말씀하시였다.
6.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넋, 삯, 없다, 앉고, 돐, 돐이, 값
7. 본문을 여러번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 5 1 과. 진달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팔레스티나대표부의 한 일군이였던 무스타파 싸파리니에게는 진달래라는 외동딸이 있다.

그가 조선의 꽃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데는 뜻깊은 사연이 있다.

원래 싸파리니부부에게는 결혼후 10년이 되였어도 자식이 없었다.

가정의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얼굴에는 항상 그늘이 비껴있었다.

그러던 어느해 그들부부는 중동의 어느 한 나라에 잠시 머물러있을 때 주체조선의 수도 평양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현대적설비를 갖춘 훌륭한 산원이 일떠섰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였다.

더우기 그들을 흥분시킨것은 평양산원이 녀성들의 해산을 방조하는 시설만 갖춘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낳지 못하는 녀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며 산모들의 건강까지 돌보는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라는것이였다.

싸파리니부부는 마음속으로 조선을 더욱 동경하며 하루빨리 평양산원에 가보고싶었다.

그러던 주체72(1983)년 9월 무스타파 싸파리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재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부에서 일하게 되였다.

그의 안해는 곧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은정깊은 사랑과 배려에 의하여 평양산원에 입원하게 되였다.

평양산원의료집단은 온갖 지성을 다하여 치료해주었다.

그리하여 그의 안해는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병을 완치하고 마침내 귀여운 딸애를 낳게 되였다.

싸파리니부부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결혼후 10년가까이 기다리던 어린애를 받아안게 된 그들부부는 자식의 미래를 축복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싶었다.

팔레스티나사람들은 예로부터 아이가 태여나면 마을에서 학식이 많고 존경받는 년장자나 교회의 신부를 찾아가서 이름을 지어오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낡은 관습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

자기 가정에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새 생명이 태여나도록 배려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였다.

그리하여 싸파리니부부는 자기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드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뜨거운 감사와 흠모의 정이 넘치는 그들의 편지를 받으시고 조선에서 태여난 그 딸애의 이름을 《진달래》라고 지어주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반겨맞이한 진달래,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 올렸다는 충성의 꽃의 이름이 자기 딸애의 이름으로 된데 대하여 그들부부는 더없는 기쁨과 긍지를 느끼였다.

그들부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기들의 소원을 풀어주신데 대하여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고 딸애를 충실한 투사로 키우겠다고 다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후에는 진달래의 첫돌생일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귀중한 선물까지 안겨주시였다.

정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뜨겁게 미치고있다.

문 법

둘받침읽기

ㄶ(않다) — ㄴ(안타)

ㅀ(앓다) — ㄹ(알타)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싸파리니부부의 얼굴에는 왜 그늘이 비껴있었습니까?
   2) 싸파리니부부는 왜 평양산원에 가보고싶었습니까?
   3) 싸파리니부부는 왜 감격을 금치 못하였습니까?
   4) 싸파리니부부는 어떤 결심을 다지였습니까?
2. 다음의 문장을 두개의 문장으로 나누시오.
   1) 조선주재 팔레스티나대표부의 한 일군이였던 무스타파 싸파리니에게는 《진달래》라는 외동딸이 있다.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뜨거운 감사와 흠모의 정이 담긴 그들의 편지를 받으시고 조선에서 태여난 그 딸애의 이름을 《진달래》라고 지어주시였다.
   3) 그들부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자기들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친히 딸애의 이름을 지어주신데 대하여 감격을 금치 못해하면서 딸애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충실한 투사로 키우겠다

고 다짐하였다.

3. 본문에서 형용사를 모두 찾아내고 그 형용사가 규정어로 될 때와 상황어로 될 때 그와의 단어결합형태를 각각 다섯개이상씩 쓰시오.
4. 다음의 표현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얼굴에 그늘이 비껴있다, 감격을 금치 못하다
5.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많다, 많고, 끓다, 옳다, 잃다, 싫다
6. 본문을 여러번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52과. 쪽잠과 줴기밥

잠은 쪽잠이 제일 달고 밥은 줴기밥이 제일 맛있다.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군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다.

바로 여기에도 분과 초를 쪼개가시며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려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주체66(1977)년 6월에 있은 일이다.

어느 한 중요대상건설장을 현지에서 밤새워 지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벽녘에야 귀로에 오르시였다. 승용차가 방금 건설장을 벗어났는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어느새 잠에 드시였다.

불면불휴의 활동속에 집무실에서 밤을 지새운데 이어 전날에는 종일 여러 단위의 사업을 보살펴시고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건설사업을 지도하시느라 피로가 겹쌓이시였던것이다.

승용차가 10분정도 달리였을 때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의자등받이에서 몸을 일으키시였다. 동행한 일군이 아쉬운 마음으로 쪽잠을 자고나면 안잔것만 못하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이전에는 쪽잠맛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것을 몰랐다가 일감이 쌓이고 정 졸음이 올 때마다 의자에 앉은채로 잠간씩 눈을 붙이군하였는데 그때부터 쪽잠을 알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쪽잠은 잠으로서는 불만족스럽지만 피로를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좋은 단잠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쪽잠이 제일 달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줴기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주 드시는 도중식사이다.

어느날 한밤을 지새우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새벽녘부터 동해안일대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한낮이 다 되여 승용차가 어느 한 산굽이에 이르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여기서 간단히 요기나 하고 떠나자고 하시며 차를 멈춰세우시였다. 길옆에는 일행이 둘러앉을만한 바위가 하나 있었다. 모두들 바위우에 둘러앉았다.

식사라야 매 사람에게 두덩어리씩 차례진 줴기밥이였다. 무우오가리와 절인 오이, 까나리를 밥반찬으로 속에 넣은 간소한 줴기밥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줴기밥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맛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야외에서 드는 식사라 모두들 별맛이라고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길을 떠날 때에는 줴기밥을 싸가지고 다니다가 먹는것이 제일 좋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줴기밥은 준비하기 쉬워서 좋고 시간도 얼마 잃지 않고 현지일군들이나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서 좋다고 하시면서 줴기밥은 혁명가들에게서 리상적인 도중식사라고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고서야 일군들은 줴기밥맛이 제일이라는 그이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되였다.

쪽잠과 줴기밥.

조선말사전에 짧은 틈을 타서 자는 잠으로, 속에 반찬감을 넣고 손에 들고 먹을수 있게 쥐기를 지은 밥덩이로 풀이되여있는것이 쪽잠과 줴기밥이다.

이러한 쪽잠이 달면 얼마나 달고 줴기밥이 맛있으면 또 얼마나 맛있겠는가.

그러나 하루가 24시간밖에 되지 못하는것을 안타까와하시며 무한한 정력으로 혁명의 1분 1초를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쪽잠과 줴기밥을 제일가는것으로 여기시며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였다.

문법

줄기모음의 교체

용언줄기의 끝소리가 《ㅡ》로 끝난 경우에 모음토 《아/

어》가 첨가되면 줄기의 끝모음 《ㅡ》는 《ㅏ/ㅓ》로 교체된다.

바쁘(다)+아서>바빠서
기쁘(다)+어서>기뻐서
쓰(다)+어+보다>써보다
뜨(다)+어+나다>떠나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이 이야기는 언제 있은 일입니까?
   2)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족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였습니까?
   3)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쾌기밥이 어떻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까?
2. 본문에 있는 동사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것들과 명사의 결합형태를 5개이상 드시오.
3. 다음 두 단어들이 함께 들어가게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뜨겁게, 벌려나가다
   —족잠, 간단히
   —관철하다, 일떠세우다
4. 다음 단어들에 토(아서/어서/여서)중에서 알맞는것을 붙이시오.
   나르다, 이르다, 누르다, 가르다, 다르다, 오르다, 나쁘다, 아프다, 예쁘다
5.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53과. 쌍 무 지 개

무지개는 자연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현상이다.

백두산에는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비끼군한다.

이 아름다운 쌍무지개를 두고 사람들속에서는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나라가 해방되기 몇해전에 있은 일이다.

백두산줄기의 어느 한 산골짜기의 작은 마을에는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앓고있는 아버지를 위해 애쓰고있는 쇠동이라는 총각이 살고있었다.

쇠동이는 아버지의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병은 점점 더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쇠동이는 마을의 한 의원으로부터 아버지 병에는 황생초라는 약초가 제일인데 그 약초는 무지개빛을 두번이상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쇠동이는 곧 길을 떠났다.

그는 예로부터 명약이 많다는 백두산쪽으로 향하였다.

산에서 눈을 헤치고 약초를 찾아보았다.

열흘째 되는 날이였다.

이날도 하루종일 생눈을 헤치던 그는 저녁무렵에 너무도 힘들어 그 자리에 쓰러졌다.

시간이 퍼그나 흘러 어둠이 깃들었다.

어둠속에서 백두산마루를 쳐다보니 솜같은 구름이 피여오르고있었다. 이윽고 구름이 말끔히 가셔지고 새로운 장수별이 반짝이며 유별나게 빛을 뿌리고있었다.

전에 볼수 없었던 별빛이 하도 밝아 쇠동이는 백두산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백두산이 가까와올수록 길이 험하여 점점 걸음이 떠졌다.

이때 어디선가

《기운을 내라. 기운을 내여 백두산에 솟은 별을 보라!》는 말소리가 울려왔다.

쇠동이는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로 솟은 백두산의 장수별이 번쩍하고 밝은 빛을 뿌렸다. 그는 그 빛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백두산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백두산마루에 오르니 밝은 빛이 온 골짜기에 쏟아져내렸다.

그는 눈을 뜰수 없어 두눈을 손으로 가리웠다가 다시 떴다.

그 순간 골짜기마다에는 파란 풀들이 꽃망울을 터치고있었다.

의원이 말하던 황생초였다.

그는 너무나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저 하늘가에 붉은 노을이 피더니 아름다운 쌍무지개가 비꼈다.

황생초에 쌍무지개가 비쳤으니 무지개빛을 두번 받은셈이였다.

쇠동이는 약초를 정히 캐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다.

쇠동이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런 일도 있느냐?》하며 눈물만 흘렸다.

쇠동이가 황생초를 달여 아버지한테 대접하니 아버지 병은 곧

나왔다.

쇠동이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이 퍼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쇠동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한 로인은 흰수염을 내리쓸며 《며칠전에 맑게 개인 백두산에 여느때 볼수 없었던 쌍무지개가 온 강산을 아름답게 비쳤으니 가난한 우리들이 이제는 밝은 세상을 보게 되였다.》고 신심에 넘쳐 말하는것이였다.

옆에서 로인의 말을 듣고있던 한 젊은이는 자기가 아래마을 어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었는데 《백두산에 피여오른 쌍무지개는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이으실 백두광명성이 내린것이라고 하더군요.》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때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백두산에 쌍무지개가 비꼈으니 멀지 않아 조국이 광복되고 행복이 올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꿋꿋이 살았다.

문법

받침 《ㄳ, ㄺ, ㅋ, ㄲ》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ㄱ]으로 발음한다.

넋>넉
밝다>박따
부엌>부억
낚시>낙씨

—여기서 [ㄺ]은 그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토가 올 때 [ㄹ]로 발음한다.

맑(다)+고>말꼬
밝(다)+고>발꼬
붉(다)+고>불꼬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어느날 쇠동이는 의원으로부터 무엇을 알게 되였습니까?
2) 쇠동이가 백두산을 향해 걸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3) 로인의 말을 듣고있던 한 젊은이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2. 다음의 단어들과의 단어결합을 3개이상씩 쓰시오.
전체지다, 읽다, 지극하다, 쓰러지다, 유별나다, 다그치다, 대접하다

3. 본문에서 두 동사가 《—아/—어/—여》형태로 결합되여 쓰인 단어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 뜻을 설명하시오.
4.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밖, 깎다, 밝다, 닭, 흙, 붉다, 남녘, 넋, 붉고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10개문장으로 이야기해보시오.

제 5 4 과. 《시를 부를줄만 압니다》

김삿갓은 19세기중엽에 활동한 조선의 이름있는 풍자시인이다.

원래 이름은 김병연인데 삿갓을 쓰고 방랑생활을 한데로부터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죄를 지은 량반가족이라고 하여 벼슬을 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그들을 야유하는 시를 많이 썼다.

이 일화는 김삿갓이 금강산에 갔을 때 있은것이다.

그가 허줄한 옷을 입고 내금강의 만폭동쪽으로 가는데 나무그늘아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고아대고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량반들이 모여앉아 글짓기내기를 하고있었다. 호기심이 나서 삿갓이 가만히 그곁에 앉아 들어보았다. 그런데 금강산을 노래한다는 그들의 시는 빈소리뿐이였고 앞뒤도 맞지 않았다. 삿갓은 더 들을수 없어 그들앞에 나서서 한수 읊었다.

나는 청산이 좋아 들어가는데
록수야 너는 어이하여 나오느냐

삿갓이 이렇게 한수 읊고 떠나려는데 량반들이 그를 불러세웠다. 옷은 허줄하게 입었으나 그가 읊는 시가 보통이 아니였던것이다.

《당신도 시를 즐겨하는것 같은데 우리와 같이 시짓기내기를 하지 않겠소?》

한 량반이 김삿갓에게 말하였다.

《저는 시를 지을줄은 모르지만 부를줄은 압니다.》

《시를 부를줄만 안다? 그것 참 흥미있군. 그럼 불러라도 보게.》

《그럼 내 시를 부를테니 써보시구려.》

삿갓이 량반들속에 들어앉으며 이렇게 말하니 곁에 있던 량반이 붓을 들고 삿갓을 바라보았다.

《자, 어서 부르게나.》

《예.》하고 삿갓은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소나무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는가요?》하고 물었다.

《있지.》

《그럼 그 두자를 나란히 쓰시오.》

《자, 두자를 썼네.》

삿갓은 다시 잣나무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으면 그옆에다 그 두자를 나란히 쓰라고 하였다.

이어 삿갓은 바위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으면 두자를 더 쓰라하고 그옆에다는 돌아간다는 글자를 한자 덧붙이라고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삿갓은 글을 바꾸어서 산과 물을 가리키는 글자, 이곳저곳을 가리키는 글자를 각각 두자씩 나란히 쓰게 하고는 마지막에는 기이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가 있으면 하나 더 붙여놓으라고 하였다.

다 쓰고난 량반은 성을 내며 소리쳤다.

《여보, 내가 시를 부르라고 했지 언제 이런것들을 부르라고 했소?》

김삿갓은 그 량반을 보고 빙긋이 웃더니

《그러기에 나는 시를 부를줄만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자로 시를 짓는 량반들이 적어놓은 시도 모르겠다니 낸들 어찌겠소? 그러면 제가 량반님들과 시겨루기에 대상이 못되는것 같으니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삿갓은 이런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삿갓의 태도에 의아해진 량반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머리를 맞대고 그가 부른 시를 다시 읽어보았다.

《아하. 이야말로 명시로구나.

소나무, 잣나무, 바위돌이 뒤섞인 사이를 돌아다니니

산은 산마다 물은 물마다 곳곳이 기이한것뿐이로구나.》

시의 뜻을 새기며 감탄하던 량반들은 멀어져가는 김삿갓을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문법

닮기현상이 일어날 때 읽기

받침 《ㄷ, ㅌ》뒤에 《이》가 올 때 그 《이》는 각각 [지, 치]로 발음한다.

해돋(다)+이>해도지

갈(다)+이>가치

붙(다)+이+다>부치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김삿갓은 언제 활동한 시인입니까?
   2) 김삿갓은 어떤 방법으로 시를 지었습니까?
   3) 김삿갓이 지은 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다음의 문장들에서 물음표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형태로 고치시오.
   1) 김삿갓이 (허줄하다) 옷을 (입다) 내금강의 만폭동쪽으로 (가다) 나무그늘아래서 사람들이 (모이다) (고아대다)있었다.
   2) 김삿갓은 잣나무를 (가리키다) 글자가 (있다) 그옆에다 그 두자를 나란히 (쓰다) 하였다.
3. 본문에서 두개이상의 동사가 결합된 단어들을 모두 찾고 그것으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4.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옮김법으로 된 문장들을 풀어옮김법으로 된 문장들로 고치시오.
5.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읽으시오.
   멀이, 끝이, 밭이, 맏이, 곧이
6. 본문을 읽고 재미나는 부분을 자기 말로 이야기하시오.

제55과. 렬차원처녀가 받은 생일상

주체59(1970)년 8월 어느날 한 렬차승무조는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자기들의 렬차에 모시게 되였다.

이날 렬차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렬차승무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한 렬차원처녀에게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살이고 생일은 언제인가, 부모들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처녀는 자기 이름과 나이, 생일과 함께 부모들은 전쟁때 희생되였다는것을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처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우 가슴아파하시며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처녀와 렬차승무원들에게 일을 잘하라고 말

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난 어느날 그들은 또다시 현지지도를 떠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자기들의 렬차에 모시게 되였다.

렬차가 어느 한 역을 지났을 때였다.

렬차원처녀는 차안의 온도를 보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는 응접실안에 들어섰다.

그런데 온도가 쑥 올라가있어 처녀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달리는 렬차안에서도 수많은 문건들을 보시며 정력적으로 사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방해될것 같아 처녀가 자주 드나들기를 주저했던 사이에 차안의 온도가 올라갔던것이다.

처녀는 곧 선풍기를 돌리려고 서둘렀다.

그때까지 차안의 더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문건을 보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보시고 바깥날씨가 더운데 차안인들 왜 덥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오늘이 며칠이냐고 처녀에게 물으시였다.

처녀가 9월 1일이라고 대답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그러니 래일모레가 9월 3일이겠다고 하시며 그들이 언제 평양으로 돌아가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던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인차 돌아가겠으니 그때까지 이곳에서 모두 휴식하다가 같이 평양에 올라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사흘째 되는 날 렬차원처녀는 다시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떠나게 되였다.

그날 한낮이 되여올무렵이였다.

처녀는 그이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처녀가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그이께서는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은 식탁앞에 마주앉아계시였다.

처녀는 식사시간에 찾아온것이 송구스러워 돌아나오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렬차원을 부르시고 기다렸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오늘이 저 렬차원동무의 생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처녀는 깜짝 놀랐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너무나 감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는 처녀렬차원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며 부모가 없으니 누가 생일을 쇠주겠소, 우리가 쇠주어야지 하시면서 친히 자리에 앉혀주시였다.

처녀는 끝내 흐느끼고야말았다.

렬차가 평양역에 들어서자 처녀가 차에서 내릴 준비를 할 때였다.

한 일군이 처녀에게 당과류꾸레미를 안겨주는것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에게 처녀의 어머니가 있다면 딸의 생일날이니 동무들을 집에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을것인데 어머니가 없으니 우리가 뭘 좀 손에 들려서 보내야 할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녁에 합숙생들과 함께 하라고 이것을 보내도록 하신것이였다.

처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웨쳤다.

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

나에게는 친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

처녀렬차원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꼭 보답하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정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언제나 따뜻이 보살펴주고계신다.

문 법

코안소리되기

받침 《ㄷ, ㅅ, ㅈ, ㅊ, ㅌ, ㅆ》뒤에 자음 [ㄴ, ㅁ, ㄹ]가 이어질 때는 그 받침을 [ㄴ]로 발음한다.

받는다>반는다, 있는것>인는것, 웃느냐>운느냐,
발머리>반머리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렬차원에게 무엇을 물어보시였습니까?
   2) 렬차원처녀는 왜 흐느껴울었습니까?
   3) 렬차원처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웨쳤습니까?
2. 틀린 문장을 고치시오.
   1) 나는 휴식할 때 라지오로 노래를 듣는것이 좋아합니다.
   2) 책상우에 여러가지 책이 놓았습니다.
   3) 기침을 나면 약을 잡수십시오.
   4) 갑자기 그는 할 일을 생각났다.
   5) 나는 배가 아파서 의사선생님을 가보았다.

3. 본문에서 물음을 나타내는 맺음토들을 모두 찾고 그것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4. 다음의 이음토들로 시킴문을 각각 만드시오.
다가, 면서, 고, 니

5. 다음의 단어들과 같거나 비슷한 말들을 찾아보시오.
생일, 렬차, 부르다, 희생되다, 휴식하다, 당부

6.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닫는다, 밭머리, 잊는다, 맞나, 붓는다, 늦는다, 찾는다, 쫓는다, 갈니

7.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56과.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은 혁명의 수도 평양의 룡남산일대에 자리잡고있다.

룡남산마루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는 불멸의 혁명시가 《조선아 너를 빛내리》의 명제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판,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현지말씀판이 정중히 건립되여있다.

대학앞에는 금성거리가 있다.

대학뒤에는 경치가 아름다운 모란봉이 있고 그 밑으로는 맑은 대동강이 흐른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백두산 3대장군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자랑스러운 대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5(1946)년 10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창립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직후 나라형편이 매우 어려웠지만 민족간부문제를 새 사회 건설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종합대학을 먼저 세우도록 하시였다.

종합대학은 창립 첫날부터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훌륭한 대학으로 자라났다.

수령님께서는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면서도 몸소 종합대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수백여차의 현지교시와 100여차의 현지지도를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시였다.

또한 종합대학에 와서 공부하고있는 외국류학생들의 기숙사도 돌아보시고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인민의 념원속에 창립된 **김일성**종합대학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민족간부를 키워내는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되게 하시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시였다.

또한 대학생들을 자주 만나시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교양하시였다.

종합대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대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9(1960)년 9월부터 주체53(1964)년 3월까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였다.

대학에 령도의 첫 자욱을 옮기시던 그날, 주체49(1960)년 9월 1일 룡남산마루에 오르신 장군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시가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읊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에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리론실천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또한 교직원, 학생들의 친근한 스승이 되시여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돌봐주시였다.

대학의 넓은 구내에는 본교사, 1호교사, 2호교사, 과학도서관, 체육관, 학생기숙사를 비롯한 현대적건물들이 있다.

대학은 경제학부, 력사학부, 철학부, 수학부, 물리학부, 화학부, 자동화학부를 비롯하여 15개 학부를 가지고있다.

대학에는 많은 강좌와 연구실, 연구소 그리고 박사원이 있다.

대학본관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관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적관이 정중히 꾸려져있다.

또한 선물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동식물표본들이 수많이 진렬되여있다.

대학도서관은 1만 2천여평방메터의 넓이를 가진 현대적인 건물인데 거기에는 200만여권의 책들이 있다.

도서관은 1천여명의 대학생들을 수용할수 있는 일반열람실과 신문, 잡지 열람실, 여러개의 특수열람실이 있다.

대학에는 이밖에도 크고 작은 규모의 연구소와 공장들이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당과 국가, 과학문화기관의 중요부문에서 일하고있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졸업생이라는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잘하고있다.

종합대학을 졸업한 류학생들도 자기 나라에서 중요한 부문의 일군으로 일하고있다.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속에서 훌륭히 발전하고있다.

문법

코안소리되기

받침 《ㄱ, ㅋ, ㄲ》뒤에 자음 [ㄴ, ㅁ, ㄹ]이 이어질 때 그 받침을 [ㅇ]으로 발음한다.

복무>봉무, 부엌문>부엉문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김일성**종합대학은 언제 창립되였으며 창립될 때 나라의 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종합대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였습니까?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 첫 령도의 자욱을 옮기시던 그날 어떤 시를 읊으시였습니까?
   4) 김정숙동지께서는 종합대학의 강화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시였습니까?
   5) **김일성**종합대학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으며 학부는 몇개 있습니까?
2. 본문에서 뜻반대말을 가질수 있는 단어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에 해당한 뜻반대말을 쓰시오.
3. 본문에서 동사, 형용사의 규정형과 결합되는 단어결합들을 모두 찾아쓰고 그것을 다른 형태의 결합으로 고치시오.
4. 다음의 문장들에서 밑줄을 그은 단어들을 규정어(또는 술어)로 바꾸고 그에 맞게 문장을 고치시오.
   1) 우리가 <u>돌아본</u> 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은 본교사뒤에 있었습니다.
   2) **김일성**종합대학은 3대장군의 령도업적이 <u>깃들어있는 자랑스러운 대학이다.</u>
   3) 자연박물관에 <u>전시되여있는</u> 수많은 표본들은 모두 조선의 산과 들, 바다와 땅속에 있는 동물, 식물, 광물들로 <u>만든 것입니다.</u>
5.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혁명, 식료품, 막는다, 가족모임, 깎는다, 꺾는다
6.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6개 문장으로 이야기하시오.

제 5 7 과. 원숭이가 맨 넥타이

음흉한 승냥이놈이 동산을 자주 싸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착한 짐승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러나 원숭이만은 코웃음을 쳤다.

(제깐놈이 아무리 음흉하다 해도 나무에 기여오르는 재간이 없는 이상 나를 다치지 못할걸.)

원숭이는 나무에 잘 오르는 제 재간만 믿고 승냥이놈쯤은 별치 않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원숭이가 키높은 나무가지에 앉아있는데 먼곳에서 승냥이놈이 걸어오고있었다.

(흥, 네놈이 암만 싸다녀도 나를 어쩌지 못할걸.)

원숭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승냥이가 그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놈의 목에 넥타이 같기도 하고 목걸이 같기도 한 길다란것이 매여져있는것이였다.

원숭이가 찬찬히 보니 그것은 긴 넥타이였다.

《이 바보야, 넥타이를 땅에 끌고다니다니?》

《흥, 이게 바로 요즘 류행되고있는 신식넥타이야, 멋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네가 이런것도 모르나?》

승냥이놈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원숭이를 쳐다보았다.

원숭이는 불쑥 그 넥타이가 마음에 들었다.

(저 넥타이를 빼앗아 내가 매고다닌다면 아마 다른 짐승들이 깜짝 놀랄거야.

이 원숭이가 승냥이놈쯤은 데리고 논다는걸 보여줘야지.)

원숭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승냥이놈의 넥타이를 빼앗아내리라

결심하였다.

《승냥이야, 거기 좀 서라, 그 넥타이를 내가 한번만 매보자.》

《안돼, 네가 내 넥타이를 빼앗자고 그러지?》

승냥이놈은 뒤한번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도 믿지 못한다구야, 그저 한번 매보고 줘.》

원숭이는 간절하게 부탁하였다.

《그럼, 꼭 도루 줘야 해.》

승냥이놈은 더는 못이기는체하며 넥타이를 벗어 나무우로 던져주었다.

원숭이는 그 넥타이를 냉큼 받아쥐고 얼른 목에다 매여보았다.

바로 그 순간이였다.

승냥이놈이 쏜살같이 나무밑으로 뛰여들며 땅에 닿아있는 넥타이끝을 힘껏 당기였다.

그바람에 원숭이는 나무가지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어리석은 원숭이야, 이게 바로 네놈과 같이 잔재간만 믿는 놈들을 잡는 올가미야.》

승냥이놈은 너털웃음을 쳤다.

그제야 원숭이는 승냥이놈에게 속았다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넥타이가 아니라 긴 바줄이였다.

(승냥이놈이 이렇게 음흉하다는걸 내가 왜 몰랐을가.)

원숭이는 제 잘못을 통탄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문법

코안소리되기

받침 《ㅂ, ㄼ, ㅄ, ㅍ》뒤에 자음 《ㄴ, ㅁ, ㄹ》이 이어질때 그 받침을 [ㅁ]로 읽는다.

법령>범령	없는것>엄는것
밟는다>밤는다	앞마을>암마을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착한 짐승들은 왜 정신을 바싹 차렸습니까?
   2) 원숭이는 왜 승냥이를 별치 않게 생각하였습니까?
   3) 원숭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승냥이가 나타났습니까?
   4) 원숭이는 승냥이가 맨 넥타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5) 승냥이는 원숭이를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2. 본문에 있는 바로옮김법으로 된 문장을 풀어옮김법으로 된 문장으로 고치시오.
3. 다음 단어들과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찾고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만드시오.
   음흉하다, 닿다, 부탁, 결심하다, 찬찬히, 자주
4. 본문에서 불완전명사들을 모두 찾고 그 단어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5.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톱날, 앞날, 읊는다, 없는, 값문, 값, 십리
6.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58과. 어머님과 한홉의 미시가루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생겨난 한홉의 미시가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천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그 한홉의 미시가루에는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에 대한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주체27(1933)년 12월상순경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가 남패자를 떠날 때였다.

행군에 앞서 새 무기와 탄약, 솜을 두툼히 넣은 겨울군복과 새 내의, 신발, 행전, 미시가루 등이 들어있는 꾸래미를 받는 대원들의 기쁨은 컸다.

하지만 김정숙동지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령부식량때문이였다.

그해따라 눈보라는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불었고 추위는 령하 40도를 오르내리였다. 적들은 이번 《동기토벌》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완전소멸》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병력을 끌어들였다.

식량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대오와 함께 남패자를 떠나시는 김정숙동지의 얼굴에는 행군기간 어떻게 하면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보장해드릴수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근심이 어려있었다.

행군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적들과 하루에도 몇차례씩이나 어려운 전투를 하면서 대오는 전진하였다. 식량도 점점 떨어졌다.

그러던 어느 휴식시간때였다.

자신의 몫으로 차례진 미시가루를 놓고 오래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그마한 주머니를 꺼내시더니 한술가락 덜어넣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모진 굶주림을 이겨내시며 한술가락, 두술가락 모으신 미시가루는 차츰 늘어났다.

얼마 지나서 부대의 식량과 함께 비상용미시가루마저도 다 떨어졌다.

식량을 구할 길도 없었다.

김정숙동지의 작은 주머니에는 불과 한홉정도의 미시가루가 있었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넘으시면서 모으고 아껴오신 그 미시가루는 김정숙동지의 배낭속 깊은곳에 누구도 모르게 간직되였다.

모진 굶주림은 점차 전진하는 행군대오를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행군하시면서 대원들을 위해 먹을수 있는것이라면 묵은 풀잎도 뜯으시고 마른 열매도 따시였고 깊은 눈을 헤치고 풀뿌리도 캐시였다. 그러나 그 미시가루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으시였다.

행군이 시작되여 한달만인 그 이듬해 1월초 부대가 장백현 7도구치기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받고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과 로약자들을 데리고 청봉밀영으로 들어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시였다. 떠나기 앞서 한 전령병을 조용히 부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뜻깊은 미시가루주머니를 그의 손에 꼭 쥐여주시며 《한홉이 되겠는지… 정 요긴할 때 사령관동지께 대접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시였다.

사령관동지를 위해 어려운 고비를 넘으시면서도 정히 보관하시고 아끼시던 그 한홉의 미시가루는 이렇게 전령병에게 넘겨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께서는 그 언제나 자신께만 특별한 음식이 차례지시면 드시지 않아요. 그러니 동무들이 방법을 잘 써야 해요.

우리는 언제나 사령관동지께서 건강하셔야 조선혁명이 승리할수 있고 우리의 밝은 미래도 있다는걸 잊지 말아야 해요.》라고 하시며 전령병의 배낭에 미시가루주머니를 깊숙이 넣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행군이 아무리 어려워도 동무들은 사령관동지의 건강과 신변보위를 책임지고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신신당부하시며 전령병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청봉밀영으로 떠나시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시는 백두의 녀장군의 뜨거운 마음은 그 한홉의 미시가루에 담겨져있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예견하신대로 부대는 그후 며칠째 낟알구경도 못하고 맹물을 끓여마시거나 생눈을 먹으면서 행군하게 되였다.

어느 휴식시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령병으로부터 그 한홉의 미시가루에 대한 뜻깊은 사연을 듣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정숙동무가 그랬단말이지라고 하시며 더 말을 잇지 못하시였다.

정말 김정숙동지는 불보다 뜨거운 충효심과 혁명적동지애를 지니신분이시였다.

문법

빠지기현상

말줄기끝의 《ㅎ》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붙이 앞에서 발음하지 않는다.

넣(다)+어+주다>너어주다
많(다)+아+지다>마나지다
싫(다)+어+지다>시러지다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전령병에게 어떤 부탁을 하시였습니까?
   2)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얼굴에는 왜 근심이 어려있었습니까?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전령병의 배낭에 미시가루주머니를 넣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였습니까?
2. 다음의 문장들을 두개의 문장으로 나누시오.
   1)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과업을 받고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대원들과 로약자들을 데리고 청봉밀영으로 들어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시였다.
   2) 자신의 몫으로 차례진 미시가루를 드시고 오래동안 생각에 잠겨계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그마한 주머니를 꺼내시더니 한술가락 덜어넣으시였다.
   3) 김정숙동지께서 예견하신대로 부대는 그후 며칠째 낟알구경도 못하고 맹물을 끓여마시거나 생눈을 먹으면서 행군

하게 되였다.

3. 본문에서 형용사들을 모두 찾고 그와의 단어결합을 3개이상씩 드시오.
4.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두툼히, 세차다, 충분하다, 굶주림, 점차, 불과, 정말
5.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낳았다, 넣으니, 놓았다, 놓으니, 쌓았다, 쌓으니
6. 본문을 여러번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시오.

제 5 9 과. 이마벗어진 앵무새

옛날 어느 산기슭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 봉남이라는 아이가 할아버지, 누나와 함께 살고있었다.

봉남이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팔기도 하고 농사짓는 할아버지와 집안일을 맡아하는 누나의 일손을 돕기도 하였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봉남이는 새들도 무척 사랑하였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였다.

그날도 봉남이는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갔다.

나무를 한지게 한 그는 쉬고가자고 그늘진 나무밑으로 들어섰다.

《에―더워!》

봉남이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때

《에―더워!》하고 그의 말을 따라하는 소리가 들렸다.

봉남이는 누가 남의 말을 따라하는지 알고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그거 참 이상한데?… 내가 잘못 들었나?…)

봉남이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잔디우에 발을 쭉 펴고 앉았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몸을 식혀주었다.

《에―시원해!》

봉남이는 옷을 헤치며 중얼거렸다.

그러자 《에―시원해!》하고 그의 말을 따라하는 소리가 또 들렸다.

(누구일가?)

봉남이는 나무우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나무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리의 새가 앉아있었다.

처음 보는 새인데 아주 아름다웠다.

《네가 내 말을 따라했니?》 봉남이가 이렇게 말하자 새도 《네가 내 말을 따라했니?》하고 되물었다.

《내가 따라하지 않았어, 네가 따라했지?》하고 봉남이가 말하자 새도 같은 말을 하였다.

(저게 말잘한다는 앵무새이구나!)

봉남이는 새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왔다.

부엌에서 일하던 누나는 새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봉남이는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고 할아버지의 일손을 도우려고 밭으로 나갔다.

누나도 밥상을 차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모이를 다 먹은 앵무새는 방에서 나오는 구수한 냄새에 더는 참지 못하고 밥상 한끝에 살짝 내려앉았다.

앵무새는 뜨끈한 국에 부리를 조심히 대였다가는 떼고 대였다가는 떼군하면서 조금 맛보았다.

참으로 국이 맛있었다.

이때 밖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앵무새는 화닥닥 날개를 쳤는데 국이 날개에 맞아 튀여오르면서 앵무새의 이마에 들씌워졌다.

앵무새는 너무나 따가워 비명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가 조롱속에 들어가앉았다.

더운 국에 덴 이마에서는 털이 빠지고 매끈매끈한 살가죽만 드러났다.

이때 누나가 봉남이랑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방안으로 들어와 상에 마주앉은 봉남이는 자가 국그릇이 넘어진것을 보았다.

봉남이는 의문스러워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조롱속에 있는 이마벗어진 앵무새를 보고 까닭을 알게 되였다.

《너 이놈, 이마가 벗어진것을 보니 국을 도적질해 먹었구나!》

봉남이는 조롱앞에 다가가 앵무새를 꾸짖었다.

그리고 간장을 가져다가 벗어진 이마에 발라주고 입김을 호호 불어주었다.

한참후에야 앓음소리를 그친 앵무새는 물을 마시려고 샘터로 날아갔다.

앵무새는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였다. 순간 벗어진 이마가

맑은 물에 비끼였다.

(국을 도적질해 먹으면 이마가 벗어지는구나…)하고 앵무새는 생각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후였다.

봉남이의 집에는 큰 경사가 났다. 고개너머 마을에서 일잘하고 끌끌하기로 소문난 덕쇠라는 젊은이가 누나와 혼사말이 난것이였다.

며칠후에 덕쇠 할아버지가 누나를 보러 봉남이네 집에 온다는 것이였다.

인물 곱고 마음씨 착하고 일잘하니까 덕쇠 할아버지가 와보면 첫눈에 마음들어할것이였다.

봉남이는 매우 기뻐하였다.

봉남이는 말잘하는 앵무새에게 인사말을 배워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앵무새를 보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길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앵무새는 그 말들을 잘 따라외웠다.

봉남이는 밥상에 마주앉아서는 《어서 드십시오.》, 《변변치 않습니다.》, 《많이 잡수십시오.》라는 말을 배워주었고 밖으로 나갈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라고 가르쳐 주었다.

앵무새는 그 말들을 모두 잘 따라외웠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덕쇠 할아버지가 누나를 보러 오는 날이 되였다.

봉남이 누나는 마을사람들이 시키는대로 옷을 곱게 차려입고 방 한구석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마침내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덕쇠 할아버지가 하늘소를 타고 봉남이네 집으로 찾아왔다.

봉남이 할아버지는 밖으로 달려나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늘소에서 내린 덕쇠 할아버지는 《어험!》하고 위엄있게 큰기침을 하며 뜨락으로 들어섰다.

손님이 들어서는것을 본 앵무새는 《안녕하십니까?》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뜻밖에 머리우에서 나는 인사말을 듣고 덕쇠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었다.

《어서 오십시오.》

앵무새는 또 인사말을 하였다.

그제서야 조롱속의 앵무새를 알아본 덕쇠 할아버지는 입을 하벌리였다.

《먼길에 수고하셨습니다.》

앵무새는 빨간 꼬리를 흔들거리며 다시 말하였다.

《음—이 집에선 새한테까지도 례절바르게 가르쳤구만.》

덕쇠 할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었다.

봉남이도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좋아진 덕쇠 할아버지는 머리에 썼던 갓을 벗어들고 부채질을 하였다.

순간 그의 이마가 해빛을 받아 거울처럼 번쩍거렸다.

덕쇠 할아버지의 이마는 솜털 한오리 없는 반들반들한 번대이마였다.

그것을 본 앵무새는 국을 훔쳐먹었다가 봉남이한테 꾸짖음을 받던 일이 생각나서 《너 이놈, 이마가 벗어진것을 보니 국을 도적질해 먹었구나!》하고 말하였다.

(뭐라구?…)

뜻하지 않은 소리에 덕쇠 할아버지는 앵무새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앵무새는 다시 크게 소리쳤다.

《너 이놈, 이마가 벗어진것을 보니 국을 도적질해 먹었구나!》

《뭐, 뭐, 뭐라구. 이 늙은것이 70평생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오면서도 남의 바늘 한개 거저 가진적이 없는데 국을 도적질해 먹었다구? 허허 참, 그놈이 못해보는 소리가 없군.》

덕쇠 할아버지는 허거프게 웃었다.

앵무새는 자기가 말을 잘해서 웃는줄 알고 《허허 참, 그놈이 못해보는 소리가 없군.》하고 따라외웠다.

《에끼, 이놈.》

덕쇠 할아버지는 발로 땅을 구르며 소리쳤다.

《에끼 이놈.》

앵무새도 한발을 들었다놓으며 되받았다.

《그만 닥치지 못해!》

덕쇠 할아버지는 크게 소리쳤다.

《그만 닥치지 못해!》

앵무새는 그대로 따라외웠다.

봉남이 할아버지는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성이 난 덕쇠 할아버지는 갓을 쓰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젠 더 들어갈 필요가 없소. 앵무새한테까지 그런 말을 가르쳐준 례절없는 집과 인연을 안맺겠소》

덕쇠 할아버지는 하늘소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봉남이 할아버지가 따라가며 사죄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외우는 새를 세상에서 제일 령리한 새로 생각한 내가 바보지!)

이렇게 생각한 봉남이는 앵무새를 안고 술그머니 산으로 올라갔다.

《이 아둔한 새야, 뜻도 모르고 말하는 너를 믿었다가 마음착한 할아버지랑 누나만 망신시켰으니 더는 함께 살 재미가 없구나, 어서 너 갈데로 가라!》

봉남이는 앵무새를 산속깊이 날려보내고말았다.

문법

된소리되기

받침 [ㄴ]뒤에 이어지는 토 《~다, ~고, ~지, ~기》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안고>안꼬
안다>안따
안지>안찌
안기>안끼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봉남이는 산에 갔다가 어떤 새를 잡아왔습니까?
   2) 앵무새는 왜 밥상에 내려앉았습니까?
   3) 봉남이의 집에는 어떤 경사가 생겼습니까?
   4) 봉남이는 앵무새에게 어떤 인사말을 배워주었습니까?
   5) 봉남이는 왜 기분이 좋았습니까?
   6) 덕쇠할아버지는 왜 허거프게 웃었습니까?
   7) 덕쇠할아버지는 왜 하늘소를 타고 가버렸습니까?
2. 틀린 문장을 고치시오.
   1) 저녁식사를 끝난 다음 곧 산보를 하였다.
   2) 박동무는 아마 어제밤에 오지 않았습니다.
   3) 겨울이지만 봄처럼 같습니다.
   4) 우리는 그를 대하여 말하였다.

   5) 영남동무와 리동무는 래일 창광원에 가겠습니다.
   6) 나는 매일 조선말을 3시간동안에 배웁니다.
3. 다음의 표현들로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마음씨 착하다, 경사가 나다, 마음에 들다
4. 본문에서 부사를 모두 찾고 그와의 단어결합을 3개이상씩 만드시오.
5.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6. 본문을 읽고 느낀 점을 말하시오.

제60과. 한 할머니의 나들이길에서 있은 이야기

주체46(1957)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황해남도 재령군 부덕리에 사는 한 할머니는 사위네 집에 다녀오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그날 날씨가 몹시 무더워 할머니는 저녁때에 집을 나섰다. 할머니가 큰길에 나서서 한참 걷느라니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할머니가 걸음을 다그치고있는데 승용차 한대가 속도를 늦추더니 할머니옆에 와서 멎었다.

승용차의 뒤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손님이 길을 묻자고 자기를 찾는것이라고 생각하며 차곁으로 다가갔다.

그때 차에서 어른 한분이 내리시며 할머니에게 어디에 가는가고 물으시였다.

할머니는 사위네 집에 간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 어른은 사위네 집이 어딘가고 물으시였다.

할머니는 그만 그전에 부르던 동네이름 그대로 사당골이라고 대답하였다.

할머니의 대답을 들으신 그분께서는 곧추 뻗은 큰길을 가리키시며 이 길로 곧추 가면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할머니는 사위네 집이 바로 큰길옆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는 할머니의 대답을 들으시고 할머니더러 차에 타라고 말씀하시였다.

할머니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여서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사위네 집까지 태워다주겠다고 하시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으시여 차안으로 이끄시였다. 할머니를 차에 태우신 그분께서는 할머니의 지팽이와 보짐까지 친히 받으시여 뒤창결에 놓아주시였다.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할머니는 차에 오르면서부터 이 고마운분이 누구인지 몹시 알고싶었다.

부드럽게 웃고있는 환한 얼굴, 수수한 옷차림… 어디선가 많이 본것 같은데 생각나지 않았다.

할머니가 푹신한 좌석에 조심스럽게 앉아 골곧 생각하고있는데 그분께서는 편안히 앉으라고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할머니더러 차를 타면 멀미를 하지 않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식구는 몇인가, 모두 무슨 일을 하는가, 지금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가정형편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으시였다.

할머니는 그분께서 너무나 친절히 대해주시는바람에 어려움도 잊고 모든것을 말씀드렸다.

해방전에 할머니네 가족은 정말 어렵게 살았다. 하루 한끼도 배부르게 먹어보지 못했으며 추운 겨울에도 다 해진 옷을 입고 지냈다. 자식들은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였다.

해방이 되자 할머니네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거저 주신 땅에서 농사를 마음껏 지어 부자가 되고 아들딸들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시켰다. 정말 세상에 부러운것이 없이 살아왔다.

그분께서는 할머니의 맏아들을 전쟁때 미국놈들이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몹시 격분해하시며 그 미국놈들은 꼭 망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할머니더러 지난날에는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좋은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라고 하시였다.

할머니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도 고마와서 아무 대답도 드리지 못하고 그저 두손으로 그분의 손을 꼭 쥐였다.

할머니는 그분과 헤여질 때 그저 내릴수가 없어 이렇게 고마우신분이 누구인지 알고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분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빙그레 웃으시며 할머니를 부축하여 차에서 내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보짐과 지팽이를 내리워 할머니에게 주시면서 할머니, 오래오래 사십시오, 조심하여 다녀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분께서는 허리를 굽히시여 인사까지 하시고 차에 오르시였다.

차는 곧 떠났다. 그러나 할머니는 움직일줄 모르고 그자리에 그냥 선채 멀어져가는 차만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한참후에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또 다른 승용차가 할머니뒤에 와 멎었다.

할머니는 차에서 내린 한 젊은이의 팔을 붙잡고 방금 간 앞차에 타신 어른이 누구신가고 물었다.

젊은이는 그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시라고 알려주었다.

할머니는 너무도 놀라 그만 보짐을 떨구고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만민이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을 몰라본 자신을 원망하였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어버이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되뇌이며 뜨거운 눈물을 삼키였다.

문법

된소리되기

받침 [ㄹㅁ]뒤에 이어지는 토(~다, ~고, ~지, ~기)는 된소리로 발음한다.

젊다>점따	젊지>점찌
젊고>점꼬	젊기>점끼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할머니가 큰 길에서 걸음을 다그치고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2) 할머니는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3) 해방후 할머니네 생활에 대하여 말하시오.
   4) 갈림길어구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할머니를 어떻게 바래우시였습니까?
   5) 자기를 태워다주신분이 어버이수령님이시라는것을 뒤늦게 알게 된 할머니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1) 어버이수령님, 타다, 가다, 나들이, 할머니, 모르다, 그분, 누구
   2) 타다, 큰길, 할머니, 곧추, 자동차, 달리다, 한참, 멎다, 어구, 어느, 갈림길
   3) 해방전, 못살다, 할머니, 없다, 땅, 돈, 가족, 해방후, 받다,

나라, 제, 농사, 마음껏, 짓다, 살다, 행복하다

4) 조국해방전쟁, 죽이다, 미국놈, 맏아들, 승냥이, 할머니, 지나다, 마을, 많다, 사람

3. 본문에서 형동사를 모두 찾아내고 그것이 규정어와 상황어로 될 때 그와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드시오.
4. 본문에서 동사를 모두 찾아내며 그것들의 상황어를 밝히고 그와의 단어결합을 2개이상씩 만드시오.
5.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삶다, 삶고, 삶기, 삶지, 곪다, 곪고, 곪기, 곪지

6.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61과. 공 납 금

상혁은 오늘도 아침을 굶은채 구멍탄수레를 끌고 서울 종로거리에 나섰다.

추위는 며칠째 계속되고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거리에는 신문묶음을 옆에 낀 청소년들, 구두닦기통을 어깨에 멘 아이들이 수많이 오고갔다.

그들도 모두 상혁이처럼 홑옷을 입고 굶으면서도 공부할 돈을 마련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였다.

상혁은 사흘안으로 《공납금》을 학교에 바치지 못하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여있었다. 그리하여 그 《공납금》을 마련하느라고 이렇게 탄수레를 끌고 거리에 나선것이다.

상혁은 무거운 탄수레를 끌고 미아리고개를 오르기 시작하였다.

고개길은 몹시 미끄러웠다. 미끄러운 고개길로 무거운 수레를 끌자니 이마와 잔등에서는 땀이 물흐르듯하였다.

상혁이가 수레를 끌고 고개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웬일인지 수레가 갑자기 가벼워졌다. 상혁은 이상하게 생각되여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상혁이와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고있는 철민이가 수레를 밀고있었다.

상혁은 너무도 고마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철민이도 《공납금》을 마련하느라고 아침마다 신문을 나르고있었다. 그는 안고 온 신문을 다 나르고 하숙집으로 가는 길이였다.

상혁은 철민에게 《공납금》을 얼마나 마련했는가고 힘없이 물었다.

철민이도 얼마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당국은 새 학기부터 《공납금》을 또다시 20프로나 더 올린다는것을 이날 신문에 냈다. 상혁은 철민에게서 이것을 알게 되였다.

상혁은 아무래도 성공하지 못할걸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가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철민은 서로 도우며 학교를 끝까지 마치자고 하면서 상혁을 고무했다.

철민은 더욱 힘을 넣어 수레를 밀어주었다.

어느덧 그들은 고개마루에 올라섰다.

아침해가 솟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여기서 잠시 쉬다가 헤여졌다.

상혁은 방금전에 철민이가 한 말을 되새기며 한동안 수레를 끌었다.

고개마루에서 얼마쯤 내려갔을 때였다. 술에 취한 미제침략군놈이 자동차를 마구 몰며 갑자기 뒤에 나타났다.

상혁은 재빨리 수레를 끌고 옆으로 나섰다. 그런데 미제침략군놈은 우정 수레의 한쪽을 사정없이 받으며 지나갔다.

그 바람에 상혁은 수레와 함께 길옆 웅뎅이에 나가넘어졌다. 구멍탄은 쏟아지면서 절반이상이나 부서지고 수레는 찌그러졌다. 상혁이도 한쪽 옆구리를 다쳤다.

상혁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놈들을 쳐죽이고싶었다.

상혁은 성한 구멍탄들을 찌그러진 수레에 다시 주어싣고 끌기 시작하였다.

상혁은 아픔보다도 수레를 고칠 돈과 마사진 구멍탄값을 주인에게 물어야 할 걱정이 더 컸다.

이날 상혁은 그동안 마련한 돈을 주인놈에게 다 바쳐야 하였다.

상혁은 힘없는 걸음으로 하숙집에 돌아왔다.

텅빈 방안에는 고향에서 온 녀동생의 편지 한장이 놓여있었다.

편지에는 광산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며칠전에 굴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씌여있었다.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가슴아픈 소식이였다.

편지에는 상혁이를 끝까지 공부시키라는 아버지의 유언도 적혀있었다. 동생은 마지막에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마련한 얼마 안되는 돈을 보내니 《공납금》에 보태라고 썼다.

상혁은 눈물을 삼키며 편지를 읽었다. 아버지를 잃고 집도 없이 살아갈 동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다.

상혁은 다시 일감을 찾아 거리를 헤맸다.

상혁은 옹근 이틀동안 온 서울시내의 약국들에 약을 날랐다. 그러나 받은 돈은 물어야 할 《공납금》의 절반도 못되였다.

상혁은 이제 자기 힘으로 돈을 얻을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피를 파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상혁은 《혈액은행》에 찾아갔다.

이곳은 상혁이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차있었다.

상혁은 점심때가 지나서야 피를 뽑고 돈을 받았다.

상혁은 기뻤다. 그는 학교로 향하였다.

마음은 빨리 달렸으나 몸은 그렇지 못하였다.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가 떨렸다.

상혁은 해가 기울어서야 학교마당에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교실문을 열지 못한채 문밖에 쓰러지고말았다.

바로 그때 공부를 끝마치고 나오던 학급동무들이 그를 교실안에 들여다 책상우에 눕혔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서 상혁은 조금 정신을 차렸다.

그는 자기를 지켜보는 동무들앞에 《공납금》으로 마련한 돈을 내놓으면서 《이걸 〈공납금〉으로…》라고 말을 채 맺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철민은 주먹을 쥐고 일어섰다.

《이북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공납금〉이라는 말도 모르고 나라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나라 절반땅인 이남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상혁이와 같이 피까지 팔면서도 공부할수 없습니까? 미제를 쫓아내고 괴뢰도당을 때려부셔야 합니다.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을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북학생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공부할수 있습니다.》

철민의 말은 마디마디가 힘이 있었다. 동무들은 굳게 손을 잡고 북녘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상혁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교실안은 조용히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문법

막힘소리끼우기

모음과 울림소리 《ㄴ, ㅁ》사이에 막힘소리 [ㄷ]가 끼우면 그 울림소리 앞의것을 [ㄴ, ㅁ]로 발음한다.

코+ㄷ+노래>콛노래>콘노래

나무+ㄷ+모>나묻모>나문모>나뭄모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상혁은 왜 이른아침부터 탄수레를 끌게 되였습니까?
   2) 철민이는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3) 상혁은 철민한테서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4) 철민이와 헤여진 상혁이가 고개마루에서 얼마쯤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 상혁이가 동생에게서 받은 편지의 내용을 말하시오.
   6) 오늘 남조선에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피까지 팔면서도 공부할수 없는것은 무엇때문입니까?
2. 본문에서 명사의 여격형태와 결합된 단어결합을 모두 찾아내고 그와 같은 형태의 단어결합을 3개이상씩 드시오.
3. 다음의 단어들과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찾아쓰시오.
   굶다, 마련하다, 몹시, 한없이, 끝까지, 잠시, 거절하다, 넘어지다, 적어지다, 목숨을, 잃다
4. 본문에서 행동을 나타내는 명사를 모두 찾아내고 그것으로 동사를 만드시오.
5. 다음 두 문장을 이어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1) 상혁은 무거운 탄수레를 끌고 미아리고개를 오르기 시작하였다. 고개길은 몹시 미끄러웠다.
   2) 상혁은 탄수레를 끌고 고개중턱에 이르렀다. 철민이는 뒤에서 수레를 밀어주었다.
   3) 철민이의 말은 마디마디가 힘이 있었다. 동무들은 철민의 말을 들으며 서로 굳게 손을 잡았다.
6. 다음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뒤날, 뒤마당, 코날, 쇠물, 이몸
7.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제62과. 수배받는 청년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따르면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전설이 나돌고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의 어느 대학에 강혁철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주체사상을 보급하고 그들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따르는 길로 이끌었다는것으로 하여 경찰놈들로부터 수배를 받고있었다.

놈들의 감시를 받는 속에서도 그는 주체사상보급사업을 계속해나갔다.

어느날 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을 한 조직에 넘겨주고 다른 조직으로 가고있었다.

그가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서라!》하는 고함소리와 호각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다보니 경찰놈들이 그의 뒤를 따라오고있었다.

혁철은 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달렸다.

놈들은 총을 쏘아대며 계속 따라왔다.

달리던 혁철이는 갑자기 멎어섰다.

놈들의 눈먼 총알이 그의 다리를 뚫고 지나갔던것이다.

다리에서 피가 나왔다.

그는 기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했다.

그런데 그앞에 갑자기 아찔한 벼랑이 나섰다.

그가 뒤를 돌아다보니 놈들의 시꺼먼 형체가 언뜻언뜻 어둠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벼랑아래로 떨어졌다.

혁철이는 의식을 잃는 순간 북녘하늘가의 큰 별이 반짝하고 빛을 뿜는것을 보았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갔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몸은 거뜬하고 정신은 맑아지는것이였다.

북녘하늘가의 큰 별도 여전히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그는 종전의 일을 생각해보았다.

분명 자기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벼랑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던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정신은 더 맑아지고 온몸에서는 힘이 났다.

그는 자기 몸을 만져보았다. 몸에 품었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은 그대로 있었다.

혁철은 그중 한권을 꺼내들고 책장을 번졌다.

어둠속에서도 책의 글발들은 밝은 빛을 뿌리며 눈앞에 뚜렷이 나타났다.

그것을 읽는 혁철의 온몸에서도 장수힘이 솟구쳐올라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랑의 빛발로 나를 구원해주셨구나.)

혁철은 북녘하늘가를 우러러보았다.

혁철은 다시 밤길을 걸어 기다리는 동무들을 찾아갔다.

동무들을 만난 자리에서 혁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라네. 그것을 가슴에 품으면 죽음에서도 구원되네.》

그후부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을 가슴에 품고 조국통일을 위한 싸움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였다.

오늘 이 전설은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 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문법

단어안에서 《ㄹ》와 《ㄴ》가 나란히 놓였을 때 앞에 있는 《ㄹ》가 뒤에 있는 《ㄴ》에 영향을 주어 [ㄹ]로 만든다.

잃는—일른다
별나라—별라라
설날—설랄
칼날—칼랄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강혁철은 왜 경찰놈들로부터 수배를 받고있었습니까?
   2) 달리던 혁철이는 왜 멈춰섰습니까?
   3) 혁철이는 의식을 잃는 순간 무엇을 보았습니까?
   4) 혁철의 몸에서는 왜 새힘이 솟구쳐올랐습니까?
   5) 혁철은 동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2. 본문에서 명사의 대격형태와 결합된 단어결합을 모두 찾아

내고 그와 같은 형태의 단어결합을 3개이상씩 말하시오.

3. 본문에서 두개의 동사가 결합된 단어들을 모두 찾아 그 단어들의 뜻을 설명하고 문장을 각각 지으시오.
4.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달나라, 돌놀이, 물놀이, 명절날, 일년
5.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10개의 문장으로 이야기하시오.

제 6 3 과. 조선은 하나다

조선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훌륭한 민족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이다.

조선인민은 먼 옛날부터 아름다운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목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외래침략자들은 조선인민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조선을 침략해왔다.

미제침략자들은 1866년에 침략선 《샤만》호를 가지고 대동강에 기여들었던 때로부터 100여년동안 조선에 대한 침략을 계속해왔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05년에 조선을 강점하고 근 40년이상 조선인민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그 어떤 침략자들도 용감한 조선인민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지 못하였다.

조선인민은 가는곳마다에서 외래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워이겼으며 나라를 훌륭히 지켜냈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시고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국을 광복하시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해방된 조국땅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의 기쁨과 자랑은 컸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선에 대한 100여년의 침략력사를 가진 미제침략자들이 또다시 조선의 절반땅에 기여들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들어 남조선경제를 파괴하고 가는곳마다에 군사기지를 만들어놓고 청년들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괴뢰군에 몰아넣었으며 인민들을 마구 잡아가두고 죽이였다.

조선땅의 허리에는 가시철조망을 늘여놓고 북과 남의 인민들이 서로 다닐수 없게 만들었으며 편지도 주고받을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예로부터 한 강토였던 조선은 둘로 갈라지게 되였다.

오래동안 전쟁준비를 해온 미제침략자들은 주체39(1950)년 6월 25일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원쑤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훌륭히 지켰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렇게 되자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남조선만이라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어보려고 《두개 조선》정책을 쓰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군사분계선지역에 높이가 5메터, 밑폭이 10메터, 웃폭이 3메터(어떤곳은 높이가 6~8메터, 웃너비가 4~6메터 되는곳도 있다), 그리고 길이가 240여키로메터나 되는 철근콩크리트장벽을 쌓아놓았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넘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념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통일 3대원칙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시였으며 통일된 나라의 국호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제정해주시였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의 10대강령을 비롯한 조국통일을 위한 여러 방침들을 제시하시여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여 머지 않아 조선은 통일될것이며 7천만 조선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것이다.

문법

《ㅔ》와 《ㅖ》, 《ㅚ》와 《ㅙ》를 정확히 발음하여야 한다.

녕예, 노예
외국어, 왜적

련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조선인민은 먼 옛날부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 외래침략자들은 왜 조선을 침략하였습니까?
3) 미제의 조선침략의 100여년의 력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였습니까?
4) 일본침략자들은 언제 조선을 침략하여 몇년동안 조선인민을 착취하였습니까?
5)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은 무엇입니까?

2. 다음의 단어에서 보조적으로 쓰인 부분을 밝히고 그 뜻을 말하시오.

살아오다, 침략해오다, 몰아넣다, 잡아가두다, 만들어보다, 쓰고있다

3. 본문에서 형동사를 모두 찾아내고 그가운데서 명사와 말뿌리를 같이하는것을 갈라내고 그것들과의 단어결합을 각각 3개이상씩 드시오.

4. 본문에서 입음상, 시킴상의 형태로 쓰인 동사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 동사의 상형태를 말하시오.

5. 다음의 문장들에서 밑줄을 그은 단어들을 다른 성분(형태)으로 바꾸고 그에 맞게 문장을 고치시오.

1) 조선인민은 먼 옛날부터 아름다운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자기의 민족문화를 창조하였다.
2)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것때문에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불행은 더욱 커가고있다.
3)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6. 다음의 세 문장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1) 미제승냥이들은 100여년동안 조선을 침략해왔다. 놈들은 1866년에 침략선 《샤만》호를 가지고 조선을 침략했다. 미제침략자들은 해방후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2) 미제는 조선인민의 첫째가는 원쑤이다. 조선인민은 하나로 뭉쳐 남조선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쫓아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7. 다음의 단어들을 정확히 발음하시오.

명예, 지혜, 무예, 예술, 피상하다, 파괴하다, 통쾌하다

8. 본문을 여러번 읽고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오.

단 어

가난
가늠하다
가득
가라지
가르다
가리키다
가마
가마니
가막조개
가만히
가볍다
가슴
가시
가치
가파롭다
가쯘하다
가을걷이
가위
각별하다
간
간고하다
간곡하다
간소하다
간장
간직하다
간청하다
갇히다
갈리다
갈래
감
감기
감돌다
감분

감시
감정
감탄하다
감싸쥐다
감쪽같이
갑판
갓
갓난애기
강보리밥
강점하다
강좌
강토
강아지
갚다
거느리다
거닐다
거두다
거부기
거저
거침없이
거품
거뜬하다
건립
건물
건설
건지다
건축술
걸리다
걸상
검박하다
겨루다
견학
결속

결혼
겸비하다
겸손하다
겹치다
겹쌓이다
경례
경시
경찰
곁
고급
고개
고대
고래고래
고비
고상하다
고생
고장
고적
고추
고함
고뿌
고삐
고아대다
고요하다
고요히
고이
고이다
교탁
교회당
구내
구두
구두쟁이
구르다

구명탄
구석기시대
구수하다
구심점
구원하다
군복
군사
군침
굴뚝
굶주림
굽히다
굽이굽이
굽이치다
궁둥방아
귤
그냥
그네
그네뛰기
그릇
그리
그저
그치다
근근히
금강석
금지
급하다
급해맞다
기
기간
기겁하다
기관
기관차
기다

기둥
기대다
기름
기묘하다
기미
기분
기상
기슭
기지
기초하다
기침
기풍
기암
기업소
기여들다
기와
기웃거리다
기이하다
길쌈놀이
길이길이
김
김매다
김치
깃들다
깊숙이
개울
게으름뱅이
계곡
계급
계기
계산기
계산하다
계절
계약서
괴로움

괴상하다
귀
귀엽다
과자
과제
과업
과일
곽쇠
관계
관광
관성렬차
관습
관심
광경
광명성
광범하다
광부
하늘소
나돌아다니다
나들이
나란히
나르다
나무군
나지막하다
난데없이
날다
날래다
날짐승
낫다
낭떠러지
낚시질
너그럽다
너비
너털웃음
넋

널리
널뛰기
넙적
넣다
년장자
념려
념원
노루
노치
노을
노예
녹다
녹두
녹아나다
논판
논뚝길
놋대접
농군
농부
농사
농업
누렇다
눈
눈길
눈두덩
눈보라
눈섭
눈치
눈까풀
눈앞
느티나무
늠실늠실
늦추다
늪
내기

내던지다
내리쪼이다
내밀다
내장
내쫓다
냄새
냉큼
넥타이
뉘우치다
다리
다방면
다시다
다정히
다짐
다치다
다툼질
다행
다양하다
닥치다
단단히
단두대
단련
단숨에
단잠
단지
단추
단풍
단오
달구지
달하다
담력
담배
담장
담요
당과류

당대
당장
당황하다
더럽다
더없다
더우기
더위
덜미
덧붙이다
덧없이
덩이
도당
도로
도저히
도중
도끼
독
독상
독특하다
돈
돈가방
돈벌이
돋구다
돌격로
돌배
돌아보다
돌아치다
동방례의지국
동시
동치미
동행하다
동떨어지다
동원하다
두드리다
두루마기

두리번거리다
두툼히
두께
둥실
둥지
드나들다
드디여
들려주다
들메나무
등교
등대
등받이
딩굴다
대
대가리
대기념비
대기실
대기하다
대다
대담성
대대로
대접하다
대중
대체로
대포
대표부
대회
댁
데굴데굴
데다
데룩거리다
되돌아서다
되새기다
된장
될수록

뒤섞이다
뒤흔들다
라지오
라이타
락심하다
락원
란
량반
려명기
력사적
련
련결하다
련방제
련이어
렬사릉
령
령리하다
령하
로작
로약자
로인
록수
료해
룡
류학생
류행
류황
리상적
린색하다
림업
랭면
랭수마찰
례절
마구
마대

마련하다
마사지다
마스다
마주치다
마중
마치
마침내
마음씨
막대기
만나뵙다
만년
만년필
만물
만민
만족스럽다
만행
만약
말
말다
말끔히
맛내기
망신스럽다
망하다
맡다
머리기름
머슴군
먹이
먼지
멈추다
멋
멍멍이
면
면담
면적
면하다

멸적
명승
명주실
명제비
모
모기장
모내기
모데기다
모조리
모질다
목
목걸이
목청껏
몰골
몰래
몸단장
몸소
몸뚱이
못
묘
무기
무너지다
무너뜨리다
무덤
무력
무렵
무료
무르익다
무릎
무리
무비
무성하다
무장
무조건
무지개

무척
무우오가리
묶다
묶다
문건
문득
묻히다
물러나다
물론
물리치다
물미끄럼차
미루다
미소
미시가루
미처
미치다
미욱하다
민속
민주
밀
밀가루
밀대
밀영
메다
매달리다
매끈하다
맥박
맥주
메밀
메아리
바나나
바늘
바르다
바지
바께쯔

바빠
바싹
바위
박
박다
박사원
박히다
반가이
반갑다
반도
반성하다
발
발가락
발등
발목
발바닥
발톱
방랑
방석
방식
방직공장
방침
방해
방울
발머리
버릇
번대
번지다
번쩍거리다
벌레
벌리다
범위
법
벗어지다
벼락

벼슬
벽
번번하다
별맛
별명
별반
병력
병세
보고
보급
보관하다
보름
보리
보물
보살피다
보장하다
보짐
보태다
보따리
복구하다
복무하다
본래
본때
볼
봉사시설
봉화
봉우리
부글부글
부담하다
부라리다
부락
부리
부리다
부모
부부

무서지다
무지런하다
부축하다
부채
부끄럽다
분
분간하다
분계선
분리
분명
분주하다
분하다
불가피하다
불길
불러일으키다
불만
불면불휴
불멸
불바다
불벼락
불신
불편하다
불효
불후
불쑥
붓
비게
비단
비롯하여
비명
비밀
비발치다
비통하다
비하다
비끼다

비웃다
빈소리
비자루
빙그레
빛
백발
백발백중
밸
뱀
배
베개
베다
사격
사기
사귀다
사닥다리
사라지다
사령관
사명
사무치다
사발
사방
사사롭다
사슴
사색
사색하다
사적관
사진기
사탕
사활적
사양하다
사연
사위
산골
산당집

산소
산천
산허리
살가죽
살림
살림살이
삼다
삼키다
상대방
상순
상징
상쾌하다
상하다
샤쯔
서가
서두르다
서슴없이
석조탑
쉬다
선교사
선렬
선비
선풍기
설레설레
설레이다
설맞이
설사
설음
성
성냥
성산
성전
성지
성하다
소금

소나무
소멸
소문
소박하다
소생하다
소작살이
소재지
소행
소용
소원
속내의
속이다
손도장
손등
손목
손바닥
솜저고리
솜씨
솜옷
송곳
수[1]
수[2]
수군
수도
수레
수리취
수배
수북히
수수
수수하다
수정
수닭
수행하다
수양버들
수위

수원
숙이다
순대
순서
숟가락
술
숨지다
숭고하다
숭배하다
숭어
스스로
스승
스치다
스키장
스케트장
슬기
슬머시
습득하다
승냥이
승리
승무조
승부
시골
시구
시늉
신비롭다
신선
신식
신신당부
신심
신랑
실례
실망하다
실시
실지

실컷
실태
심보
심부름
심술
심장
새별
새삼스럽다
색칠
생사고락
생산하다
생일
세계
세면장
셈
쇠다
자그마하다
자식
자색
자전거
자유
작대기
작문
작별
작정
잔디
잔디밭
잠시
잡곡
잣나무
절랑절랑
절벽
절세
절절히
절절하다

절이다
젊은이
접근하다
접수실
접시
젓다
정
정각
정거장
정력
정리
정보
정부
정성
정성껏
정신없이
정전
정중히
정치
정하다
정형
정확하다
조
조롱
조상
조성하다
조소하다
조심히
조절하다
조직하다
조치
조화
족치다
존재
졸업

좋음
좀
종달새
종목
종합적
주기
주렁주렁
주력
주막
주머니
주먹
주변
주저하다
주저앉다
주체교육
죽
중
중동
중등
중병
중세기
중얼거리다
중엽
즈음하다
즐기다
증조할아버지
지게
지더체
지르다
지시봉
지새우다
지저귀다
지정하다
지짐
지척

지치다
지체하다
지팽이
지하실
지하자원
지하전동차
지혜
지휘관
지휘처
지어
직경
진귀하다
진달래
진료소
진보
진출하다
진행하다
질리다
질서
짊어지다
집단
집단주의정신
집무실
집어삼키다
짓밟다
짖다
재건
재능
재더미
재무지
재산
재촉하다
재털이
재빨리
쟁반

제기
제도
제발
제비
제시하다
제정
제정되다
제철소
죄
죄송스럽다
죄송하다
쥐
쥐기밥
차
차리다
차창
차편
착하다
찬가
찬란하다
찬찬히
참답다
참대
창시하다
창조
창창하다
처단하다
처마
처박히다
천고
천대
천정
처지
천품
천하다

철갑선
철도
철저히
철조망
철학
첨
청
청산
초가집
초등
초상화
촘촘히
추석
추수
추위
축하
출장
충분하다
충분히
충성
층암
치마
치솔
치우다
침략선
칭송
채
채기
취하다
코수염
코웃음
콩크리트
쿨쿨
크림
큼직하다

쿵쿵거리다
타다
탁월하다
탄부
탄창
탄띠
탄약
탄우
탐신
터
터전
터뜨리다
턱
털
털다
털모자
털썩털썩
텅텅
토론회
토막
통곡하다
통졸임
통치배
통쾌하다
통탄하다
통학길
투사
트렁크
틀다
틈
태여나다
태연하다
태우다
파괴하다
팔짝

퍼그나
퍼지다
펄쩍
펴다
편
편히
편안히
편의시설
평로
평생
포괄하다
포대기
포악하다
표본
푸근하다
푸다
푸르싱싱하다
푸짐하다
푹
푹신하다
푼푼히
풀다
풀썩
품값
품팔이
풍경
풍기다
풍부하다
풍부히
풍습
풍자
풍치
피
피눈물
피둥피둥

피로
피자욱
피하다
피여나다
피여오르다
필갑
필림
필수품
팽이
폐
하도
하루종일
하루빨리
하숙집
학식
한결같이
한동안
한참
한창
한탄하다
한없이
핥다
합숙생
항일무장투쟁
향기
향수
허리
허물어지다
허줄하다
헌법
헐레벌떡
헐떡거리다
험난하다
헛소리
혀

혁띠
현관
현대적
현명하다
현지지도
형광등
형제
형체
형편
호기심
호미
호수
호탕하다
호통
혼
혼사
홈
효과
효성
후세
후추
훔치다
휴지통
흐느적거리다
흐느끼다
흐려지다
흐뭇하다
흔히
흠모
흥성거리다
흥취
흩어지다
힘껏
해당
해빛

해산
행군
행복
행전
행인
헤치다
혜택
회고하다
회전비행기
휘젓다
희귀하다
희망
흰쌀밥
화
화가
화구
화닥닥
화려하다
화목하다
화분
화산
화석
환성
환하다
환호
활
황소
황생초
황홀하다
까나리
까닭
까치
깜짝
깡충
껌벅거리다

껑충
꼬리
꼭대기
꼴
꼼짝
꾸다
꾸리다
꾸미
꾸짖음
끄덕하다
끊어지다
끌끌하다
끓다
끝내
끝마치다
끝없이
끼니
끼다
깨지다
깨우다
꽈
따라
따라하다
따사롭다
따지다
땀
떠들다
떠듬떠듬
떡
떨기떨기
똑똑하다
뚱기적거리다
뜨끈하다
뜯다
뜻밖에

때려부시다
떼다
뛰여나다
빠뜨리다
빨개지다
빨래집
빵
뻗다
뽐내다
뽑다
뿜다
빽빽히
싸다니다
싸매다
쌍
쌓이다
써먹다
썩다
썰매
쏘다
쏘파
쏜살같이
쑤다
쑥
쓰레박
쓰리다
쓴웃음
쓸리다
쓸모
쓸어나오다
쓸어지다
씨름
씨붙임
씨앗
짜다

짬
쩝쩝
쪼개다
쪼들리다
쪽잠
쫓기다
찌렁찌렁
찌꺼기
찍다
찡그리다
찦차
찧다
아담하다
아무리
아무래도
아시아
아쉽다
아끼다
아찔하다
안경
안개
안내
안색
안주
안타깝다
안팎
안해
알맞춤하다
알아차리다
암만
야웅이
야유
야외
약국
약속

약초
양념장
양말
양복
양복점
어기다
어느덧
어느새
어른
어림짐작
어슬렁어슬렁
어조
어죽
어지럽다
어촌
어깨
어여쁘다
어이
억지
언덕
없다
얼른
얼핏
얼씬
엄청나다
업적
엉엉
여기다
여전히
역
연
연구실
연기
연하다
열광적이다

열람실
열리다
열쇠
열정
엿듣다
영광스럽다
영문
영생
영양가
오금
오누이
오리
오히려
온갖
온종일
온통
온풍기
옷장
옷차림새
요기하다
요긴하다
요란하다
요람
욕심
욕심쟁이
용무
용해공

우거지다
우렁차다
우르르
우르렁거리다
우리
우정
우뚝
우쭐렁거리다
우아하다
운동화
운명
울부짖다
울상
울타리
웅뎅이
웅장하다
유구하다
유명하다
유물
유별나다
유적
유유히
윷놀이
음성
음향
음흉하다
응접실

이름나다
이마
이미
이발
이불장
이상하다
이슬
인자하다
인차
일가
일감
일대
일러오다
일부
일정하다
일쿠다
일화
임무
입
입김
입술
입학
잇닿다
잉크
애
애국
애국자

앵무새
예견하다
예고
옛말
외동딸
외루
외우다
위
위생실
위치하다
위협하다
위훈
위엄
위업
위인
의논하다
의문스럽다
의식
의심하다
의좋다
의원
완치하다
왕권
원기
원래
원칙
왜적

조선어강독1(류학생용)

집필 부교수, 학사 리동빈
학사 김철환
편집 최숙경
장정 주경희
낸곳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인쇄 주체88(1999)년 9월 10일

심사 부교수, 학사 양하석,
부교수, 학사 김윤교,
부교수, 학사 김선규
교정 리태숙
인쇄소 김일성종합대학인쇄공장
발행 주체88(1999)년 9월 15일

교-99-173-1 50부 값 1원 30전